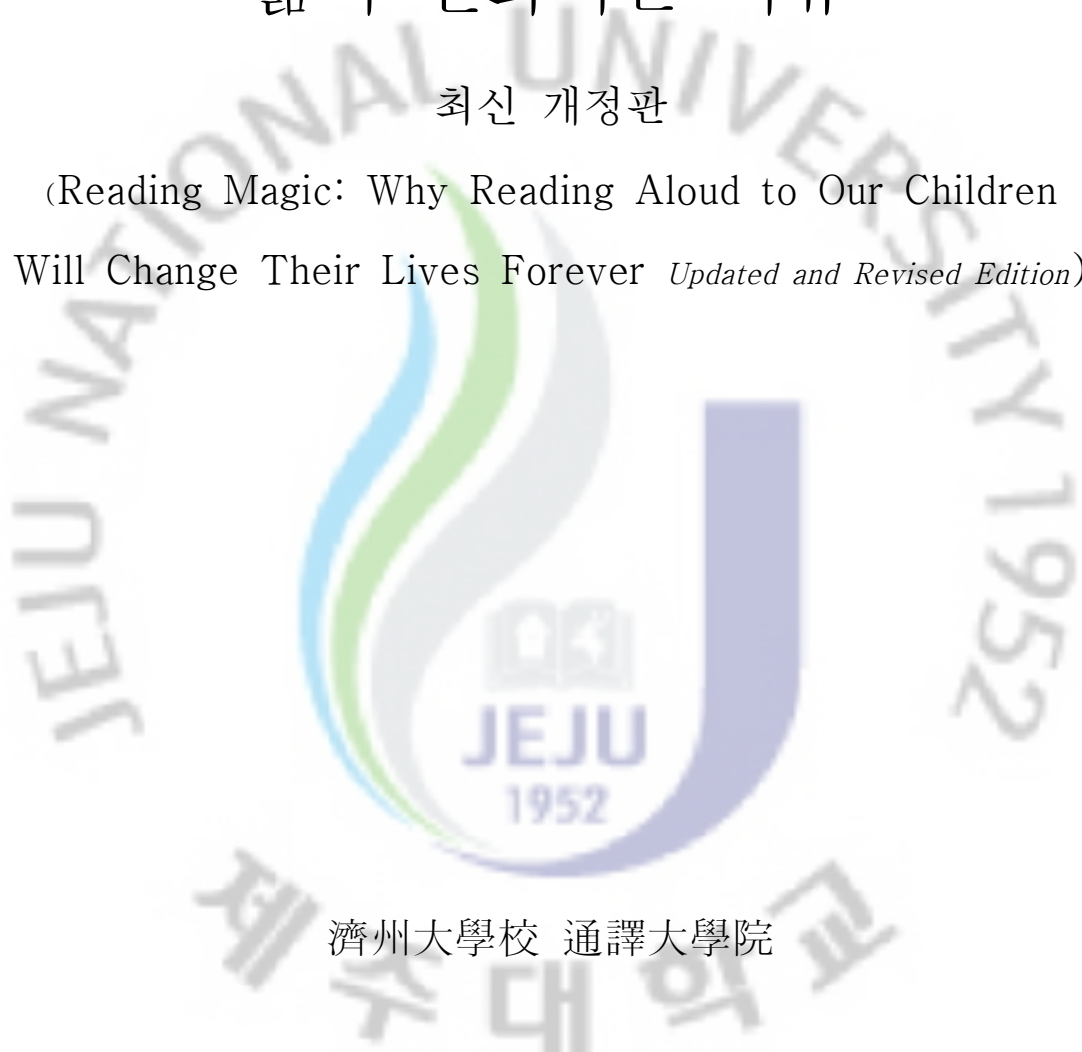


碩士學位論文

리딩 매직: 책을 읽어주면 아이의
삶이 변화되는 이유

최신 개정판

(Reading Magic: Why Reading Aloud to Our Children
Will Change Their Lives Forever *Updated and Revised Edition*)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韓英科

정브니엘

2010年1月

리딩 매직: 책을 읽어주면 아이의 삶이 변화되는 이유

최신 개정판

(Reading Magic: Why Reading aloud to Our Children
Will Change Their Lives Forever *Updated and Revised Edition*)

指導教授: 박 경 란

정브리엘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1月

정브리엘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
委 員	_____	Ⓜ
委 員	_____	Ⓜ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2010年1月

Reading Magic: Why Reading Aloud to Our
Children Will Change Their Lives Forever
(*Updated and Revised Edition*)

Peniel Chung

(Supervised by Professor Kyung-Ran Par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January 2010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목차

ABSTRACT	1
머리말	2
Chapter 1 『풋북』 (The Foot Book).의 기적	4
Chapter 2 마법의 작동	6
Chapter 3 탄생, 두뇌 그리고 그 이후	11
Chapter 4 위력	17
Chapter 5 일상적으로 읽어 주기	20
Chapter 6 이렇게 읽어주라!	24
Chapter 7 최대의 효과 거두기	34
Chapter 8 증거	47
Chapter 9 읽기의 첫 번째 비밀: 활자의 마법	49
Chapter 10 읽기의 두 번째 비밀: 언어의 마법	53
Chapter 11 읽기의 세 번째 비밀: 일반적 지식의 마법	62
Chapter 12 세 개의 비밀이 모두 풀리면?	65
Chapter 13 "책! 책! 책! "	76
Chapter 14 텔레비전: 좋은 것, 나쁜 것, 추한 것	87
Chapter 15 문제해결	91
Chapter 16 Phokissing on Fonix	96
Chapter 17 남자아이들과 책 읽기	106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무 권의 책 목록	117
감사의 글	119

ABSTRACT

Reading Magic a book that encourages parents and teachers to read aloud to their children and students. It introduces why reading aloud to children is important and how to do it in a right manner. Like its subtitle the book explains why reading aloud to our children will change their lives forever. There are seventeen chapters in this book which provides various solutions for the problems that parents and teachers face when they read aloud to their children and student. This book contains subjects such as when to start read aloud to your children, how often books should be read to them and many other wonderful subjects that can really help parents and teachers. It gives a broad picture of what read aloud real is, and how to get the most out of it. Also, for those who are not sure which books to choose for children, this book includes the list of twenty books that children love. This is a very detailed book and every examples in used in the book, except phrases that are extracted from other materials, are from the experience of the author's life, they are real, and can be easily associated with lives of readers. If you are a parent or a teacher, you should read this book before you read any other books.

머리말

지금 너무나 들뜬다! 2001년 『리딩 매직』 (*Reading Magic*)이 처음 출판된 이후 내가 가능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소리 내어 읽어 주기가 유행하고 있다. 소리 내어 읽어 주기를 단지 조금 즐거운 학습활동으로 생각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세상이 이것에 열광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분위기가 변하였다. 자세도 달라졌다. 사람들이 인식하는 혜택의 범위도 늘어났는데, 특히 두뇌 발달 면에서 그렇다. "소리 내어 읽기"는 이제 호주 전역과 해외에서 바쁘게 돌아다니는 하나의 말이 되었다. 나뿐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소아과 의사, 언어치료사, 아동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도서관 사서, 경제학자, 보육사, 책 가게 주인, 미디어 관계자, 부모 그리고 열정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나뉘는 위치에서 소리 내어 읽어 주기 메시지를 열정적으로 전파하는 이야기를 들어왔고 그들과 함께 일해 왔다. 내가 만난 모든 개인, 단체 그리고 정부 관리들은 학교를 시작하기 전의 아이들에게 책을 소리 내어 읽어 주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윈-윈 (win-win)할 수 있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솔직히 말해 결국 모든 것은 다소 건조할지 모르지만 경제적 문제로 귀결된다. 하지만 아기들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는 것이 나라 전체를 부유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정부가 조기 언어교육에 더 많은 관심, 시간, 자금을 지원한다면, 후에 문맹, 범죄, 불경기, 실업 그리고 복지수당에 들어갈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어린아이에게 소리 내어 책을 읽어 주는 것은 이 같은 비용효율적인 면에서 놀랍고, 정부는 이러한 소리 내어 읽기 소식을 좋아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줌으로써 그들을 더 행복하고 밝은 아이로 키울 수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나라의 행복을 한 단계 상승하게 하는 것이 된다. 태어나서 몇 주 혹은 몇 달 안에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순수한 천국임을 깨

닫는 아이, 책이 기쁨, 사실, 재미, 생각의 양식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아이, 부모와 사랑에 빠지는 아이, 이야기를 부모와 함께 나누는 아이, 태어나서 오년동안 매일 십 분씩 책을 들은 아이들은 대개 빠르게, 행복하게 그리고 쉽게 책 읽는 것을 배운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좋은 일들이 공동체 전체에 생긴다. 정말 좋은 소식이지 않은가?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다.

『리딩 매직』이 처음 출판된 이후 <파닉스(Phonics)>와 <남자 아이들>과 <읽기>라는 두 개의 주제가 계속적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해 왔다. 내가 이 둘을 이 책의 초판에서도 몇 번 거론을 하기는 했지만, 깊게 다루지는 않았다. 이번 개정판에서 새롭게 들어간 두 개의 장(章)을 통해 그것들을 더 상세하게 다룰 수 있게 되어 기쁘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기들과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20권의 책 목록을 이 책에 포함시켰다. 독자들 마음에 들것이다.

이제 한 번에 한 장씩, 세상을 변화시키러 나가보자!

-멤 폭스



『풋북』 (*The Foot Book*) 의 기적

1975년 딸 아이 클로에(Chloe)는 들뜬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오며 이렇게 말했다, “나 읽을 수 있어!” 그 아이는 네 살이었고 학교에 나간 지 겨우 두주 밖에 되지 않았던 때였다.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가 귀엽다고 생각될 때 그러하듯이 우리는 아이에게 웃어 주었다. 글을 읽을 수 있다고? 그냥 해보는 말이겠거니 했다.

아이는 방으로 뛰어 들어가 당시 본인이 가장 좋아하던 책들 중 하나였던 닥터 수스(Dr. Seuss)가 쓴 『풋북』 (*The Foot Book*)이라는 책을 들고 나와 단어를 하나하나 표정까지 지어가며 읽고 있었다.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근데 우리 딸이 그 책을 정말로 읽을 수 있었던 걸까? 딸아이에게 수도 없이 그 책을 읽어 주었던 터라 아마도 외워서 읽는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아이의 기를 꺾진 안을까 주저 하며 용감하게 아무 페이지나 펼쳐보았다. 딸아이가 책의 처음부터 암송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페이지만을 따로 읽을 수 있는지 확인 해보기 위해 서였다. 클로에는 그 페이지를 읽고 우리가 무작위로 걷는 모든 페이지를 계속 읽어 나갔다.

그때 나는 대학에서 드라마를 가르치는 교수였지만 책 읽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내가 보기에 난 ‘그저’ 평범한 엄마였다. 그래서 다음날 나는 딸아이의 학교로 달려가 선생님을 만나 전날 있었던 일을 말씀 드렸다.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흥분을 가누지 못한 내가 물었다. “어떤 방법을 쓰셨어요? 이진 기적이예요!”

“전 별로 한 게 없는데요.” 선생님이 대답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클로에는 제 반에 들어온 지 두주밖에 되지 않았는걸요. 아마도 부모님께서 클로에가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자주 책을 읽어 주셨나 보죠.”

“물론 그랬죠.”

“그래서 그랬나보죠” 선생님은 마치 그게 이유라는 듯이 말했다.

그 후로 난 책을 소리 내어 읽어주는 것의 이점에 폭 빠지게 되었다. 그것은 가르치는 것이 직업인 내 업종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드라마에서 읽고 쓰기를 가르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만약 소리 내어 책을 읽는 것이 내 아이의 삶과 또 읽기를 배우는 아이의 능력에 그렇게 힘 있는 영향력을 끼쳤다면, 이것을 숨겨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비밀을 알려야만 했다.

☆

지난 25년 동안 나는 아이들이 어떻게 글을 읽고 쓰는 지에 대해 그리고 소리 내어 책을 읽는 것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워왔다. 지금 나는 전 세계를 다니며 부모님, 선생님, 도서관 사서, 서적 판매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소리 내어 책을 읽어 주라고 열심히 권하고 이유도 설명한다. 나는 읽고 쓰기를 가르치는 국제적 권위자로, 또 작가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지만 평범한 어머니의 입장일 때 가장 열정적으로 말하게 된다. 딸에게 책을 소리 내어 읽어주었던 것은 멋진 경험이었다. 나와 딸 아이는 많은 종류의 훌륭한 책들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다양한 이야기들로 서로를 더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었다. 내가 클로에에게 일상적으로 책을 읽어 주었던 것이 아이가 배우지 않고도 글을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임을 그때는 몰랐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마법의 작동

나는 몇 해 전 정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참가했었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어린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는 것의 유익함을 알리는 프로그램이었다. 나는 방송 중에 세 살 된 아이의 엄마와 아빠에게 아이들에게 왜 책을 읽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 부모는 그들의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지만 아이에게 책을 거의 읽어 준 적이 없었고 중요함조차 알지 못했다. 아이는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랐다.

바로 그날, 나는 내가 대화를 나누어야 할 상대가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대신 프로그램 감독의 요청에 따라 나는 세 살짜리 남자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앞서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내가 그토록 주창했던, 그 사랑스럽고 재미있고 즐거운 책 읽어주기 분위기를 실제로 보여줄 수 있었다.

“나는 이 아이를 전혀 모르는데!” 이런 생각부터 들었다. “난 이 아이를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이 아이 내 위압적인 성격에 겁먹을 거야! 어떻게 이전에 알지도 못하던 아이와 그렇게 간단히 친구가 되어 함께 행복하게 책 읽는 것을 배울 수 있겠어?”

우리는 조금씩 예민해졌고 시간이 부족 한 탓에 압박감이 밀려왔다. 그 와중에 난 벤(아이의 실명은 아니다)을 아주 잠깐 동안 카메라와 조명 아래서 빼낼 수 있었다. 함께 손을 잡고 내 차가 있는 곳까지 걸었다. 그리고 벤에게 주려고 준비해온 특별한 선물을 둘 만의 시간에 공유했다. 그것은 새로 발간된 내 책 『잠잘 시간』 (*Time for Bed*) 과 포스터였다.

얼마 뒤, 카메라가 돌아가는 동안 난 그 집 거실에 누워 벤에게 책을 읽어 주었다. 그 후엔 벤과 함께 책을 읽었다. 또 그 후에는 벤이 나에게 책을 읽어 주었다. 이 모든 것이 15 분 동안에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방송되기 하루 전날 밤 난 그 방송의 광고를 보게 되었고 거의 심장마비를 일으킬 뻔했다. 광고는 “이 여성은 당신의 아이가 15분 만에 글을 읽을 수 있게 합니다!” 와 대략 비슷했다. 물론 나는 그러한 주장을 한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하지만 내가 책을 읽어 주었던 15분 안에 벤은 정확한 단어를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웃으며, 이렇게 읽었다, “잠잘 시간이에요.”(It’s time for bed) 카메라맨은 놀라 숨을 죽였다. 음향담당자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감독은 춤이라도 출 것 같았다. 벤의 부모는 너무 놀라 말을 하지 못했다.

나마저 그것은 우연한 사고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며 물었다, “그럼 이 페이지에는 뭐가 있을까?” 다시 한 번 벤은 짧은 손가락으로 글을 짚어가며, 자지러지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잠잘 시간이에요.” 내가 다른 페이지를 펴도 벤은 계속해서 그렇게 글을 읽었다. 모든 것이 카메라에 녹화되었다. 벤은 15분 안에 읽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평범한 부모의 평범한 아이가 글 읽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설명을 하라고 한다면, 나는 간단한 세권의 그림책을 계속해서 사용했다고 말할 것이다. 사실이 그렇다. 세 권의 책은 내가 쓴 책 『잠잘 시간이에요』, 『하티와 여우』 (*Hattie and the Fox*) 그리고 파멜라 알렌(Pamela Allen)의 『누가 보트를 가라앉게 했어?』 (*Who Sank the Boat?*)다. 내가 이 책들을 선택한 이유는 책들 마다 똑 같은 동물이 계속 나오고, 중요한 운율, 리듬 혹은 반복적 요소들이 있어서였다. 이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믿기에 가장 의미 있는 사실은, 아이와 나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그곳은 바보들이 있는 소굴이자 재미있는 놀이가 있는 곳이었다. 나는 소리치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맞아! 맞아! 맞아!” 내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 졌고

난 벤을 끌어안았다. 벤은 책을 읽는 것이 여태껏 해보았던 것 중 가장 재미있는 일인냥 웃으며 싱글거렸다. 우리는 말 그대로 바닥에서 뒹굴거리며 “잠잘 시간이예요.” 라는 말이 나올 때 마다 손으로 책을 쳤다. 매 페이지에서 그 글이 보일 때 마다 우린 우리의 업적에 소리를 질러댔다.

그곳에 긴장감 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절대로 조용하지도 않았다. 우리가 책 한 권 한 권에서 똑 같은 농장 동물을 발견했을 때도 우리는 시끄럽게 떠들었고 우리의 발견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물론 함께 라는 것도 한몫 했다.

“여기 또 돼지가 있네! 우와! 여기 말이 또 있어! 봐봐, 이 책은 소가 있어, 이 책에 소가 있다니깐, 또 다른 소가 이 책에 있네! 믿을 수 있어? 소, 온통 소 투성이야!”

벤의 얼굴은 생기 있게 빛나고 있었다. 깨물어 주고 싶을 정도였다, 그 아이의 반짝거리는 눈은 너무나 귀여웠고 벤 또한 나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했다. 내가 그 아이를 꼭 껴안아 공중으로 올려주며 “와, 넌 정말 똑똑해!”라고 말할 때 마다 벤은 행복감에 흠뻑 빠져 들었다. 우리는 책과 몇 시간이고 함께 놀 수 있었다. 둘 다 멈추고 싶지 않았다. 얼마나 아름다운 슬픔인가! 우린 정말 행복했다!

세 살의 벤이 15분 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책 읽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 것과, 계속해서 배우고 싶어 하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또 있을까? 벤은 많은 상을 받았다. 그 아이는 우리 둘이 함께 한 놀이를 재미있어 했는데 내가 벤이 항상 “이길 수 있게” 신경을 썼기 때문이다. 책 자체만으로도 재미있었다. 책의 떠들썩하고 리듬감 있는 문체와, 수도 없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페이지 마다 계속해서 이어졌다. 무엇보다도 벤은 새로운 친구와 좋은 시간을 가졌다. 그건 바로 나였다. 우린 친구가 된 것이다.

☆

아이들에게 소리 내어 책을 읽어주는 것의 가장 큰 이점은 이처럼 아이들과 함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책에 나오는 그림과 글, 생각과 관점, 리듬과 운율, 고통과 편안함, 희망과 절망, 삶의 큰 문제들을 함께 공유함에

따라 마음과 가슴으로 연결되고, 함께 읽었던 책과 관련된 비밀사회에서 유대감이 돈독해진다. 글자를 터득하는 불길은 아이와 책 그리고 읽어주는 사람간의 정서적 불꽃에 의해 타오를 수 있다. 책만으로 혹은 아이만으로 또는 그 책을 읽어주는 어른만으로는 이 불길을 일으킬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이 셋이 서로 묶여 편안한 화음 속에 결속이 이루어진다.

☆

소리 내어 책을 읽어 주는 일은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은 아이, 엄마, 아빠에게 좋은 일과이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나 다른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줄 때 종종 소리를 내어서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곤 한다. 책을 읽으면서 신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책을 읽어 주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말하게 되고, 이것은 마치 맛있는 “초콜릿”과 같은 경험이 된다.

이런 ‘초콜릿’ 같은 경험은 내 미용사 에게도 있었다. 그녀의 딸 티피(Tiffany)는 생기가 넘치고 활동적인 아이였다. 이 아이는 굉장한 표현력과 열정을 갖고 여섯 살도 되지 않았을 때 온 동네사람들에게 책을 읽어 주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엄마에게 “글을 가르쳤나 봐요, 다른 아이들 보다 훨씬 잘 읽네요.” 라고 말했다.

“가르쳤냐고요?” 그녀가 말했다. “물론 가르쳐 주지 않았죠.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도 몰랐는데, 그럴 용기도 없었어요, 혹시라도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요. 내가 한 거라곤 책을 소리 내어서 읽어 준 것 밖엔 없어요.”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를 믿지 않았다, 그것이 너무 쉬워 보였기 때문이다.

☆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책을 소리 내어 읽어준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염려 하지 않아도 된다. 선생님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부모 혹은 보모나 보육원 선생님이 이미 제공해 놓은 소리 내어 책

을 읽는 법의 기초를 더 튼튼하게 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금방 자기 스스로 책 읽는 법을 배운다.

모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는 것의 커다란 교육적 장점과 즐거운 행복감을 이해한다면, 또 모든 부모들과, 아이들을 사랑 하는 모든 어른들이 그들 삶 속 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루에 최소한 세 가지의 이야기를 읽어 준다면 문맹을 한 세대 안에 퇴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우릴 막겠는가? 한번 해 보자!





탄생, 두뇌 그리고 그 이후

읽는 것의 문제는 고치기 어렵지만 그것을 예방하는 것은 쉽다. 예방은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한다. 사실, 아이에겐 학교에 들어간 첫 날도 읽기를 배우기에는 너무 늦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최근 두뇌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의 발달에 있어서, 어릴 적 몇 해 동안의 삶이 우리가 깨닫는 것 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한다. 어린아이들의 두뇌는 태어났을 때 25퍼센트 발달한다. 그 후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안아주고, 놀아주고, 말해 주고, 노래 해 주고, 책을 읽어 줄 때 마다 나머지 75퍼센트의 뇌가 발달한다. 아기의 감각들, 만지고, 먹고, 냄새 맡고,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발달은 더 촉진 되고 빠르게 진행 된다. 뇌는 마치 새로운 정보 및 자극들과 더불어 놀라운 기술을 익히는 신난 곡예사와도 같다. 놀라운 사실은 아이가 얼마나 똑똑할지, 창의적일지, 상상력이 있을 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들은 아이가 한 살이 될 때 모두 형성된다는 것이다.

한 살의 아이는 이미 자신이 말하게 될 모국어를 만드는 모든 소리를 익히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늦게 배운 언어를 완벽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인데 우리 뇌에 제대로 된 선이 깔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영어권의 사람들이 프랑스어의 <r> 발음과 중국어 억양을 소리 낼 때 어려워하는 이유이며, 일본인들이 영어의 <r>을 소리내기 어려워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늦게는 12살이 되어야 다른 언어를 배우게 될 때 우리 누구나 겪게 되는 어려움이기도 하다. 읽기를 배우는 것은 곧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책에 담긴 “자연스런”언어를 (예를 들어, 좀 더 제대로 된 문법들은 이야기와 전통적인 “옛날 옛적에” 와 “행복하게 살았대요.”와 같은 구절에서 찾을 수 있다) 중요한 나이인 한 살 때 정립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아이들이 문맹이 되지 않도록 미

리 집중을 하는 것으로, 홍역과 소아마비에 걸리지 않게 집중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읽기를 배우는 것의 기본은 아이가 처음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 노래의 음과 박자, 리듬의 반복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생긴다.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거나, 노래를 불러주거나, 책을 읽어주지 않았던 아이들에게, 학교생활이 다른 아이들 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책을 읽는 것이 놀라운 기쁨이 되지 않고, 커다란 장애가 되었을 땐 더욱 그렇다.

☆

어릴 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면 아이들의 말하기 능력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한 아이들은 말하기를 배우지 못하며 배울 수도 없다. 아이들에게 말을 걸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심리학자들과 언어치료사들이 아이들이 세 살이 되기 전에 그들과 사랑, 웃음 그리고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라고 하는 이유도 이것이다. 이것은 또한 아이들의 IQ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해 줄수록 그들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는 시간이야말로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읽어 주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책속의 이야기, 그림, 단어, 가치, 생각들에 대해서 끝없이 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아이들의 두뇌를 영리하게 만든다. 이것은 아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집중 하며,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스스로를 더 쉽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능력들을 개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이들이 듣는 이야기들 안에는 익살스러운 문장, 새로운 문장 또한 미묘한 뜻을 가진 단어들도 있다.

오래지 않아 아이들은 글자의 모양과, 문장에서 단어들의 뜻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특정한 것이 그런 뜻을 갖게 되는 지를 이해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읽는 것을 배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 읽는 것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그들에게 수천 가지의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말은 전혀 이상지 않다. 수천 개

의 이야기라! 좀 많은 숫자이긴 하다. 하지만 계산 해보면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는 아니다. 하루에 세 개의 이야기를 읽어 주면 천 개는 일 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숫자이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 4~5년 동안에 얼마나 읽을 수 있을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충분히 가능하다!

하루 권장량인 세 권의 책의 이상적 조합은 좋아하는 책, 잘 알고 있는 책, 그리고 새 책이다. 하지만 똑같은 책을 세 번 읽어 주는 것도 괜찮다. 최근 손녀 딸에게 빠져 사는 친구와 커피를 마신 적이 있었다. 그날 아침 그의 두 살 난 손녀딸 나이에브(Niav)는 40분 동안 똑 같은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달라고 졸랐다. 이 한 번의 책 읽어 주기 시간을 통해 그들은 천 권의 권장도서 읽기의 길에 들어섰다.

☆

단어가 두뇌 속에 있는 생각의 연결을 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통한 수동적 방법이 아니라 책이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언어를 더 많이 경험 할수록 사회적, 교육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인생의 모든 일에 유익이 될 것이다. 반대로, 학교에 들어가기 전 남들보다 적은 양의 단어를 경험하고 배우고 사용할수록, 그 아이의 두뇌 발달은 저해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아이들이 배워야 할 충분한 양의 언어를 텔레비전이 공급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호주의 북 플레이스(Book Place)나 미국의 리딩 레인보우(Reading Rainbow) 와 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장점이 많은 건 사실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아이들에게 읽기의 가장 중요한 기본인 이야기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으로 우수하게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텔레비전이 아이들의 말하기 능력을 발전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교육방송이라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많은 양의 단어와는 상관없이 텔레비전은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며 다시 반응해 주지 않는데, 반응하는 것은 언어를 배우는 모든 것이다.

11개월 된 아들이 있는 내 친구는 아이가 어디서든, 언제든 혼자서 책을 볼 수 있도록 집안에 그림책들을 여기 저기 늘어놓았다. 물론 그녀가 아끼는 사인이 된 양장 표지의 책들은 다른데 잘 두었다. 내 친구가 “라이언 우리 특별한 책을 꺼내서 한 번 읽어 볼까?” 라고 말하면 아이는 기대를 갖고 너무나 좋아한다. 그는 거의 전율을 할 정도로 좋아한다. 그는 특별한 책을 꺼낸 다는 것이 엄마와 함께 책을 읽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책을 읽으며 책 속의 이런저런 것들을 이야기 하는 동안 엄마의 모든 관심이 아이에게 집중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라이언은 언어치료를 만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1개월의 라이언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을 터득했다.

수 힐 박사(Dr. Sue Hill)는 싸우스 오스트리아 대학(University of South Australia)의 유아기어린이 전문의 인데, 우리가 아이들과 우리 주변의 평범한 것들,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카탈로그, 시리얼 박스, 잡지 등을 아이들과 함께 읽고 그것에 대해 대화하는 동안에도 유대감이 생기고 아이들의 쓰고 읽을 수 있는 지적 능력이 개발 된다고 말한다. 물론 예를 들어 에릭 힐(Eric Hill)의 『스팟이 어디 있을까?』(Where's Spot?)처럼 간단하고, 호기심을 줄 수 있는 이런 책들은 아이들에게 더 재미있고 흥미로울 수 있다. 하지만 아이가 읽고 반응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글이던 상관없다.

우리 회사 편집장 앨런 존스톤(Allyn Johnston)의 아들 이먼(Eamon)은 엽서에 대해 이야기 할 기회가 있다. 일 때문에 여행이 잦은 앨런은 여행지의 엽서를 아들에게 보내준다. 이먼은 엽서가 도착하길 기다렸다가 아빠와 함께 읽는데, 이것이 엄마가 없는 동안 아이의 마음을 위로해 준다. 엽서는 대화의 주제가 되는 것이다. 이먼의 아빠는 엽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들은 그것에 대답 한다. 엽서를 통해서 이먼은 우리가 글을 읽는 이유를 배운다. 글을 보면서 읽는 것의 목적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진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다.

☆

아이들과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21세기에 산다는 것이 그저 바쁘게 사는 것 이상 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안다. 시간과 관계

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부모가—바쁜 아빠와 엄마를 말한다는 것을 강조한다—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는 이 시간은 가장 효과적인 구조 약품이 된다. 함께 책을 읽는 것은 아이가 부모의 사랑, 보살핌, 온전한 관심을 확인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이 시간은 부모에게도 다른 세상을 정리하고, 쉬며, 경이로울 정도로 아이와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또 들어나진 않지만 함께 책을 공유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포근한 점은 가족들만의 언어가 생긴다는 것이다. 클로에가 여섯 살이었을 때 함께 소풍을 간 적이 있었다. 아직 가져온 것들을 꺼내 놓지도 않았는데 딸아이는 우리가 ‘후식’으로 무엇을 먹을 것이냐고 물었다. 나는 아이에게 ‘후식’ 먹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당연히 먹어야 할 음식들이 있다고 말했다.

딸아이는 “흠, 사람은 스스로 절제를 해야 돼!” 라고 여섯 살짜리 특유의 골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말은 『곰돌이 푸』 (*Winnie-the-Pooh*)에 나오는 문장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구절은 우리가족 안에서 누구나 쓰는 하나의 표현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남편 말콤이 집안에 있는 초콜릿을 다 먹어 버린 다음에는 이 말을 했었다.

“사람은 스스로 절제를 잘해야 돼!” 라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듯 말했다.

우리는 책의 언어란 실로 뜨개질 되어 가족이란 천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 세 사람 외엔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뜻이 없을 지도 모른다. 이것은 우리를 연결 시켜 주는 우리들만의 은밀한 “함께함”의 코드였다.

☆

부모와 자식이 연결되지 않아 일어나는 혼란은 학교를 마친 후에도 오랫동안 아이들을 불안하게 한다. 아동심리학자 브루노 베텔하임(Bruno Bettelheim)은 훌륭한 『옛 이야기의 매력』 (*The Uses of Enchantment*) 에서 아이들은 그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직설적으로 말한다. 할아버지, 유모,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와는 상관없이 아이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다. 부모들은 짧으면 하루에 15

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함께 책을 읽고, 서로 대화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그 사랑을 보여 줄 수 있다.

클로에가 어른이 되었을 때 나는 딸아이에게 떨리는 마음으로, 딸이 어렸을 때 내가 두 개의 직장을 다니며 집안일을 하면서 그녀에게 신경을 써주지 않은 것 같다고 느꼈었는지 물어 본적이 있다. 그녀는 내 질문에 깜짝 놀랐다.

“제가 엄마 세상의 중심이지 않았어요?” 딸아이가 물었다

“너는 그렇게 느꼈니?” 내가 말했다.

“물론이죠. 난 엄마 세상의 중심 이었는걸요, 아니었어요?”

“물론, 물론, 당연히 그랬지,” 난 서둘러 답했다.

“무슨 말씀이 하시고 싶으신 건데요?”

“어, 암 것도 아냐.....”

어떻든,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던 딸아이의 어린 시절, 클로에는 자신이 내 삶의 중심 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지금도 사랑 받고 있지만 그녀는 정말로 사랑을 받았었다. 하지만 도대체 어디서 자신이 나와 말콤에게 있어서 우주에 있는 그 어떤 것 보다 더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배운 것일까?

대부분은 밤에 우리가 그녀에게 책을 읽어 주었을 때 느낀 것 이다. 그때만큼은 우리만의 공간에 있었고, 책에 대해 이야기 하고, 다른 이야기들과 비교하였다. 『곰돌이 푸』에 나오는 이요르(Eeyore)의 삶 속엔 부족했던 쾌활함을 안타까워하며 『피터래빗』(Peter Rabbit)에 나오는 “졸리는”(soporific) 같은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핑 이야기』(The Story about Ping)에서 마지막 새끼 오리가 엉덩이를 맞는 것에 놀라기도 하며, 우리는 부끄러운 것도 모른 채 책에 나온 인물들과 비슷한 주변 사람들에 대해 수다를 떨기도 했다. 궁지에 빠지고 결정을 해야 할 때 “삶의 위대한 문제”를 토론 하며, 기억들을 훑어보고, 옹고그른 것과 선하고 악한 것을 구분하였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 하며 대답하는 것이 끝난 후에 그녀는 깊이 잠이 들곤 했다. 잠자는 딸의 머리는 생각들이 가득했지만, 마음은 평온했으며, 두뇌는 책에 대한 흥미로운 생각들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Chapter 4

☆

위력

책을 읽어 주는 것의 위력이 위대해, 샌디에이고 길리스피 초등학교(Gillospie School)의 모린 필든(Moreen Fielden) 교장선생님은 금요일 마다 전 학생들에게 소리 내어 책을 읽어 준다. 책을 읽어 주는 것이 학생들에게 주는 대단한 교육적 장점들을 강하게 믿고 있는 그녀는 엄청난 행정업무량이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기 전까지는 학생들에게 매일 책을 읽어주곤 했다.

이것은 뉴햄프셔(New Hampshire)에 있는 무지한 한 교장선생님의 이야기와 큰 대조를 이룬다. 이 교장선생님은 교직원 평가를 위해서 한 교실에 들러 반 선생님의 수업을 참관하게 되었고, 선생님은 마침,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고 있었다.

교장선생님은 이렇게 속삭였다.

“선생님이 수업 할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

책을 읽어 주는 것이 가르침 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책을 읽어 주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도 역시 의심할 수 없다. 사랑받는 호주의 아동도서작가 콜린 티엘(Colin Thiele)은 호주의 남쪽에 있는 바로사 계곡(Barossa Valley)의 홍수가 나기 일췌인 지역에 위치해 있는, 선생님이 한 분 밖에 계시지 않던 학교에 다녔다. 홍수가 나서 학생들의 절반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날이면 선생님은 얼마 되지 않는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며 시간을 소비하는 대신 하루 종일 큰 소리로 책을 읽어 주었다. 홍수가 나는 날은 콜린에겐 마치 마법과도 같은 날이었다. 콜린은 그가 평생배운 것 보다 이런 날 우연히 읽고 쓰는 것에 대해 훨씬 더 많이 배웠다고 주장한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과 그 외 여러 권의 뛰어난 어린이와 어른을 위한 소설책의 저자인 영국작가 로알드 달(Roald Dahl) 또한 그의 기숙사 학교생활 기억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누군가 책을 읽어 주었을 때라고 말한다. 이것이 그가 정규 영어 수업시간에 배웠던 것 보다 그에게 글쓰기에 관한 것들을 훨씬 많이 가르쳐 주었다고 말한다. 기숙사의 여사감은 주말에 집을 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할 일을 주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토요일 아침마다 책을 소리 내어 읽어 주었다. 이렇게 그녀는 매주 두 시간의 매력적인 시간을 제공했고, 이런 황홀한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형성되었다

☆

내가 가르칠 때 앞으로 할 것을 알려줄 겸 종종 선생님이 될 학생들에게 어린이 소설책을 읽어 주며 그 해 첫 강의를 시작했었다. 학생들은 17세에서 45세까지 연령이 다양했지만 모두 내가 책을 읽어줄 때 그것에 푹 빠진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 수업에 들어오던 축구선수들도 그것을 좋아했다. 그들은 마치 조용한 쥐처럼 앉아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넋을 잃고 이야기에 빠져 들었다.

내가 자주 읽어 주었던 책 중 존가디너(John Gardner)의 『스톤폭스』 (*Stone Fox*)라는 책이 있었다. 그 책의 마지막을 향할 때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무시무시한 일이 생기는데, 교실에 있는 모두가 숨을 죽였다. 내가 책을 다 읽었을 때는 이야기의 결말이 너무나 충격적 이어서 교실에는 적막만이 흘렀다.

예전에 가르치던 학생들을 만나면 그들은 수업 중에 내가 소리 내어 책을 읽어 주었던 것과 그것이 얼마나 재미있었고 중요했던 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 다고 종종 말한다. 그 중 한 학생은 “교수님, 솔직히 말씀 드리면 혹시 교수님께서 저희 반을 지나가실 때, 제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지 않으면 들어오셔서 대신 수업을 하실 까봐 무서웠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

일리노이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조나스(Jonas)라는 어린 소년에 대해들은 적이 있다. 조나스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 교실에서 수업을 했는데, 이 아이들은 읽고 쓰는 것을 배우기 위해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많은 도움이 필요했다. 조나스의 선생님은 30년 동안 훌륭하게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큰 성과를 올린 분이었고 조나스는 선생님을 존경했다. 특히 선생님이 책 읽어 주는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하루에도 여러번 책을 읽어 주었다. 그녀는 이것이 아이들을 더 행복하고 영리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아이들이 지루해 할 때 책을 읽어 주는 것이 아이들은 차분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음도 깨달았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한 명씩 차례로 지루함을 떨치고 가까이 다가와 그녀 발아래에 앉아 책에 나오는 단어의 박자에 따라 차분해지고 책의 마법에 걸릴 때까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었다.

어느 날 한 아이 때문에 화가 난 조나스가 매우 난폭하게 반응을 했는데, 상대방의 팔을 연필로 찌르는 평소의 그 답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선생님은 그녀가 아이들에게 거의 내리지 않던, 조나스에게는 한 번도 쥐보지 않은 교장실로 가는 벌을 내렸다. 교장선생님은 조나스의 잘못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그의 행동에 맞는 벌을 주어야 했다.

“조나스, 넌 네가 어떤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선생님이 물었다.

조나스는 슬픔과 후회로 소리내어 울었다.

“네 생각에는 넌 어떤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물었다.

마침내, 조나스가 흐느끼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에게 책을 읽어 주지 않는 벌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일상적으로 읽어 주기

아이에게 소리 내어 책을 읽어 주는 것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때는 아이가 태어난 날 이다. 잠자기 전에 읽는 책 속의 경쾌한 리듬의 짜릿함을 느끼며, 떨리는 부모와 새로 태어난 아기의 지친 하루가 평온해 지고 그들의 유대감은 더욱 돈독해진다. 책을 읽는 것은 그들에게 "이야기 할 거리"를 준다. 또한 아기 들은 아주 놀랄 정도로 책을 좋아한다. 아기들은 밝은 그림을 보고, 말소리를 들으며, 자기를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옆에 있음을 느끼며 감응한다.

이웃에 사는 파울라(Paula)에겐 6개월 된 아기 모니카(Monica)가 있다. 내가 파울라에게 아기 모니카가 어떻게 지내냐고 묻자 그녀는 아기가 자기 책을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파울라가 날 놀리는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아기들과 책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그게 아니 예요, 정말 이에요!” 파울라가 말했다. “모니카가 정말 자기 책을 좋아한다니까요.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기 시작하면 애가 웃고, 팔을 흔들고, 이상한 소리도 내구, 희한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집중하는 모습까지 보인다고요. 자기 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농담하는 거 아니 구요.”

6개월! 나는 클로에가 10개월이 될 때까지 책을 읽어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빠르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해 버렸는가!



아이들에게 읽어 주는 책이 꼭 아동도서일 필요는 없다. 교사가 되려고 공부를 하던 한 학생은 계획하지 않게 아기를 갖게 되었고, 아기는 바쁜 학기 중에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당연히, 이로 인해 그녀가 책 읽는데 할애해야 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녀는 내가 학기 중 교과서로 지정해 놓은 논설들과 책을 아기에게 큰 소리로 읽어 주기로 결정했다. 어떤 책이든 상관없다. 엄마의 책 읽어주는 소리와 자신의 곁에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아이는 안심하고 잠이 든다.

☆

이 학생처럼 아기가 태어난 순간부터 큰 소리로 책을 읽어 주는 것은 여러 읽기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한다. 책을 소리 내어 읽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어떤 부모가 나에게 자신의 아이가 가만히 앉아 책을 읽지 못한다고 불만을 토한 적이 있다.

“애는 이야기 하나도 가만히 앉아서 다 듣지 못해요.” 그녀가 말했다. 아마도 이 엄마는 아들이 충분히 어릴 때부터 책을 소리 내어 읽어 주지 않았던 것 같다. 어린 시절부터 늘 누군가가 큰 소리로 책을 읽어 주었던 아이들은 경청하는 기술과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욕구를 더 빨리 갖는다. 이런 아이들은 책 속에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무한한 즐거움을 이해하고 집중은 하되 긴장하지 않는 능력을 개발하게 된다.

이야기 하나에 끝까지 집중하지 못하거나 혹은 왜 집중해야 하는지 모르는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책 한 권조차 읽지 못하게 된다. 특히 남자 아이들은 자주 안전부절 못하게 되고 몸부림을 치게 된다. 백 가지의 다른 것들에 정신을 팔리고, 종종 흐름을 깨며 돌아다니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책 읽어 주는 것은 시기가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내 친구는 손자 헌터(Hunter)에게 아주 어릴 때부터 책을 읽어 주었다. 헌터가 두 살이 되었을 때 밤마다 부모님이 들어와 책을 읽어 주기 전에 아이는 스스로 대여섯 권의 책을 읽는 집중력을 갖게 되었다. 책은 아이가 안전부절 못하거나 몸부림 치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게 할 정도로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

만약 생애 중 아기가 태어났을 때가 책을 읽어 줄 가장 적절한 시기라면, 하루 중엔 언제가 가장 좋은 시간일까? 할 수 있는 한 언제라도, 할 수 있는 한 자주 읽어 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우리는 아이들이 지루해 하거나, 불안해 할 때, 때를 쓸 때, 화를 낼 때, 주위가 산만할 때 읽어 줄 수 있는 선호도서가 있어야 한다. 책은 병원에서 기다리거나, 버스, 기차, 비행기 여행을 할 때, 미용실이나 치과, 회의, 친구 집에서 부모님을 기다릴 때 생기는 지루함을 날려버릴 수 있게 한다. 책은 아이들이 말다툼이나 큰 소리로 다툰 후 기분이 상해 있을 때 아이들을 차분하게 한다. 아이들이 아플 때 위로가 되기도 한다. 책은 아이들이 교회나 밖에서 외식을 할 때 혹은 친척이나 가족을 방문할 때와 같이 착하게 행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말썽을 일으키지 않게 한다.

물론 집에도 책이 있어야 한다. 우리 편집장은 아들 이먼(Eamon)과 낮에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데, 항상 아침에 침대에서 나오기 전 이먼에게 소리 내어 책을 읽어 주며 아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만든다. 그런 일상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없던 나는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거의 믿지 않았다. 클로에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아침마다 문을 나설 때까지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는 혼란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가정마다 일상생활이 다를 테고, 우리 가정에 맞는 방식이 다른 가정에는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우리에게 맞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한다는 것이다.

☆

소리 내어 책 읽어 주기는 언제 해도 상관없지만 매일 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같은 쿠션이나 베개, 같은 동물 인형, 같은 책과 더불어 마치 정해진 일과처럼 읽어주는 게 중요하다. 저명한 인류학자인 마가릿 미드(Margaret Mead)에 따르면 아이들은 예상 할 수 있는 삶이 주는 안전함을 감사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렇

기 때문에 ‘소리 내어 책 읽어 주기’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는 해도 아이가 자기 전에 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아이가 잠자리에 들기 전 책 읽어주는 것에 소홀해 지면, 그것은 전체적인 가족의 일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다른 것들이 더 절박한 일들처럼 보이기 시작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읽고 쓰기 능력과 소리 내어 책을 읽어 줄 때 생기는 정다운 상호작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너무 피곤하다는 것이 타당한 변명이 될 수 있을까? 물론 아니다. 소리 내어 책 읽어 주기를 하지 않았을 때 치르는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

아이들이 허락하는 한 오랫동안 책을 읽어 주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 내가 가르치던 한 대학교 강사는 그녀의 아이들이 침대 후반이었을 때 까지 아이들에게 소리 내어 책을 읽어 주었다고 한다. 그녀는 아이들 스스로는 관심을 갖지 않던 책과 시를 읽어 주었고 아이들은 그것을 사랑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사춘기 소년에게 하루에 언제쯤 책을 읽어 주는 것이 가장 좋을지 물어보면, 그런 시간은 없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이 틀릴 수도 있다. 내가 나이가 많은 아이들에게 자주 읽어주는 다니엘 페나크(Daniel Pennac)의 『삶, 그이상의 것』 (*Better than Life*) 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사춘기 아이들에게, 특별히 책 읽는 것과 아예 담을 쌓아버린 남자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품위 있고 호소력 있는 태도로 페나크는 어떻게 그의 학생들이 다시 책과 읽기를 사랑하도록 바뀌었는지 설명하고 있다. 그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소리 내어 읽는 것이다.



이렇게 읽어주라!

한 미국인 아버지가 한번은 나에게 이렇게 말 한 적이 있다. “그럼, 당신은 소리 내어 책을 읽어 줄 때 어떻게 하나요?” 그 질문은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너무 뻘한 것 아닌가? 하지만 만약 그가 전에 한 번도 아이에게 책을 읽어 준 적이 없다면 그것이 쉬운 일만은 아님을 깨달았다. 나는 “그러니깐. 책을 고르세요, 아이를 데려오셔서 앉히신 후에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면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간단하게 보여서 말하는 것 것조차 창피했다.

내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소리 내어 책 읽어 주기 시간을 묘사하자면, 어른은 크고 오래된 의자나 소파에 앉아 있고, 아이는 어른의 무릎에 앉아 있거나 그에게 가까이 안겨 있고, 책을 함께 읽거나, 또는 함께 침대에 누워서 아이는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야기가 시작 되면 아이가 이야기에 매료되어 눈을 크게 뜨는 것이다. 그리고 경험은 항상 환상적이다.

좀 더 다양한 표정으로 읽어 줄수록, 그 경험은 더 멋진 것이다. 경험이 멋진 수록 아이들은 책 읽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책 읽는 ‘흥내’를 더 많이 내게 된다. “흥내”를 더 많이 낼수록 아이들은 빨리 책 읽는 것을 배운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크게 읽어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소리 내어 잘 읽어 주어야 한다.

가능한 많은 감정을 넣어 읽어 주는 것 외에는 책 읽어 주는 것의 정석은 없다. 우리가 이야기를 읽어 줄 때 우리 몸의 모양, 눈, 그리고 눈의 표현력, 아이 또는 아이들과 시선을 마주치는 것, 우리 목소리의 다양성, 전반적인 우리 얼굴의 생동감등 이런저런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자기 나름대로 특별한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코알라 루』 (Koala Lou)의 앞부분을 읽을 때면, 내 목소리는 같은 음색과 같은 느린 노래로 위아래로 흔들거린다.

한 아기 코알라가 있었어요. 너무나 부드럽고 통통한 그녀를 보는 사람은 모두 그걸 사랑 했어요. 아기 코알라의 이름은 코-알라-루 였어요.

우리 목소리의 높낮이, 숨 쉬는 것,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이들 귀에 들리는 음악과도 같은데, 아이들은 음악을 좋아한다. 간단한 음색은 무엇인가를 기억하기 쉽게 해주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 마다 똑 같은 방법으로 읽어 주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앞에서 말했듯이 읽었던 책을 반복해서 읽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이들이 단어의 음색을 빨리 익힐수록, 더 많은 단어를 기억 하고, 우리가 사용했던 표현들을 그대로 따라 하며 아이들 스스로 책 읽는 재미를 느끼게 된다.

☆

물론 큰소리로 책 읽어 주는 방법에 정석은 없지만, 사실 이것은 눈과 목소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의 예술 형태이다. 여기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모든 이야기들을 더 재미있게 소리 내어 읽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보편적인 방법들이 있다.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 눈에 감동적 가치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최고의 자산인 시간을 낭비 하는 것이다. 러시아 연극의 뛰어난 연출가인 스타니 슬랍스키(Stanislavsk)는 눈은 영혼의 창이라고 말했다. 불행히도 우리가 책을 소리 내어 읽을 때 보통은 커튼이 이 창문을 가린다. 이야기가 입에서 나와야 하는 것처럼 눈에서도 나와야 한다. 눈으로 생동감을 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눈을 크게 뜨기도, 작게 뜨기도 하면서, 함께 '생각' 하고, '충격'과 '두려움'을 느끼고, '듣기'도 하며 '행복' 함을 느낀다.

다음은 목소리다. 목소리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은 우리가 감정을 지나치게 표현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 과장되게 읽어서 바보 같거나 창피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의 목적은 이야기가 흥미로워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큰 소리로 책을 읽어 줄 때 피해야 하는 목소리는 귀엽고, 아첨하

는듯하며, 오만한 목소리이다. 우리는 아이들을 목소리로 제압하지 하지 않으리라 단단히 마음먹어야 한다.

작가들은 우리에게 단어를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가 책에 나타난 그들의 의도를 성실하게 잘 이행해 주길 바라지, 그 반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숲 속에서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라는 부분에서 큰 소리를 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속삭임’ 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이것을 정확히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말해준다.

우리는 적어도 일곱 가지 목소리 버라이어티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중 여섯 가지 목소리 변화들은 서로 대비되는 크고 작음, 빠르고 느림, 높고 낮음이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구절 간의 쉬-어-가-기이다. 책 페이지 안에 있는 단어가 이 일곱 가지 중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 준다. 우리가 굳이 화술훈련을 받을 필요는 없다. 단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 역양에 대한 알기 쉬운 예들을 내 책에서 발췌한 아래 글에서 설명할 수 있다.

부드러운 목소리의 예인데, 『밤의 소음』(Night Noises)에 나오는 장면 중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90살 노인의 가족이 깜짝 파티를 준비하는 장면이다.

어디 멀리선가 차 문이 열렸고 살짝 닫혔습니다. 딸각 딸각... 발은 정원 길에서 까치발을 했습니다. 바스락 보스락...숲 속에선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사각사각, 중얼중얼, 쉬잇.

☆

『밤의 소음』에 나오는 알기 쉬운 큰 소리의 예다.

주먹들은 문은 쿵쿵 두드렸고 창문가에서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짹짹, 찰가닥찰가닥, 쿵, 쿵.

☆

느린 목소리는 책의 어두운 부분에 가장 잘 어울린다. 느린 목소리의 예를 『웬벳 디바인』 (*Wombat Divine*)에서 발췌했다. 이 장면은 연극광인 웬벳이 성탄절 연극 오디션을 봤지만 어떤 성과도 얻지 못한 부분이다.

남아 있는 역할이 하나도 없었어요.

웬벳은 고개를 숙이고 울지 않으려고 했어요.

☆

빠른 목소리는 말할 필요도 없이 급박한 내용이나, 내용상 신나고 극적인 부분에 적합하다. 이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산속 올림픽에 코알라 루가 선수로 나가는 장면인데, 그녀가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경기모습이다.

코알라 루는 나무로 경충 뛰어 올랐어요. 위로 더 위로 그리고 더 위로
그녀는 계속 나무를 올랐어요.

높이 더 높이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갔어요.

더 빨리 더 빨리 그리고 더 빨리, 저기 코알라 루가
나무 꼭대기에 도착 했어요.

관중들은 함성을 지르며 손뼉을 치고 발을 굴렀어요.

☆

높은 목소리는 빠른 목소리와 함께 신나고 극적인 부분에 적합하다. 『헤티와 여우』에서 검은 암탉이 숲 속에 있는 무서운 동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았을 때 그녀가 말 하는 장면이다.

“어머나! 코가 보이고, 두 눈이 보이고, 두 귀도 있고, 몸, 다리가 네 개
있고, 수풀에 꼬리가 있네!

여우다! 여우야!” 그리고는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재빨리 날아 올라갔어요.

☆

낮은 목소리는 이야기 중에 겁을 주는 부분이나 해적 또는 거인처럼 낮은 목소리가 필요한 부분에 아주 그만이다. 『할머니의 기억은 어디로 갔을까』(Wilfrid Gordon McDonald Partridge)에서 여섯 명의 나이 든 주인공들이 나올 때 서로 다른 인물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목소리를 바꿔 주어야 한다. 윌프리드(Wilfrid)가 나이 든 친구 중 ‘거인 같은 목소리를 갖은’ 드리스 데일씨(Mr. Drysdale)를 찾아가 기억이란 무엇인지 묻는 장면이다. 물론, 드리스데일은 굵은 목소리로 대답한다.

“그것은 황금처럼 귀중한 것 일세, 젊은이, 황금처럼 귀중한 것 이야”

☆

이야기 중간 중간에 잠시 멈추는 것은 극적인 분위기가 바뀌기 전 멋진 효과를 낼 수 있다. 물론 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잠시 멈출 때에도 숨을 쉬었다 읽어 주어야 한다. 여기 『해리엇, 말썹꾸러기』(Harriet, You'll Drive Me Wild!)에 나오는, 모든 것이 귀찮은 작은 해리엇에게 하루 종일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해리엇의 엄마는 그녀의 마음을 달래 준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은 해리엇과 그녀의 강아지가 실수로 베개를 찢으면서 찾아온다.

수천 개의 깃털이 사방에서 날라 다녀요.

[길게 쉬고] 정적이 흘렀어요.

[길게 쉬고] 그리고 해리엇의 엄마가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쉬고] 그녀는 크게 소리치고, 소리치고 또 소리쳤어요.

60년대 로즈 브루포드(Rose Bruford) 드라마 학교에서 나는 이야기 읽는 법과 들려주는 법을 로그 브루포드에게 직접 배웠는데, 그녀는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이야기 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차례로 두 명의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W.B. Yeats) 와 존 메이스필드(John Masefield) 에게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배웠으며, 이 둘은 이야기하기를 하나의 예술형태로 몹시 되살리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다.

뛰어난 숙련가들과 함께 일했던 브루포드 여사는, 본인이 이야기하던 책을 읽어 주든 상관없이 그 때마다 단어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사소한 것 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방법을 배웠다. 그녀는 단어를 사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단어 하나하나에 숨겨진 뜻을 찾아냄으로 마법의 세상을 만들어 냈다. 죽었던 문장이 살아나고,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문장이 페이지 에서 뛰어올랐다. 우리가 소리 내어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속의 단어들이 가진 미묘한 빛깔들이 대화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에게도 위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

비중 없어 보이는 단어의 중요함을 설명하기 위해 『졸린 곰』 (Sleepy Bears) 에 나오는 장면 중 뛰어 올랐어요 라는 말을 엉금엉금 기어갔어, 혹은 기어 올라 갔어요 로 바꿔본다.

작은 아기 곰은 푹신한 날개 침대로 뛰어 올라서 재빨리 이불을 끌어 당겼어요.

분명히, 뛰어 올랐어요 는 이 부분에서 단어가 갖고 있는 힘과 속도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우린 목소리로 마지못해 “기어가”거나 “기어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뛰어 올라”야 한다,

이와 비슷하게, 아래 인용된 코알라 루의 장면에 나오는 가득 찼어요 라는 단어는 이 단락 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단어이다.

그녀는 균중들 사이에서 엄마를 봤어요. 그리고 엄마가 “코알라 루, 나는 너 정말 사랑한다.” 라고 다시 말 해주는 상상을 했어요. 코알라 루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가득 찻다는 큰 의미가 없는 작고 평범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소리 내어 읽을 때 뜻을 최대한으로 살려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하지만 위의 예문에 나오는 가득 찻다는 말은 상당히 많은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들뜬 목소리로 단어를 색칠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과 다른 평범한 단어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여 맛을 더해 주어야 한다. 우리가 좋아하면 우리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좋아한다. 아이들이 자신들이 들은 단어들을 좋아하면 말이나 대화에 그 말을 즐거운 마음으로 사용하게 된다. 자신들 귀에 들리는 단어의 소리를 좋아하면 나중에 그 단어를 읽었을 때 더 잘 이해 할 수 있다. 이것이 소리 내어 책 읽기의 다른 장점이다. 이전에 종종 들은 적이 있는 익숙한 단어는 그렇지 않은 단어보다 훨씬 쉽게 읽을 수 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책을 읽을 때 잘 읽을 수 있는 쉬운 것 중 하나는, 소리 내어 읽고 있는 것을 마음속 진심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는 『주머니쥐의 깜짝 마술』 (*Possum Magic*) 에서 눈에 보이는 아주 새것인 꼬리를 볼 수 있어야 하며, 『깃털과 바보들』 (*Feathers and Fools*)에서는 피로 물든 고요함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해리엇』 (*Harriet*) 에서는 카펫 위에 쏟아진 페인트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읽는 매 책마다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발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코알라 루』 에 나오는 문장인 “그녀는.....역기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숨을 헐떡거렸어요.” 에서 들어 올렸다 는 단어는 단조로워서 평범하기 까지 하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장면을 보고, 읽을 때 우리 목소리로 들어 올리고 우리 머리까지도 올려서, 우리가 역기를 올린다는 마음이 들고, 눈에 보인다면, 그때야 비로소 들어 올리다 라는 단어가 우리 청중과 함께 진정으로 소통하게 된다.

☆

우리가 읽는 글의 첫줄은 감각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목적은 청중을 즉시 휘어잡아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 것이다. 『주머니쥐의 깜짝 마술』의 첫 시작인 “옛날 옛적에, 하지만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옛날에, 호주의 깊은 숲 속에 두 마리의 주머니쥐가 살았어요.....,” 조차도 “옛날 옛적에” 뒤에선 길게 쉬어주고, 재빨리 비밀스러운 표정으로 문장을 계속 읽어도 안전한지 둘러보는 모습을 보여 주고, 깊은 과 두 마리라는 단어를 강조하면 흥미로운 문장이 된다. 한 순간 살아 있는 문장이 된다.

글의 첫 줄은 생동감을 쫓는 우리의 청중들과 만나는 만남의 장이기도 하고 소리 내어 책 읽어 주기 의식을 여는 환영사와도 같다. 우리가 첫 줄을 생동감 있게 읽어 줄 때 그것이 바로 이야기 속의 단어들을 통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

그렇다면 마지막 문장은 어떨까? 글의 첫 줄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글의 마지막 줄이다. 원래의 목적대로 책 읽어 주기가 아이들을 매료시켰다면 글의 마지막 부분은 교회예배의 마지막 아멘 과도 유사해서 아이들에게 "지금은 헤어져야 해요, 조심해서 가요, 하나님이 축복이 함께 하길 바라요, 잘 지내요,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곧 또 만나요."와 같은 안도감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제대로 읽히지 않은 글의 마지막 부분은 훌륭한 이야기들을 비극적 실패로 이끄는 원인이 된다. 우리가 읽을 단어에 절대로 확신이 있어야지만 돌부리에 다리가 채여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 『깃털과 바보들』의 마지막 부분이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떠났어요, 평화롭고, 두렵지도 않았어요, 하루를 함께 맞이하고, 세상을 함께 나눌 거예요.

소리 내어 책 읽기 연수회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책을 읽는 시간에 위에 문장을 읽을 때마다 난 가장 마지막에 읽는데, 내가 그 줄을 충분히 천천히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문-장-을-끄-집-어-내-는 훈련은 항상 더디게 마련이지만, 우리가 천천히 말할수록 우리의 청중들은 더 만족한다.

마지막 문장이 분명한 마침과 작별을 한다면 우리는 정서적으로 많은 멋진 것들을 얻어 낼 수 있다. 우리가 마지막을 고할 때 우리의 청중들과 연결되었던 선을 푸는 것이다. 마지막 문장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면 듣는 이들은 완벽하지 않은 끝맺음에 뭔가 개운하지 않은 느낌을 받는다. 급하게 마무리를 짓는 것은 잘 못된 행동이다. 여유 있는 마지막은 맛있는 경험이 된다. 책을 읽어 주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 행복감에 폭 빠지게 되고, "행복하게 오래 오래 살았어요."에 가까워 질 것이다.

☆

선생님이 되려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쳐야 하는지 강의할 때 많은 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리 내어 책 읽기에 대한 강의는 전체 수업 중 아주 짧은 한 시간밖에 없었다.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학기가 끝날 무렵엔 학생들이 책을 소리 내서 얼마나 잘 읽는지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는 궁금해 졌다, '훈련을 조금밖에 못했는데?' 학생들은 내가 규칙적으로 자주해주던 소리 내어 읽기를 통해 배웠던 것이다. 단지 내가 보여주었던 소리 내어 책 읽기의 예가 그 비밀이었다. 학생들은 귀로 듣고 깨달았던 것이다.

표현력 있게 책을 읽는 것이 사람들의 기억에 책 읽어 주기이다. 아이들은 우리의 표현력 있는 억양을 똑같이 따라 하며 책을 읽게 되는데, 우리가 큰 소리로 책을 읽어 줄 때 생동감 있게 목소리를 다양하게 해서 읽어 주어야 하는 이유이다.

☆

물론 소리 내어 책을 읽을 때 어떻게 목소리를 흥미롭게 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이번 장(章)에서 나의 의도였지만, 글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다. 인터넷이 된다면 내 웹사이트에 접속해 내 강의를 직접 듣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다. 같은 웹사이트에 세 권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것도 올려놓았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memfox.net 이고 물론, "소리 내어 책 읽기" 항목에서 찾을 수 있다.





최대의 효과 거두기

책을 고르고, 아이를 데리고 함께 앉아서 책을 읽어 주는 이 자체만으로 아주 완벽하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잘 보여 준다.

하지만, 소리 내어 책 읽어 주는 시간을 더 풍부하게 하고 가치를 더해서 갈망하는 청취자들에게 더 재미있고 많은 이익을 주는 것도 가능한데, 책읽기를 이용한 놀이를 하면 된다. 아이들의 읽고 쓰기의 기초를 견고하게 다져주기 위해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이나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훈련이나 기술, 지겨운 문제집, 비싼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우리 자신이면 된다. 즐거움이 선생님이고, 미묘함이 열쇠이다.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학교식의 교육을 하려고 해선 절대 안 된다. 그들을 가르치려는 시도를 해선 안 된다. 부모가 학령전의 자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미취학아동들은 자신들의 엄마아빠가 선생님이 아닌 부모이기를 바란다. 이 둘의 역할은 꽤 다르며, 부모의 이러한 평온하고, 온화하고, 긴장감이 없고 안락함을 주는 역할이야말로 아이들이 책 읽는 것을 좋아하게하고, 스스로 읽게 도와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제 우리는 두뇌의 놀라운 예민함과 그것은 태어난 순간부터 자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리 내어 책을 읽어 주어야 할 책임감이 더 긴박하게 다가온다. 만약 우리가 너무 적은 양을 읽어 주어 아이들이 실망 하면 어떡하지? 만약 잘 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은 사기를 꺾는 것들이어서 결국 어떤 부모들, 특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나 맞벌이를 하는 부모들이 겁에 질려 도망가게 하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들의 마음이 낙담케 하기도 한다. 그리고 실망한 부모들은 "이미 스트레스로 가득한 내 삶에 다른 어떤 것도 더 할 수가 없어요. 아이

들에게 책을 읽어 주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 건가요?"라며 반발 할 수도 있다.

이런 이 세 살 때 우리 회사 편집장 앨린은 이 책의 초안을 읽고 있었는데, 확실히 그녀 안에서도 불안한 마음이 증가 되는 것이 느껴졌다.

"풍성하게 해주되 가르치지는 말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 이예요?" 그녀가 물었다. "그럼 책을 소리 내서 읽어 줄 땐 뭘 해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나는 말했다. "평소에 하던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깐 선생님 말씀은 만약 제가 구스와 루스에 운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전 '구스(*goose*) 와 루스(*loose*), 아들, 운율이야! 라고 하고 계속 읽는 편이 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건가요? 보통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바로 그 말이에요," 라고 난 말했다.

☆

우리는 부모로서 항상 긍정적이고 차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린 당황해선 안 되며 의식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평소 행동을 바꾼다는 말은 아니다. 물론 아직까지 책을 읽어 주지 않고 있다면 읽어 주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읽고 있는 당신이 당장 그렇게 하리라고 믿는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읽기와 놀이를 병행하여 아이들에게 행복한 기억과 재미 있는 학습을 만드는 것이다. 나는 새로운 놀이를 별다른 준비 없이 적당한 순간에 만들곤 했는데 클로에가 무언가를 말할 때 나는 그것을 받아주었다. 나는 모든 부모에게 재미를 위해 이런 방법을 권한다. 책으로 하는 놀이는 즉석으로, 별다른 준비 없이, 예상 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는 것이 좋은데, 그 순간에, 놀이는 그 아이만을 위한 특별한 것이 된다. 이것의 목적은 다른 누군가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사용된 예들은 그저 가능성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안내자의 역할일 뿐이지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한 처방전이 아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이자 동료인 린 윌킨슨(Lyn Wilkinson)이 어렸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소리 내어 책을 읽을 때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를 모두 계획해 놓곤 했다. 그는 전문 선생님이 아니었고, 본인 스스로도 읽기 학습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인정했을 것이다.

린은 책을 똑바로 들 수 있고 제대로 책 페이지를 넘길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그녀의 아버지는 일부러 책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부터 읽어가며 그녀를 놀렸다. 그러면 린은 “아니야, 아빠! 그렇게 읽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읽는 거야!” 라고 말하며 책의 가장 첫 페이지를 가리켰다.

가끔씩 그가 일부러 책을 거꾸로 들 때 린은 책을 제대로 들며 아빠는 바보냐는 듯 한 반응을 보였다. 그가 무엇인가를 가르친 것은 맞지만, 그것은 배우는 것이라고는 없고 놀이만 있는 가르침이었다.

책을 읽어 주면서 린의 아버지는 또 다른 실수를 하는 데, 『빨간 망토』(*Little Red Riding Hood*)를 “옛날 옛날에 아기돼지 세 마리가 살았어요.....” 같이 시작했다. 그러면 이미 두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린은 그림을 보고 이렇게 “아니야, 아빠, 봐봐봐.....이 책은 『빨간 망토』 이야기야, 돼지 3마리 이야기가 아니라고!” 라고 말했다. 린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림책에 있는 삽화가 글들과 조화를 이룬다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여기서 동화책에 나오는 삽화의 중요성을 집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무시해선 안 된다. 그림은 수천 개의 단어를 말하고 이야기 흐름의 비밀을 풀기도 한다. 어떤 책 읽어 주기 강연에선 책을 하나도 읽지 않는 대신 삽화에 대해서 이야기 하거나, 그 안에 들어 있는 것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아이가 어릴수록 함께 그림에 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대부분의 경우 아이들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한다.

☆

린의 사례에서도 본 것처럼, 소리 내어 읽기의 경험을 풍부하게 한다는 것이 가르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우리는 함께 놀고 좋은 시간을 갖는 것이다. 아이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절대로 금물이다. 우리는 우리의 부

주의한 입술에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바보 같이 굴지 마!” 와 같은 말들이 흘러나오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긴장되고 불안한 마음이 소리가 되어 읽기의 공식을 방해해선 안 된다. 재미를 잃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뜻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많은 놀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내 단편 책 『힘센 해적 보리스』 (*Tough Boris*)를 실었다. 이것은 원문 전체 내용이다.

옛날 옛날에, 보리스 본 더 보취(*Boris von der Borch*)라는 이름의 해적이 살았어요.

그는 힘이 셨어요.

모든 해적은 힘이 셨지요.

그는 아주 덩치가 컸어요.

모든 해적은 덩치가 크지요.

그는 피죄죄했어요.

모든 해적은 피죄죄하지요.

그는 욕심이 많았어요.

모든 해적은 욕심이 많지요.

그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모든 해적은 두려움이 없지요.

그는 무서웠어요.

모든 해적은 무섭지요.

하지만 그의 앵무새가 죽었을 때, 그는 울고 또 울었어요.

모든 해적은 울지요.

그리고 나도 울지요.

모든 책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른 놀이로 할 수 있는 것이 읽고, 다시 읽고, 다시 한 번 읽고, 그리고 다시 또 다시 읽는 것이다. 좋아하는 책 이라면 너무 자주 소리 내어 읽지 못 한다. 반복되는 부분이 나올 때 어린 청중들이 그것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책이 있다면 더 좋은데, 아이들이 우리 목소리가 단어들을

지나갈 때 눈으로 따라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장 아래 굳이 손을 갔다 댈 필요는 없다. 다시 그리고 또 다시, 아이들은 책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들, 같은 모양의 글자로 되어 있고, 같은 구두점, 같은 이탤릭체, 같은 대문자, 같은 두꺼운 글씨체로 쓰였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글씨를 눈으로 더 자세히 보게끔 권장하기 위해, 여기 단-어-를-봐-봐-요 라는 놀이가 있다. 처음에는 부모가 시작 한다.

부모는 힘이 쉰 이라고 쓰여 있는 단어 두 개를 가리키며 소리친다.

“어, 여기 이 단어는 저기 저 단어랑 똑같다. 둘 다 힘이 쉰 이라고 말하는데. 놀랍다! 모든 페이지마다 단어들, 반복 되는 게 틀림없어.

정말 그럴까? 이렇게 멋질 수가!”

한 장을 넘긴다.

“맞아, 여기 이거 덩치가 크더라고 써진 거야. 그리고 봐봐! 여기도 같은 단어들, 우람하다 또 있네! 이쪽에는 뭐가 있을지 궁금한걸.....”

아이에게 피 를 보여준다.

“어머, 네가 맞았어! 피피피하다야! 멋진 걸!”

그런 식으로 계속한다. 이것은 놀이로 남아야 한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단어를 찾지 못한다면 대신 찾아주고, 마치 아이들이 찾은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아이들을 꼭 안아 주어야 한다. 긴장감은 없어야 한다. 긴장해서 관계가 불편해 지면 우리가 얻었던 것들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만다.

조금씩, 며칠 밤을 현장에서 즉석으로 이런 우스꽝스러운 놀이를 만들어 함께 하면, 아이들은 힘이 세다, 우람하다, 욕심이 많다, 피피피하다, 무섭다 등과 같이 이야기 속에서 보리스를 묘사하는 말들을 구별 할 수 있게 된다.

☆

우리가 아이들과 책에 관련된 놀이를 할 때는 항상, 아이들을 즐겁게 할 수 있고,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진짜 이야기와 아이들이 여러 번 읽어서 이미 익숙한

이야기로 시작을 한다. 놀이를 계속 진행하면, 아이는 각각의 단어를 찾을 수 있게 되고, 그것들을 소리 내어 읽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힘센 보리스』를 다시 읽은 후에 우린 “너 혹시 그거 아니? 내 생각엔 그 책 매 페이지마다 그는 ~ 어요 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 봐봐, 여기 이 페이지에도 있네. 그리고 여기에도 이 페이지에도 있네. 혹시 다른 페이지에도 있을지 궁금한데? 그 글자는 ㄱ으로 시작해, 여기 이것처럼 [ㄱ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다른 글자들도 있단다. 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걸 찾을 수 있을까? 아님, 결국 모든 페이지에 그 글자들이 있지 않을까? 내가 틀릴 수도 있어.”라고 말할 수 있다. 아이는 그것들을 찾아 낼 것이다. **똑똑한 아이**라고 우린 맘속으로 생각할 것이다.

“얼마나 재미있니!” 우리가 크게 말한다.

우리는 페이지 마다 있는 <그리고>, <그>와 <왜냐하면> 같이 공통된 단어들 을 찾아 볼 수도 있는데, 아이들에게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그들은 이러한 단어들 을 기억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즐거움 안에 있는 시끄러운 놀이이다.

그 다음, 우리는 아이들이 더 나아가 하나하나의 글자를 읽고 소리 낼 수 있게끔 하는 놀이를 진행 할 수 있다.

☆

이쯤 되었으니, 난 우리가 유쾌하게 가고 있는 읽기의 방향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이 중요한 시점에 잠시 주제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단어, 글자 하나하나, 글자의 소리 순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찌면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다. 인기 있는 견해는 이것과는 반대로, 아이들에게 파닉스 (Phonics)를¹⁾ 이용한 접근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다. 파닉스라는 것은 단어들과 합성어의 바른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한다. 물론 나름의 논리로, 대부분의 부모들이 처음에는 글자로, 단어로 그리고 이야기 순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가정하지만, 아이들이 읽는 것을 쉽고 행복하게 배우는 방법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야기-단어-글자 순의 방법이 훨씬 효율적 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파닉스가 글을 읽는 것을 배우는 하나의 요소이긴 하지만, 읽는 것을 배울 때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글자와 파닉스를 먼저 시작하는 방법보다 더 나은

1) Phonics: 발음 중심의 어학 교수법 (역자 주)

결과를 가져온다.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방법은 본질적인 태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멋진 이야기를 통해 끝없는 즐거움을 경험한 아이들은 읽는 것을 배우는 것에 즐거운 태도를 보인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읽기전쟁에서(읽기를 가르치는 가장 최선의 길에 대해서로 사납게 논쟁 하는 것), 몇몇의 교육자들은 자신들이 파닉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다. 파닉스를 아는 것은 어떻게 읽는 지를 배우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읽는 것을 가르칠 때 파닉스로 시작하거나, 혹은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거기에만 중점을 둘 때에만 문제가 된다.

☆

이 까다로운 사항이 정리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글자-하나하나-읽기놀이로 넘어 갈 수 있다. 아이들은 알파벳 글자의 이름들을 보통 생애 초반에 알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아이들이 ABC노래는 알아도 글자 하나하나가 활자로 되어있으면 무엇인지 인식 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학업도 시작하기 전에 알파벳의 글자 하나하나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아는 것은 읽는 사람으로서 미래에 있을 성공의 예측이다.

아이들은 인쇄된 글자를 하나하나 인식하는 것을 어떻게 배울까?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조금은 바보스럽기는 하지만 자발적인 놀이를 통해 예를 들어, 아이들이 특정한 페이지에 있는 특정한 단어를 찾을 수 있는지를 알아 볼 수 있다. 우리는 “그게 e 라는 글자야. 이 페이지에 있는 e를 다 찾아볼 수 있겠니?” 그리고 나서 내가 페이지를 정하면 내가 그 페이지에 있는 e를 다 찾을게, 그러면 누가 더 많은 e를 찾았는지 알 수 있겠지?” 라고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예를 들어 『힘센 보리스』에서, 이름이 멤(Mem)인 아이가 가능한 많은 m이 들어간 단어의 예를 찾고, 부모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이것도 재미있을 수 있다. 아빠의 이름이 톰(Tom)이라고 가정해보자. 책에서 글자 t를 보면 마치 엄청 놀라운 하루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면서 먼저 놀이를 시작 할 수 있다. “우와, 봐봐. 저거 t야. 내 이름에 t가 들어 있는데. 너를 위해서 m 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봐보자. 여기 있다. 아싸! 여기 또 있어! 아자!” 2)

내가 글자를 갖고 놀 때면, 거의 언제나 그것들을 A,B,C 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o, h, c(uh, buh, cuh), 라고 읽지 않는다. 많은 글자들이 하나보다 많은 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글자 *a*는 항상 *apple* 에서처럼 소리가 나지는 않는다. 튜바
 (*Tuba*), 테라스(*terrace*), 채트(*chat*), 바미(*balmy*), 에이크(*ache*), 그리고 헤얼
 (*hare*)과 같이 다른 단어에서 다른 소리를 갖고 있다. 그리고 단어 *cat* 안에 있
 는 글자 *c*도 그레이스(*gracious*)에 있는 *c*와 다르고 또 *ch* 소리가 나는 칠취
 (*church*) 의 *c*와도 다른데, 이 *ch*는 에코(*echo*)에 있는 *ch*와 또 다른 소리를 낸
 다. 다양한 글자와 그것들의 혼합어는 수백 가지의 헛갈리는 다른 소리를 갖고
 있지만 글자들의 이름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글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안전하다.

물론 아이들이 알파벳에 있는 글자들의 기본적인 소리를 구분 할 수 있는 것
 은 중요하다.

이것은 뉴 싸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 와 같이 발음이 어려운 단어가 아
 닌, 홉온팝(Hop on Pop) 이나 두넛런!(Do not Run!) 같이 소리 내는 것이 간단
 한 단어들을 통해 쉽게 익힐 수 있다.

글자를 소리로 바꾸는 탐험을 할 수 있는 놀이로 냉장고 자석을 이용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알파벳을 갖고 놀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글자는 아이
 들이 자신들의 이름이나 *mom* 이나 *dad* 처럼 간단한 단어들을 만들 수 있도록
 날마다 바뀔 수 있다.

우리는 또 *can* 과 같은 단어를 시작으로 새로운 낱말을 만들기 위해 한번에
 (하루에? 일분예? 무슨 상관이겠는가?) 단어 하나씩 바꾸는 놀이도 할 수 있다.

- n을 빼고 t를 넣은 후, 이얏! 켓(cat) 나왔다!
- c를 빼고 r을 넣은 후, 이얏! 췌트(rat) 나왔다!
- a를 빼고 u를 넣은 후, 이얏! 룯(rut) 나왔다!
- t를 빼고 b를 넣은 후, 이얏! 뵘(rub) 나왔다..... 이렇게 계속 진행한다.

2) 이 놀이는 영어 원문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놀이이다 (역자 주)

아이 스스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 위해 글자를 바꾸면, 그건 더 재미있을 수 있다.

☆

기대했던 것만큼 냉장고 자석을 통해 빠른 도움을 받지 못한 한 엄마가 있었는데 그녀는 실망하지 않았다. 그녀와 나는 은행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읽고 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외엔 뭐가 있겠는가!), 그녀는 자기 딸이 얼마나 빨리 글자를 배웠는지에 대해 말했다. 그녀의 딸은 두 살 반이되기도 전에 냉장고 자석으로 자기 이름을 만들 수 있었다. 그 후에 이 자랑스러운 엄마에게 아들이 생겼다. 원통하게도, 그는 책, 단어, 글자에 아예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가 세 살 되던 어느 날 갑자기 그는 냉장고 자석에 뜻밖의 강렬한 흥미를 보였다. 그는 냉동고 문을 열고 자석을 마치 농구 하듯 그 안에 던졌다. 하지만 아이 엄마는 참견하지 않기 위해 자석을 그대로 놔두었고, 이따금씩 냉동된 자석을 얼음에서 때내야 할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타일러야, 여기 너의 냉동 e 가 있네! 봐, 여기 냉동 j가 있어, 어때, 놀랐지?”

계속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타일러가 그녀의 팔을 잡아끌며 말했다. “엄마, 내가 뭘 했는지 한번 봐봐. 내가 내 이름을 썼어!” 냉동고에서 구조된 냉장고 자석들이 한 줄로 별로 이렇다 할 순서도 없이 배열되어 있었다. 타일러의 머리가 마침내 뭔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제대로 된 단어를 만들 수는 없었지만, 글자가 단어를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고 읽기의 길로 향하고 있었다.

☆

아이들이 글자의 소리를 배울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은, 그것이 낙서일 지라도, 아이들에게 글자를 쓰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다. 놀랍겠지만, 쓰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이들 스스로 읽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글씨를 쓰게 하거나 시도를 하게 해서, 글자와 소리의 관계를 알아내면, 아이들은 글자의 소리와 자신들에게 필요한 글자의 합성어들을 금방 배운다. 아이들이 처음엔 많은 질문을 하고, 많은 도움이 필요지만, 먼저 아이들 스스로 머리를 사용해보라고 용기를 준다면, 아이들은 적극적이고 빠르게 배우게 될 것이다. 아이들은 쓰는 것을 좋아한다.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들이 쓸 줄 안다고 생각 하는 반면 흥미롭게도 읽을지는 모른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글씨를 쓸 수 있도록 주변에 항상 재생지, 작은 공책, 정육점 종이, 심지어는 신문 같은 것들을 쌓아두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두꺼운 크레파스, 얇은 크레파스, 연필, 색연필, 그리고 혹시 우리가 모험가라서 가구에 어떤 일이 생겨도 상관없다면 사인펜이나 볼펜과 같은 갖가지 필기 용구도 도움이 된다.

아이들이 글을 쓸 때, 어떤 글자들의 소리를 내기도 하고, 이름을 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home 이라는 단어를 쓸 때, h와 m은 소리를 내고 o는 이름을 말해서 비록 자신이 hom 이라고 쓸지언정 home 이라는 단어와 소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아이들은 받은 소리를 내고 받은 글자의 이름을 대는데 집중을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한다. “ㅎ(huh),오(oh), ㅁ (muh)…홈(home).”

(이렇게 발명된 철자는 아이들이 글자의 소리를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며, 어린 학습자들에게 넓게 장려되어야 하지만, 단호하게 나이든 어린이에게는 권장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빠르거나 늦어도 8살이 되면, 철자를 바르게 하는 이유가 단지 사회가 말하는 필수이기 때문만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아이들은 바른 철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메시지를 아무 탈없이 무사히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

단어를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자신감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아이들이 아주 멋진 이야기를 맛보고, 하나의 단어가 각각의 독립된 문자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물론 그 전에 부모들이 그들에게 여러 번 읽어 주었던 터라 빠른 시간 안에 단어와, 문장들을 스스로 "읽게 된

다."

반복적인 책으로 이것은 한결 쉬어질 수 있으며 성공적으로 책을 읽게 된 아이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은 높아진다. 예를 들면 우리는 『힘센 해적 보리스』를 예문과 과 과 같이 읽을 수 있다.

부모: 그는 힘이 셨어요.

아이: 모든 해적은 힘이 셨지요.

부모: 몸이 거대했어요.

아이: 모든 해적은 몸이 거대 하지요...[계속 이어짐]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책을 읽을 수 없으니 아이에게 『힘센 해적 보리스』 외워서 "읽어 달라고" 부탁하면, 아이들은 실수를 해가면서 스스로 읽게 된다. 그러면 아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정말로 읽고 있는 것 마냥 우리처럼 자연스럽게, 우리와 똑같은 소리와 방법으로 단어를 읽는다.

아이들이 어떤 책을 꽤 여러 번 들어서 그것을 외웠을 때 자신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부려 우리를 속이려 할 때가 있는데—적당한 순간에 책장을 넘기고, 그 페이지에 있는 단어들을 제대로 말한다—그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흠, 물론 애들이 책을 외웠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거야."라고 말해서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

적절한 순간에 책장을 넘기고 페이지에 있는 단어를 정확히 소리 내는 것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놀랄만한 성공이며, 그것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이것은 아이들이 진짜로 책을 읽는 단계로 향하는 거대한 걸음이다. 실제로 책을 외워서 읽는 아이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정확하게 책을 읽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에게 "좋아, 난 지금 이 이야기기가 어떤 내용인지 어떤 단어가 들어있는지 잘 알고 있어. 그럼 이제 책을 보고 어떤 단어가 어떤 소리를 내는 건지 한번 알아봐야겠어. 이 글자는 *인비저블(invisible)* 이라는 단어가 확실해, 이것 봐 *인(in)*으로 시작하잖아, 이제는 읽을 수 있겠는데. 아주 쉬운걸!"이라고 말한다.

클로에가 여섯 살 일 때 해외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께 보내드리려고 토미 용

게리(Tomi Ungerer)의 『라신느의 동물』 (*Beast of Monsieur Racine*) 을 읽고 녹음한 테이프가 있다. 이 책은 놀랄 만큼 엉뚱하고 장난스러운 그림책인데, 아이들이 유창하게 읽어나가기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맛깔스러운 단어들로 가득하다. 하지만 책을 거의 다 외우고 있던 클로에는 그 책으로 녹음을 하겠다고 했다. 딸아이는 프롤릭드(frolicked)을 frockled로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Academy of Science)를 akdamee of sinuses로 읽긴 했다. (우리 가족은 지금도 frockled라고 말한다—chapter 3에서 말한 "함께 공유함"의 암호이다.) 하지만 어려운 단어를 읽을 때 있었던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클레이는 놀라울 정도로 유창하게 책을 읽었다.

후에, 내가 읽기와 쓰기 상담가가 되었을 때 이 테이프를 듣게 되었는데 새로운 것을 깨달은 난 테이프를 멈춰야 했다. 당시 클레이의 책 읽는 것은 내가 아닌 말콤(Malcom)이 녹음을 했다. 그는 읽기-가르치기-의 정론에 대해선 아무 것도 몰랐다. 클레이가 책을 읽는 동안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말콤은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그 단어를 말해 주었고, 덕분에 딸아이는 빠른 속도로 책을 읽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무지한' 말콤을 제외한 많은 선생님들과 나를 포함한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소리를 내보게 하거나 책의 앞이나 뒤로 가서 그 단어가 무엇인지 생각해내게끔 한다. 하지만 말콤은 클로에에게 모르는 단어의 소리를 내도록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읽고 있는 단어를 정확히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야기에 흥미를 잃지 않을 수 있었고 자신이 글을 읽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이야기가 더 진행될수록 딸아이에게 남편이 가르쳐 주는 단어의 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클로에는 책을 빠르게 읽어 나가며 읽은 부분을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었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까지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여느 독자들처럼 글자도 사용했다.

어떤 책을 읽든지 상관없이 클로에가 단어의 소리를 만들어가며 읽는 일은 드물었는데 우리가 클로에에게 지속적으로 책을 읽어 주던 습관 덕분이었다. 그녀는 이야기에 대한 기억력과 기본적인 활자에 대한 이해력 그리고 이야기 언어들에 동원해서 뜻을 이해했다. 나는 복잡한 단어 외엔 딸아이가 단어의 소리를 만들어서 읽는 것을 들은 기억이 없다. 클로에는 책을 읽는 도중에 멈추거나, 되

돌아가거나, 단어의 소리를 내는 것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책 읽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그녀에게 읽기는 지루한 것이 아닌 재미난 일이었다.

모든 아이가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닌가?



☆

증거

몇 해 전 한 국영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후 길에서 어떤 여성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선생님, 소리 내어 책 읽어 주는 분 맞죠? 그렇죠?" 그게 나인가? 내가 도대체 누가 된 걸까? 이 이름이 최악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그날 밤 멜버른에 사는 알랜 바틀렛(Allan Bartlett)이라는 한 아빠가 내 웹사이트에 올린 글을 읽었는데, 그도 나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알게 된 "소리 내어 책 읽어 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아내 도나(Donna)와 함께 당시에 21개월이던 아들 저스틴(Justin)에게 일상적으로 소리 내어 책을 읽어 주었고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고 있었다.

저스틴은 태어난 지 6일 만에 책을 접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기에게 젖을 주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보다는 흥미로운 일이었다. 시작 할 때부터 아이는 책과 그것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스틴은 책을 더 즐기기 시작했다. 3개월 때 그는 책을 어떻게 드는것이 바른지를 알았으며, 때맞춰 책장을 넘기며 페이지 마다 있는 잠깐 숨을 쉬는 부분에선 반응을 보였다. 생후 3개월 이었다!

얼마 후, 단어의 간단한 운율이나 움직이는 것들의 매력이 있는 책같이 저스틴이 좋아하는 책이 생겼다. 6개월이 되었을 때에는 책 표지에 있는 제목들을 가리키면서 그것들을 구분 할 수 있게 되었고 글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저스틴은 한 시간 동안 앉아서 20권의 조그만 책을 거뜬히 읽었다.

그는 곧 규칙적으로 두세 개의 단어를 함께 소리 낼 수 있게 되었다. 부모님이 책을 읽어 줄 때에 "혼자서 읽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들이 어떤 문장을 빼놓고 읽으면 그 문장을 얘기하려 하기도 했다. 저스틴은 사실상 책들을 다 외울 수 있었다.

21개월이 되었을 때 저스틴에게는 이미 500개가 넘는 단어가 들어 있는 이야기 단어장이 있었는데, 모두 저스틴이 읽은 책 덕분이라고 엄마는 말했다. 그리고 약 20개의 처음 보는 단어도 시역으로 읽을 수 있었다.

이런 놀라운 소식이 우리를 비교-와-절망의 우울함으로 내몰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대신 영감을 얻고, 자신감을 갖고, 위로를 받는 것을 택하도록 하자. 결국 저스틴의 이런 학습은 동시에 일어난 것이었다. 그의 부모는 그를 사랑해주고, 놀아주고, 책을 읽어 주고, 많은 책들을 안겨주고 즐길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 준 것 외에는 어떠한 특별한 것도 사용하지 않았다.

저스틴은 아주 평범한 아이이다. 당신의 아이이거나 혹은 나의 아이, 아니면 옆집에 있는 아이와 같은 평범한 아이이다.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다. 특별한 아이도 아니다. 하지만 부모의 복은 타고 났다고 봐야한다. 그에게 책을 읽어 주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이다.





읽기의 첫 번째 비밀: 활자의 마법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글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소리 내어 읽는 것은 조금 더 까다로운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는 것이 단순히 단어의 발음을 정확히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란다. 소리 내어 읽는 것은 페이지 안에 담겨진 기호를 이해하는 것이다. 읽는다는 것은 종이위에 쓰인 것이 무엇인가를 의미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그것은 메시지를 전달받는 것이다.

우리의가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나이가 몇인지 어떤 언어로 말하는지도 상관 없다-우리 모두에게 읽기의 비결이 들어있는 가방이 있는데 그 안에는 메시지를 받는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의 비밀이 들어있다.

첫 번째 비밀은 정말이지 비밀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종이위에 널려져 있는 수많은 작은 글자나 선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여기 ♯ ⊕ ⊞ ⊙ ⊕ ⊙ ⊙ ∩ ∠ ∆ ∨ θ ⊕ ⊙ ⊙ ⊙ α ≻ ★ 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어느 방향에서 본다하더라도 이 문자표의 뜻을 이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어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러시아어로 된 구약성서를 보던 히브리어로 된 디지털 카메라의 사용법을 보던 그 어떤 결과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종이위에 적혀있는 것이 뭐가 뭔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메시지를 받기 위해선 활자로 된 문자와 그들의 다양한 조합을 반드시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우리아이들이 무엇이든 읽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면-더 많이, 더 다양하게 혹은 더 어려운 것들을 읽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그들에게 가능한 많은 활자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수없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 심지어는 아기들에게도 소리 내어 책을 읽어 줌으로써 활자에 대해 알려 줄 수 있다 (특히, 아기들의 경우에 대해선 이전에도 종종 말했지만 앞으로도 이야기 할 것이다). 아이들을 책을 바라보며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을 볼 때, 그들은 활자와 그것의 뜻을 듣는다. 아이들이 활자로 된 단어를 더 많이 볼수록 *츠(tch)*, *스(sh)*, *쓰(th)*, *이트(ight)*와 같은 문자조합이나, 끝이 *션(tion)*으로 끝나는 낱말 같은 단어의 독특한 면을 더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단어의 이러한 독특함은 아이들의 눈에 익숙해지고 더 이상 낯설게 보이지 않게 된다. 아이들은 활자에서 메시지를 읽는다는 것이 단어전체의 모양, 대문자, 구두점, 굵은 글씨체, 이탤릭체, 제목, 목차,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을 인지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책만 활자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것은 도시와 시내 곳곳에 있으며, 놀랍게도 아이들이 읽기를 배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간판, 광고 게시판, 통지서, 포스터, 차량번호판과 같은 활자가 보일 때 마다 아이들과 함께 소리 내어 많이 읽을수록 좋다. 자동차, 기차와 버스 같은 교통수단에선 수백만 개의 활자를 찾아낼 수 있고, "누가 먼저 10분 안에 정지신호를 찾을 수 있을까?" 혹은 "누가 대문자 R을 먼저 찾을 수 있을까?"와 같은 즉석게임도 이동 중에 가능하다.

클로에가 두 살이 되었을 때 아이는 우리 동네에 있는 Shell, BP, Mobil, Ampol과 같은 가스충전소의 사인을 읽을 수 있었고, 길에서 가장 많이 보는 표지판에 쓰여 있는 정지, 조심, 상시 좌회전 같은 단어들을 읽을 수 있게 되었는데, 단지 자동차로 이동하는 동안 했던 글자 외치기 놀이로만으로도 그것이 가능했다.

내가 아는 또 다른 두 살짜리 아이는 버스 뒤에 붙어있는 커먼웰스 은행(Commonwealth Bank)의 광고를 자주 보았고, 결국은 엄마에게 뭐라고 쓰여 있는지 물어 보았다. 그 후에는 그 광고가 버스에 붙어 있는 것을 보기만 하면 큰 소리로 읽었다. 아이의 엄마는 처음엔 아이가 그저 은행의 비슷한 로고를 알아보는 것이 라고 생각했다. 하루는 남편이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마침 신문의 큰 표제로 커먼웰스의 관리수장들을 다루고 있었다. 아이가 커먼웰스라는 단어를 가

리키면서 "이건 커먼웰스라고 하는거야!"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은 두 살밖에 안된 아이가 *커먼웰스* 같은 어려운 단어를 읽을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아이는 분명히 정확히 그 단어를 읽었다.)

☆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은 책 읽기를 배우는 것에 있어 근시안 적인 생각으로 파닉스 접근방식은 격찬하지만, 나는 영어 단어의 절반만 음성으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준다.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걸까? 영어철자법의 괴팍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간혀있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파닉스의 최대 약점이기도 하다. 활자를 소리로 바꾼다고 항상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이스(*Nice*)라는 단어를 예로 들어보자. 발음을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누(*nuh*)-이(*ih*)-쿠(*kuh*)-에(*eh*) 라는 아주 이상한 소리로 일게 되고, 우리에게서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이 된다. 이때 만약 단어를 알아맞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발판이 주변에 있다면 *nice*라는 단어를 정확히 읽어내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는데, "슈가 앤 스파이스, 앤 올 썬스 나이스" (*Sugar and spice, and all things nice*) 와 같은 운율이 그런 것이다.

코프(cough), *이너프(enough)*, *붓트(bough)*, *쓰루(through)*와 *도우(though)*처럼 서로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발음을 갖고 있는 단어들을 접하게 되었을 때 파닉스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 줄 수 있을까? 물론 파닉스가 중요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이너프(enuff-충분)" 하지 않다. (물론, 소리 내어 책을 읽으려면 활자를 보고 소리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한다. 특히, 당연하긴 하지만, 글자 조합이 무엇이던지 그것이 처음 보는 어려운 단어라면 더욱 그렇다.)

만약 우리가 이탈리아사람이었다면, 파닉스가 지금보다는 더 유용했을 것이다. *띠 아모 카라(Ti amo, cara)*가 *아이 러브 유 달링(I love you, darling)* 을 정확히 소리 내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이유는, 어린아이들에게 *love*라는 단어를 러브(*luv*)라고 읽는 다는 것을 짐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읽기의 초보자들이

러브(love)라는 단어가 러비(lovvy)처럼 소리가 날거라고 예상하거나, 드로브(drove) 나 무브(move) 같은 단어와 운이 같을 것이라고 짐작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

모든 연령의 독자들이, 활자를 보고 소리를 읽을 수는 있지만 그것의 의미를 정확히 풀어내지 못해 이해하지 못 할 때가 있다. 물론 이런 경우 우리는 그것을 읽을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활자는 영어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와 같은 파닉스 적으로 쓰여 있지 않은 특정한 언어를 "읽는데" 도움을 준다. 발음이 꼬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언어의 글자를 보고 정확한 소리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읽기가 활자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 뜻을 이해하는 능력임을 스스로 계속 상기해야한다. 예를 들어 영어 사용자들은 인도네시아관 『하티와 여우』의 후렴구를 파닉스 상으론 쉽게 "읽을 수" 있다.

"아두, 아두!" 카타 양사. ("Aduh, aduh!" kata angsa.)

"야,야,야!" 카타 바비. ("Ya,ya,ya!" kata babi.)

"폐둘리 아파?" 카타 쿠다. ("Peduli apa?" kata kuda.)

"별칸?" 카타 쿠다. ("Birkan?" kata kuda.)

"아파 라기?" 카타 램부. (Apa lagi?" kata lembu.)

하지만 위의 글자들을 아무리 인도네시아어의 소리와 맞춘다 해도 이 하티 후렴구는 영어 사용자에게 의미파악을 위한 중요한 요소를 줄 수 없다. 우리의 발음이 얼마나 훌륭한지는 상관없이, 읽고 있는 활자의 어떤 의미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인도네시아 언어인 것이다.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 활자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것이 우리가 읽기의 그 두 번째 비밀을 알아야 하는 이유이다.



읽기의 두 번째 비밀: 언어의 마법

*Si on veut lire une langue, il faut d'abord comprendre la langue*는 프랑스어로, 만약 한 언어를 읽고 싶다면 먼저 그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우리가 언어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영어가 어떻게 언어로 움직이는지를 더 알수록-또 언어의 더 많은 것을 알수록, 읽는 것은 더 쉬어진다.

우리가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어들이 잘 연결되어 문장들을 만든다는 것과 이런 단어와 문장들이 책, 문단, 문장과 같은 것에서부터 쇼핑목록, 밸런타인데이 카드, 잡지, 광고, 스포츠란, 웹사이트로 전환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글을 잘 읽을 수 없다.

만약 우리아이들이 무엇이든지 읽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면-더 많이, 더 다양하게 혹은 더 어려운 것들을 읽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그들에게 가능한 언어의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해야될 수 없을 만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언어의 경험을 그들과의 수다를 통해서 늘릴 수 있으며, 그들이 우리와 동등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우는 아기를 달래 주는 것도 대화가 될 수 있다. 아이의 나이가 어떻게 되든,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하던, 바나나를 사면서 하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살고 있는 지에 대해 아이와 이야기 할 수 있다. 이제 곧 끝날 축구시즌의 예측 점수에 대해서 말 할 수도 있고, 결혼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논할 수도 있고, 세계화의 불공평함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 할 수도 있다. 아니면 노래를 할 수도 있다.

노래와 시는 아이들이 어릴 때 편안한 리듬감을 느끼게 해주고 언어의 눈부

신 형태를 접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어머니 심장 박동의 자연적인 연장이며 안전한 팔에 안겨있거나 요람에 누워있는 아기를 리듬감 있게 흔들어 주는 것과 같다. 우리는 노래와시를 읽어 주거나, 연주해 주고 혹은, 아이들이 잠을 자거나 짜증을 낼 때면 언제라도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 줄 수 있다. 아이가 깨어 있거나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도 얘기하고 배우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아이들은 책에서 보게 될 단어, 문장, 리듬, 운율, 반복 등을 노래를 통해서 먼저 배운다. 배드(*bed*)와 프레드(*Fred*)라는 두 단어가 서로 운이 맞는 것을 인식 하지 못하는 아이들은—그런 아이들이 꽤 된다—읽는 것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느끼지만, 운을 맞출 수 있는 아이들은 더 흥미를 갖고 자신들이 읽고 있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정확히 유추해 낼 수 있다.

예를들어본다면, 운율과 익숙한 아이는 "메리 헤드 어 리틀 램" (*Mary Had a Little Lamb*)의 마지막에 나오는 *go*(*go*)가 그 전에 나온 *snow*(*snow*)와 운이 맞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다.

메리에겐 새끼 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양의 털은 눈처럼 새하였어요,
메리가 가는 곳은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있었어요.

Mary had a little lamb
Its fleece was white as *snow*,
And everywhere that Mary went,
The lamb was sure to *go*.

운율은 아는 아이들이 책을 읽는 아이들이 된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진리다. 읽기와 쓰기 그리고 아동발달 분야의 전문가들은 네 살 때까지 여덟 개의 동요를 외울 만큼 잘 알고 있는 아이들이 여덟 살이 되었을 때에는 훌륭한 독서가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클로에가 어렸을 때 나는 노래와 운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했지만, 우연히도 매일 밤 아이가 잠이 들 때 노래나 자장가, 찬송가 그

리고 동요를 불러주곤 했다. 모든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르지는 않아도, 많은 훌륭한 도움이 된다. 어쨌든 다른 누가 우리 노래를 듣겠는가? 우릴 사랑하는 아이들만 들을 테니 상관없다.

☆

아이들의 머릿속에 노래와 운율을 넣어주는 것의 중요성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 이것을 달성하기 쉬운 목표라 생각 하겠지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기본적인 동요도 모른 채 학교에 오는지 안다면 놀람과 슬픔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몇 해 전 나는 어린 학교학생들과 어린 시절의 읽기와 쓰기를 위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점점 따분해 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실수나 기술적 문제들로 한 장면을 두세 번 촬영해야 했다. 나는 여섯 살 난 한 여자아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이 얼마나 지루한지에 대해 서로 위안을 해주며, 시간을 때우기 위해 동요의 운율 맞추기를 하자고 내가 먼저 제안했다.

"좋아요," 라고 아이는 즐거워하며 대답했다.

"험프티 덤프티"(Humpty Dumpty), 내가 먼저 운을 띄웠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알지 못했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 하긴 했지만—함께 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메리 헤드 어 리틀 램"(Mary Had a Little Lamb)을 했지만 그것 역시 알지 못했다. "Jack and Jill"(잭과 질), "히커리, 디커리, 닥"(Hickory, Dickory, Dock) 그리고 "바바 블랙 쉘"(Baa, Baa, Black Sheep) 같은 것들을 말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다.

"이젠 네가 할 차례야." "난 너무 피곤하니깐 네가 하나 해 볼래?"라고 나는 말했다.

아이는 하지 못했다. 여섯 살이 되도록 아이는 아는 동요가 하나도 없었다! 그 아이의 미래가 암담하게 느껴졌고, 당황하지 않는다는 나의 규칙을 깨고 나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정신을 차리고, 안정을 되찾은 후 『세 마리 눈먼 쥐』 (*Three Blind Mice*)를 아이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아이가 깔깔거리며 좋아하긴 했지만, 운율을 만들어 본 적이 없던 터라 가르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노래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시를 읽어 본 일도 역시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노래와 전래동요 다음 시를 접하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이다. 누구도 오그덴 내시(Ogden Nash)의 『용 커스타드』 (*Custard the Dragon*), 알버트 노이스(Albert Noyes)의 『노상강도』 (*The Highwayman*) 그리고 로버트 브라우닝(Robert Browning)의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람』 (*The Pied Piper of Hamelin*) 과 같이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책을 싫어 하지 않는다. 위의 이야기들은 루이스 어터마이어 고전 (Louis Untermeyer classic) 인 『골든북스 가족보물 시집』 "The Golden Books Family Treasury of Poetry"에 실려 있으며,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출판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아이들이 시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단지, 고등학교 시절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시들을 이해해야만 했던 어른들의 빼놓아진 생각으로 시를 바라보기 때문에 시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은 것뿐이다. 아이들은 활력 넘치고 영똥한 면도 있는 시의 매력에 흥미를 느끼기도 하며, 시는 읽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에게 읽고 쓰기의 새로운 방법이 되기도 한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아이는 더글라스 플로리언(Douglas Florian)의 『빙 방 보잉』 (*Bing Bang Boing*) 이라는 시집을 통해 읽기를 터득했다. 이 유쾌한 시집에 들어있던 리듬감 있는 운율과 반복들은 아이에게 깨달음을 주었고, 갑자기 모든 활자의 의미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읽는 것을 배운 것이다.

우리는 시에 열광한 닥터 수스의 사랑스러운 책들이 리듬, 운율 그리고 반복을 열정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클로에와 나는 『초록색 계란과 햄』 (*Green Eggs and Ham*)을 너무 많이 읽어서 25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도 거의 다 외울 수 있다.

아이들이 이처럼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이 머릿속에 입력이 되면, 그곳에 커다란 정보 창고가 만들어져, 읽는 것을 학습할 때 쓸 수 있게끔 하는데 이것은 마치 단어, 숙어, 구조와 문법을 담고 있는 커다란 언어의 은행과 같다. 아이들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단어들이 그들의 삶속에서 쓰는 말로 쏟아지게 되고, 어느 순간 우리는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또렷하게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아이들이 독자나 청취자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절대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내가 아는 선생님은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6학년 아이들에게 일 년 동안 『장발장』 (Les Miserables 레미제라블)을 읽어 주었다. 어느 누구도 이 책이 11살 학생들이 읽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책속에 등장하는 극적인 장면, 감정, 액션과 사랑이야기 들을 좋아했고, 매일같이 선생님이 책을 읽어 줄때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결석해서 이야기를 듣지 못한 학생들은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 궁금해 했다.

내 주치의의 손자는 고작 여섯 살 밖에 되지 않았는데 현재 출판된 해리 포터 책—한 권당 500쪽이 넘는 분량의 책이다—을 모두 혼자서 다 읽었다. 그 아이 뿐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아이들도 그 책을 읽었는데, 그런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테네시에(Tennessee)사는 엘렌 이라는 선생님은 세 살 난 아들에게 뮤지컬 캣츠 (Cats) (이 뮤지컬은 T.S.엘리엇의 극시 『지혜로운 고양이들 되기 위한 지침서』 "Old Possum's Book of Practical Cats"를 배경으로 하였다) 에 나오는 모든 원작시를 읽어 주었다. 부모는 아이의 요청에 따라 시를 읽고 또 읽어 주었고 아이가 네 살 반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모든 시를 다 외웠다.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고 인정한다. 엘리엇의 시에 사용된 어휘들은 굉장히 섬세하며 이해하기에는 정교한 언어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즐겁게 읽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다른 수많은 어른들이 그렇듯이 또다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들의 높은 가능성을 인정하는 대신 쓸데없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다른 일면에서는, 특정한 나이 때의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는 지에 대해 생각할 때 어른들이 종종 실수를 범한다. 우리 회사 편집장의 남편인 데이브는 이제 막 네 살이 된 아들에게 루드야드 키플링(Rudyard Kipling)의 『바로 그 이야기』 (Just So Story)를 읽어 주었다.

"아빠, 그 거 읽지 마." 이면이 말했다. "너무 어른 꺼 같아."

아이들은 그것이 재미없으면 그렇다고 빨리 말한다. 아이들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되면 재빠르게 그것을 지적한다. 각각의 아이는 한 개인이며, 그들이 선호하는 것이 의외일 때가 종종 있다. (어떤 네 살짜리 아이는 19세기의 독특한 언어로 쓰인 『바로 그 이야기』를 좋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른으로서 우리가 어떤 책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만약 우리의 문학적, 정서적 감정이 자극을 받지 못했거나, 그 책을 듣는 아이들도 별로 재미있어 하지 않을 때—에는 우린 그 책을 옆으로 밀어 놓아야한다. 이곳저곳에서 생겨난 열정이 책 주위에 들끓지 않는 한, 아이들은 책 읽는 것은 지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수차례 반복하면, 아이들이 책에 사용된 언어를 더 이상 낯설어 하지 않고 익숙해 할 수 있어서 중요한데 어린 아이들에게 특히 더 그렇다. 책에 사용된 언어는 다르게 들린다. 그리고 다르게 보인다. 그것은 분명 다르다.

예를 들어 영어라는 언어의 특성에 대해 잘 모르는 아이들은 리언 가필드 (Leon Garfield)의 어린이를 위한 미스터리 책 『결혼식의 유령』 (*The Wedding Ghost*)에서 발췌된 아래 예문을 읽기 어렵다고 생각할 텐데, 이탤릭체로 표시된 문어적인 숙어와 단어가 특히 더 그렇게 느껴질 것이다.

잠겨있던 쇠사슬이 풀리고, 어두운 천장에서부터 빛이
비가 내리 듯이 쏟아졌는데, 마치 별의 비행과도 같았다.
바로 그 벽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교회의 회중들은 서둘러 사방으로 도망가며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취지 않고 크게 연주되는 오르간 소리에 묻혀서
들리지 않았다.

문학적 언어로 된 책을 많이들은 아이들에게 이 구절은 별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거나, 전혀 어렵지 않을 것이다.

☆

막 독서가가 된 아이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문장 안에 있는 언어들 대부분은 뜻이 통한 다는 것이다. 아래 예를 들었다. 3)

책과 질은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의자 한 양동이를 가지러...

Jack and Jill went up the hill

To fetch a pail of sitting...

우리가 동요에서 *의자 한 양동이를 가지러* 라는 말을 읽는다면 깜짝 놀랄 것이다. 독자의 모든 추측을 혼란스럽게 한다. *의자 한 양동이를 가지러* 라는 말은 문장 안에서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독자들은 언어가 뜻이 통하길 기대하기도 하고—양동이 안에는 보통 물이 들어가 있다고—이 동요를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의자가 아닌 물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우리는 언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기 때문에 의미를 예측한다. 언어—이 책의 경우는 영어—가 어떻게 뜻이 통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성공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다.

누군가가 책을 읽어준 적이 없는 아이들은 글자가 뜻이 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아이들에게 읽는 것을 배우는 것은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이런 아이들이 스스로 글을 읽을 때 뜻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글로 쓰인 언어를 접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운율, 이야기, 노래의 뜻과, 희한한 단어의 소리, 문어체로 된 문장의 격식을 갖춘 문법, 문장이 이루어지는 방법들이 모두 낯선 것이다.

반면에 늘상 책을 들어왔던 아이들은 글자들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안다. 운

3) 아이들 동요 책과 질(Jack and Jill)의 일부분 이다 (역자 주)

율, 리듬 그리고 반복에 대해서도 안다. 이런 아이들은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한결 수월하게 읽을 수 있다. 아이들은 어떤 특정한 단어와 패턴 그리고 이야기의 줄거리를 미리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 예상은 거의 맞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학교 읽기자료"—물론, 학교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고 부르는 정말 형편없이 쓰인 책들이 아직도 읽기를 배우는 아이들의 손에 들려지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책에 가득한 공허한 얘기 속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중요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지루한 이야기는 읽기를 배우는 아이들의 흥미를 떨어뜨리고, 따분한 책의 내용과 이상하게 쓰인 문법들은 아이들에게 혼동을 가져온다. "지프가 달리고 있어요. 달려, 지프, 달려. 지프는 나무를 향해 달려요. 존도 보여요. 달려, 존 달려, 나무가 보인다," 등등 그런 예는 많이 있다. 이야기의 요점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말하지 않는다.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 읽기자료의 가장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독서가 지루한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에 있다—그래서 아이들은 읽는 것을 그만둔다. 아이들이 읽는 것을 그만두면 읽는 것을 배우는 것도 그만두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왜 문맹이란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해 한다.

영어와 그것이 어떻게 말이 되는지를 이해하고, 거기다 글자까지 이해해서 영어를 정확히 소리 낼 수 있다 해도 그것이 진정한 "읽기"는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 맞다.

최근 한 어린아이가 본인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 책을 소리 내서 읽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물론 글자의 소리를 잘 내기는 했다. 아이는 쉽표, 마침표 들을 모두 무시하고 책의 모든 단어를 똑같은 어조로 읽었다. 그 아이가 단어들을 정확히 소리 내긴 했지만, 책을 읽은 것은 아니다. 그래도 아이의 엄마는 딸아이가 실제로 책을 읽은 것이라 생각하고 기뻐했다.

"나한테 네가 읽은 책이 어떤 이야기인지 말해 줄 수 있니?" 마치 나는 잘 모

르겠다는 듯이, 그녀가 책을 읽는 중간에 이렇게 물었다. "중간에 내용을 놓쳤어.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아이는 말 해 줄 수 없었다. 그녀는 영어의 지식을 사용해서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이는 파닉스만 사용한 것이다. 이것은 전문가들의 묘사를 따르자면 글자를 보고 "짚는" 것이다. 즉,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히 읽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어떠한 표현도 의미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글자를 정확히 소리 낼 수도 있고 언어를 이해 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읽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

가능한 많은 언어를 아는 것이 읽기의 두 번째 비밀 이었다면, 세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

☆

읽기의 세 번째 비밀: 일반적 지식의 마법

읽기의 세 번째 비밀은 우리의 일반적인 지식이다. 우리가 태어 날 때부터 지금 까지 모아둔,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우리가 삶과 우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읽는 것은 더 쉬워진다.

예를 들면, 골프에 푹 빠져서 *보기*, *버디*, *파*, *퍼트*와 같이 골프에 사용되는 단어들을 알고 있는 택시 운전사에게 골프에 관해 자세히 쓰여진 기사를 읽는 것은 쉬운 일이다. 반대로 골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심장전문의에게 이러한 기사는 이해하기 곤혹스럽고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심장질병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숙지하고 있는 심장전문의는 다른 동료가 심장에 대해 쓴 글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좀 전의 택시 운전사는 이 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우리아이들이 무엇이든지 읽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길 바란다면-더 많이 혹은 더 다양하게 혹은 더 어려운 것들을 읽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그들에게 가능한 많은 세상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셀 수 없을 만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활자와 언어의 이해라는 두 개의 비밀에서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

우리는 읽어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양의 정보를 아이들에게 줄 수 있다. 아이들에게 더 많이 읽어 주고, 그들 스스로 책을 많이 읽을수록, 책에서 만난 것들을 통해 많은 세상을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읽는 것은 더 쉬워진다.

우리가 책을 읽어 줄때 아이들은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얻게 되는데, 아이들 스스로 읽지 못하는 책을 읽어 주었을 때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보며, 진자이언(Gene Zion)이 쓴 어린이 고전 그림동화 『개구쟁이 해리』 (*Harry the Dirty Dog*)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등장한다. "해리의 몸은 석탄 슈트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이제껏 본 것 중 최악으로 더러워 졌어요." 이 책이 출판된 1956년 당시의 아이보다 지금의 아이들에게 이 문장은 읽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1956년도의 많은 아이들은 석탄 슈트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그때의 아이들은 이 문장을 비교적 편하게 읽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아이들에게 이 문장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석탄 슈트라는 것이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아이에게 『개구쟁이 해리』를 반복해서 읽어 주며 그림을 보고 함께 얘기하고, 개가 석탄 슈트 밑으로 미끄러지는걸 보면서 웃고, 해리가 집에 돌아가는 것에 기뻐한다면 석탄 슈트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아이의 세상에 소개 된다. 후에 아이가 혼자서 그 책을 읽을 때 석탄 슈트라는 말이 더 이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물론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만 세상을 배우는 것은 아니다.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배우기도 한다. 아이들과 함께 가능한 소풍을 많이 가는 것이 중요한데, 다른 주(州)나 나라로 가는 건 말할 것도 없이 좋지만, 블록을 돌면 있는 가게나 근처 공원, 혹은 동물원도 훌륭하다. 또한, 아이들은 어른들의 흥미로운 이야기나 그들을 매료 시키는 텔레비전을 통해 세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모든 것—컴퓨터 그래픽에서부터 펜 케이크 굽는 법, 소젖 짜는 법, 축구까지—을 배울 수 있다. 어느 방향으로든 아이들의 경험이 늘어나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

우리가 말과 글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음도, 특정한 작품을 쉽게 읽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하다. 우리가 대부분의 영어 문서를 자신 있고 정확하게 "읽는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읽을까?

그 예로 우리는 아래 단락을 쉽게 "읽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짐작하기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많은 열정을 갖은 사람만이 이 글을 이해할 것이다.

미학에 의해 야기된 어려운 문제에서 기호학적인 토론을
보호하려는 일관성 있는 개념으로의 예술의 지속적 존재가.....
미를 다루는데 나타나는 기호학적인 무력함은 모순적인.....
가치가 결정된 하위범주의 예술의 보존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만약 위의 단락이 읽기시험문제로 제출된다면 우리는 물론 큰소리로, 정확하게, 적당한 곳에서 숨을 쉬어주며 읽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영어가 어떻게 이루어진 언어인지를 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읽는 것을 들은 사람은 누구라도 우리가 뜻도 이해 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우리가 알고 있는 말과 글에 대한 것을 동원했다라도— 위 예문의 뜻을 많이 이해하지 못했을 텐데 이것과 관련된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단어를 말하면서도, 이해하고 있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단락을 "읽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단지 크게 읽는 것을 보고 아이의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크게 읽을 수는 있어도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읽기가 아니다! 아이들이 이야기의 진행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야기의 "세계"에 들어 있는가를 보고, 진짜 읽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아이들이 읽고 있는 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

우리는 읽기가, 아주 분명하게 정의되고 구별된 세 개의 비밀로 이루지는 것을 안다. 글을 이해하고, 언어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

세 개의 비밀이 모두 풀리면?

세상, 언어, 글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의 팀이 되어 움직이게 되면 읽을 수 있다. 이 셋은 마치 뿔 수 없는 친구들처럼 손을 맞잡고 간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돕는다. 혼자서 움직일 때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읽기는 하나의 멋진 알아맞히기 놀이인데, 읽기의 세 가지 비밀 중 하나라도 기능을 하지 못해 독자들과 책의 내용을 알아맞히거나 정확한 소리를 내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경우 나머지가 그것을 돕기 위해 투입된다.

세 개의 비밀 중 어느 한곳에만 너무 집중 하는 것은 종종 아이들에게 읽는 것을 배우지 않거나, 매우 싫어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은 다른 두 개의 비밀이 존재하고 그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글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책을 읽는 동안 문제가 생긴다면, 아이가 알고 있는 세상과 "책"에 사용된 언어를 동원해서 그 단어가 어떤 것인지 알아내도록 하는 것이 자주 효과가 있다.

아이에게 책의 전부를 소리 내어 읽게 하는 것 보다는 읽어 주거나 Chapter 7에 나왔던 놀이를 한다면, 책이 주는 진짜 즐거움을 더 많이 경험 할 수 있다.

☆

책을 읽을 때 우리는 가능하면 많은 정보를 재빠르게 얻어 다음에 나올 단어,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무엇인지를 효과적으로 예측하려고 한다. 우리는 페이지에 보이는 글자를 이용하고, 언어와 지식을 함께 동원해서 뒤에 무엇이 나올지 예측한다. 우리는 놀라운 속도로 예측하고 그것을 증명한다.

예를 들어, 알아보기 힘든 육필을 가진 사람이 엽서에 "말을 태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라고 써서 보낸다면, 글자만을 보고 뜻을 알아내는 것은 어렵겠지만, 우리의 상식이 그것이 *타면서* 라는 것을 알게 해 준다. 타면서 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쉽게 예측해서 엽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보통 말을 *태우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다. 영국의 만화가인 그래험 라울(Graham Rawles)의 『잃어버린 자음』 (*Lost Consonants*)이란 만화에서, 그는 셰익스피어가 요리를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그 아래 다음과 같은 설명문을 붙였다. "The Collected woks of Shakespeare." 내가 이 농담을 이해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드라마 학교의 부산물로서 영어, 극,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작품 모음집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나는 이 문장을 확실하게 짐작할 수 있었다. 내가 얼마나 자세히 보았는데도 works 라는 단어에 r이 없었다는 것을 몰랐다.

☆

훌륭한 독서가인 우리들은, 읽고 있는 책의 모든 단어를 이해하거나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 지 알 필요는 없다. "혼란스러운(*discombobulating*) 러시아 이름 때문에 도스토예프스키(Dostoyesvsky)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The Brothers Karamazov*)의 도입부분은 읽기가 너무 어려워" 라는 문장에서 우리가 *혼란스럽다*는 단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언어라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의 위치로 보건데 그 자리에 *헛갈리다(confusing)* 혹은 *어지럽히다(unsettling)* 와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올 것 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

어떤 책이든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더 정확하게 그 다음에 무엇이 올지 추측할 수 있다. 이전에 똑같은 단어, 문장, 이야기를 수차례 읽었다면, 단어 주위에는 독자들이 단어의 의미를 추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발판이 형성된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모든 단어를 다 보지는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단어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그저 대강 훑어 볼 뿐인데 많은 단어들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빠르게 읽는다면, 중요하지 않은 단어들을 무시하고 읽는다 해도 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예를 들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아래에 있는 단락을 빨리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이...어떤 책이든...읽기가... 쉽다
나머지를 추측하기...단어들은 점점...정확해진다.
모든 단어를 읽지 않아도 ...왜냐하면...대부분...
중요하지 않다. 대강 훑어본다, 알고 있으니...
대부분의 단어를 미리...알고 있다.

우리의 빠른 추측을 위해 바로 전에 읽은 내용도 동원된다. 우리는 바로 앞에서 읽었던 정보로 그 다음에 무엇이 올지 재빨리 예견한다. 어려운 기사나 책을 읽을 때 도입부분이 분명해 지고 이해 될 때 까지 책의 진도를 나갈 수 없는 것이 이 때문이다. 우리가 진도를 나갈 만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뒷부분을 예견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양의 정보를 얻어 더 정확히 예견 할 수 있다면,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대부분이 찰스 디킨즈(Charles Dickens)소설의 맨 처음 부분이 어렵다고 말하는데, 앞부분에 복잡한 줄거리가 펼쳐지는데다 서로 연결되어있는 등장인물들이 소개되기 때문이다. 그 부분에는 중요하지 않은 단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소리 내어 가며 읽어야 한다. 대충 훑어 볼 수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앞부분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앞부분에 근거하여—마침내 앞부분을 이해했을 때—우리는 더 많은 것을 빠르게 예측하고 확인할 수 있다. 주인공들의 이름과 관계가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면, 갑자기 능률적으로 내용을 훑어보는 것이 가능해 지고, 속도를 내어 진도를 나가며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 한다.

☆

읽기를 시작한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기 위해선 처음부터 훑어보는 게 가능해야 하는데, 논리적으로는 모순처럼 들린다. 읽을 수 없는데 어떻게 훑어보는 게 가능할까? 시와 노래는 아이들이 "읽기"쉬운 단어로 되어있는데, 미리-예측 가능한 운율과 리듬 덕분에-그 문장의 끝부분에 어떤 단어가 나올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읽고-보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시와 노래에서는 "읽고-예측"하기가 가능하다.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독서가라고 생각할 것이다-마음가짐이 먼저고 그 뒤에 기술이 따라온다. 리듬감과 운율이 있는 반복적인 이야기는 아이들이 책을 접했을 때, 빨리 즉각적으로 "훑어보기"가 가능하게 도와 줄 수 있고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게 한다.

『잠잘 시간』을 예로 들면, 그 안에는 예측하기-쉬운-단어 들이 많이 있다. 아이들이 처음 두세 페이지를 한번 듣게 되면, 책의 패턴을 이해하게 되고, 책을 볼 수 없어도 따라 "읽게"된다.

이제 잠잘 시간이야, 작은 생쥐야, 작은 생쥐야,
어두움이 온 세상을 덮고...

작은 거위야, 작은 거위야. 이제...
별이 하늘에 떠다니고 있어.

이제 잠잘 시간이야, 작은 고양이야...고양이야,
이불을 꼭 덮으렴, 맞아 그렇게...

이제 잠잘 시간이야, 작은 생쥐야, 작은 생쥐야,
어두움이 온 세상을 덮고...

작은 거위야, 작은 거위야. 이제...
별이 하늘에 떠다니고 있어.

이제 잠잘 시간이야, 작은 고양이야...고양이야,
이불을 꼭 덮으렴, 맞아 그렇게...

It's time for bed, little mouse, mouse,
Darkness is falling all over the...

It's time for... little goose, little goose,
The stars are out and on the loose.
It's time for bed, little cat,...cat,
So snuggle in tight, that's right, like...

아이들은 모든 페이지가 "이제 잠잘 시간이야..."로 시작된다는 것을 (세 살짜리 벤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그랬듯이) 빠르게 이해한다. "..작은 생쥐야, 작은 생쥐야..."처럼 모든 동물이 두 번 나오는 것도 안다. "It's time for bed, little cat, little cat / So snuggle in tight, that's right, like that"처럼 모든 두 번째 줄이 그 전 줄과 운을 이룰 다는 것도 안다.⁴⁾

결국, 이런 종류의 동화에 익숙한 아이들은 많은 단어들을 이해하게 되어 훌륭한 예측을 하게 되고, 보지 않고도 "읽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읽기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첫 단계이다. 이 시점부터 아이들은 결국 읽기의 세 가지 "비밀"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글자 자체를 이해 할 수 있을지, 정말로 읽을 수 있을지 열성적으로 배우게 된다.

『잠잘 시간 이예요』와 같은 책들은 어린 독서가들에게, 마치 정확한 단어를 말하기 위해선 글자를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당연히 봐야 한다. 아이들은 똑똑하게도—우리 모두가 그렇듯이—자신들이 갖고 있는 영어의 이해와 세상에 대한 보편적 지식들을 기반으로 확실하고 결정적인 예측을 하기도 하지만, 글자를 보고 이해하면 확실히 더 쉽고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글자 없이 정확하게 읽을 수 없다.

☆

4) 운율의 예는 영어 원문에서 찾을 수 있다 (역자 주)

빨리 읽을수록 읽는 것이 더 쉬운 것은 우리가 읽은 것들을 기억해서 다음에 어떤 것이 나올지 예측 할 때 사용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천천히 읽을 때 기억은 더 쉽게 막힌다. 단어마다 걸리게 되고, 한 단어를 해결 했을 쯤 이면 그 전에 읽었던 것은 기억에서 사라져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려 할 때 이 정보는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혼동의 악몽이다.

이것이 소리 내지 않고 책을 읽는 것보다 소리 내서 읽는 것이 어려운 이유이고, 앞에서 소개 되었던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이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특히 더 어렵다. 느린 진행이 우리의 기억력에 부담을 주고 뜻을 차단해 버린다.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게도, 예전에도 잘 읽지 못했고 여전히 책과 씨름하는 독자들에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고 우리에게 읽기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아이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우리가 책을 더 자주 읽어주는 것이고, 아이들이 무엇을 이해했고, 무엇이 즐거웠는지에 대해 얘기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어린 아이들은 "마른...개가...으르렁...거리며...이빨을...드러냈다," 와 같이 익숙하지 않은 본문을 괴롭게 소리 내어 읽을 때, 단어 하나하나를 짐작하느라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이미 읽었던 앞부분은 잊어버린다. 그들의 뇌는 두려움, 혼란 그리고 지루함속에 정지 상태가 된다. 그들이 이전에 갖고 있던 세상과 언어와 글자에 대한 정보가 창문 밖으로 모두 날아가 버린다.

글자를 소리로 바꾸는 것이 아이들이 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슬플 정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단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뜻을 만들 다는 것을 이해한 후, 전체적인 문장에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글자는 최소한만 사용하는데, 특히, 글자는 아래의 예시처럼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

야세르 아라파트는 건축 업계의 위기를 (혹은, 긴장속에 증가하고 있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급히 귀국하였다.

Yasser Arafat hurried home from France to deal with
the building crisis

여기서 말하는 빌딩 크라이시스(building crisis)가 건축업계의 위기일까? 긴장 속에 증가하고 있는 위기일까? 앞뒤 문맥을 따져보지 않고서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당신을 도와 줄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Permit me to help you.

그들은 그녀에게 허가증을 주었다.

They gave her the permit.

허락(Permit)이란 단어의 뜻은 강세가 단어의 첫 음절에 있는지 두 번째 음절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가 문장에서 직접 그 단어를 읽기 전까지는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녀의 볼에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She wiped the tear off his cheek.

그는 셔츠의 뜯어진 부분을 수선했다.

He mended the tear in his shirt.

다시 한 번, 우리는 *tear*를 문장에서 읽어 봐야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하나는 *티어(tier)* 또 다른 하나는 *테어(tare)*로 발음이 된다.

그 책을 빨강색이었다.

The book was red.

그룹의 모두가 그 책을 읽었다.

The book was read by the whole group.

"또 읽어요!"라고 그들이 말했다.

"Let's read it again!" they said.

처음 두 문장에서. 레드(*red*) 와 레드(*read*) 는 발음이 같다. 끝에서 두 문장에서 레드(*read*) 와 리드(*read*)의 철자는 같지만 소리는 완전히 다르다. 비밀스러운 단어의 정체와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단어 주변 단어들이 필요하다.

☆

우리는 문장 안에 단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어들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서로 떨어져 무작위하게 늘어져서, 효과적인 추측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일은 거의 없다. (GO, STOP 그리고 EXIT과 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하나의 단어 혼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단어 리스트는 말이 되지를 앓는데도, 우리는 아직까지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짧은 단어 리스트를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학교
물다
그리고
열망하는
센터
인정하다
회피하다

누구에게나—읽는 것을 배우는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문장 안에 있는 단어를 읽는 것 보다 똑같은 단어라도 무작위로 된 리스트에 있으면 읽기가 더 어렵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연결 되어 있지 않은 임의의 단어들의 뜻을 알아맞히라고 하는 잘못된 지도를 한다. 최악은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지를 보기 위해 *trom*이나 *feg* 같이 단어를 만들어서 발음을 해보도록 시키는 것이다. 세 개의 비밀 중 단 하나만 사용한 이러한 것으로는 전체를 보는 진정한 읽기를 증명할 수 없다. 글자—그리고 글자를 소리로 변환시키는 것만이 사용되었다.

좀 이상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잘 읽는 사람들은 단어를 소리 내가며 읽어야 할 필요가 거의 없다. 당신은 그 사람들은 잘 읽으니깐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대신, 잘 읽는 사람들은 독서의 비밀—그들의 보편적 지식과 언어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의 도움을 받아 단어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글자를 보고 자신들이 한 추측이 맞는지 확인한다. 실제로, 잘 읽는 사람들은 독서의 세 가지 비밀을 동시에,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잘 읽지 못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만—파닉스만—을 사용하는데, 그조차도 아주 천천히 한다. 그들 앞에 놓인 종이위의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글자 소리를 내가며 읽는 것이다. 슬프지만 단어의 소리를 내는 것은 독서를 눈물 날 만큼 지루하게 만들고, 삶에 좌절감을 느끼게 해서 이들을 더 못 읽는 사람들로 만든다. (물론, 어린아이가—우리도 마찬가지로—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의 소리를 아예 내지 못한다면, 책을 읽는 것이 정말 어려워진다는 것은 기억해야 한다.)

아이들이 한 번에 단어 하나씩 읽으며 어려워하는 걸 볼 때,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마치 마분지 관이나 빨대를 통해서 보고 읽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 이유로 한 번에 하나 혹은 두 개의 단어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아이들은 의미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느린 속도로 읽고, 결국은 정확히 읽지 못한다. 우리가 빨대를 통해 책을 읽는다고 가정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페이지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이렇게 어렵다면 이제 막 읽기를 시작해서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더 어려운 것인지는 상상 할 수도 없다!

아이들이 소리 내어 읽는 것을 어려워하고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면, 소리 내어 읽는 것을 멈추게 하고, 이야기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재치 있게 해야 한다) 우리가 앞의 몇 페이지를 먼저 읽어 주는 것이 좋다. 그러면 아이들은 줄거리를 대충 알 수 있을 만큼의 정보를 갖게 된다. 적어도 주디스 바이올스트(Judith Viorst)의 『나 지구 반대편 나라로 가버릴 테야』 (*Alexander and the Terrible, Horrible, No Good, Very Bad Day*)와 같은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이름정도

는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여러 번 들었던 아이에게 알렉산더는 읽기 어려운 이름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좋아, 이제 순서를 정해서 하자. 내가 먼저 시작할 테니깐, 네가 다음 걸 읽어, 그러면 내가 그 다음 걸 읽는 거야."라고 말하면 말한다.

☆

이것이 놀랍고 조금은 "바보"같은 생각 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라신느의 동물』을 읽어 녹음하던 클로에에게 말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아이들이 읽는 도중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말해 주어야 한다. 아이들의 기억이 딱 차지 않게 하기 위해, 속도를 내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태까지 모은 정보(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세상, 글과 말도 함께)를 잃어버리지 않고 정확한 의미를 파악 할 수 있다. 아이들의 읽기 속도를 떨어뜨리는 모든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내가 여러 차례 말했듯이, 아이들에게 읽기가 쉬어지기 위해서는 세 개의 비밀—글자와 언어와 일반적 지식—을 같이 사용해야한다. 하지만 읽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대부분이 뒤에 나온 두 개의 비밀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이 아이들이 어떻게 읽어야 하는 지를 배우는데 있어 실패 하게 하고, 인해 종종 다른 과목도 낙제 하게 된다. 그리고는 어이없게도, 아이들은 "독서 장애아"로 인식된다.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막 읽기를 시작한 아이들이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 자신들이 읽고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더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고, 글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마침내, 이야기를 즐길 수 있다. 아이들은 글을 읽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단어 소리 내기에 덜 의존하게 되고 정보에 근거하여 내용을 더 빠르게 추측 할 수 있게 된다. 마침내 그들은 책을 읽게 된다. 유레카! 그리고 아마도 그들 생애 처음으로, 읽기라는 것이 정말 근사한 선물을 가져다준다는 걸 깨달을 것이다.

☆

드디어, 우리는 읽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것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의자* 한양동이를 가지러 언덕을 오르는 책과 질처럼 이상하고 어리석은 읽기의 구닥다리 진리를 붙들고 있을 것이다.

읽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멋진 문학작품을 소리 내어 읽게 하는 대신 우리가 그것을 읽어 주는 것이 아이들의 읽기 발달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지금쯤이면 모두가 알 것이다. 아이들에게 같은 책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어 주면, 읽는 것을 빨리 배우게 된다. 좋은 책과 이야기가 익숙할수록, 이후에 똑똑 그들 스스로 더 쉽게 책을 읽을 수 있다. 슬프고 충격적인 걱정은, 수 없이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소리 내어 읽어 주기가 크게 인식되거나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들은 이러한 혜택을 알고 있어도,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간단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아, 그렇군요."라고 그들은 말한다. "소리 내서 읽어 주라고요? 그럼요! 앞으로 그렇게 하죠."

이후로 가끔씩은 소리 내서 책을 읽어 주겠지만, 필요한 만큼 자주 읽어 주거나 늘 읽어 주지는 않는다.

아이들에게 책을 할 수 있으면 자주 읽어 주어 읽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한 때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그들에게 익숙해지도록 하자. 그리고 다시 소리 내서 읽게 하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우리가 소리 내어 읽는다! 그러는 동안 아이들은 굳이 학습이 아닌, 장난과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

Chapter 13

☆

"책! 책! 책!"

내가 알고 지내는 도서관 사서가 하루는 어떤 젊은 아빠와 함께 나가, 다섯 살 생일을 맞는 그의 딸의 생일 선물 고르는 것을 도와주었다. "책을 몇 권 사주는 게 어때요?"라고 그녀가 말했다.

"책이요?" 아이 아빠가 대답했다. "아직 읽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왜 책을 사줘요?"

☆

내 친구의 시누이는 본인이 기대하는 것만큼 아이들의 책 읽는 것이 늘지 않아 당연히 걱정이 되었다. 알고 봤더니 그녀의 집에 책은 거의 없었고, 있어도 "먼지만 너무 많았다!"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은 자기 조카 아들의 두 번째 생일 선물로 몇 권의 그림 책을 보내 준 적이 있다. 아이의 엄마가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라고 답장을 보내왔다

☆

책이 없는 집이 너무 많다. 아이들이 훑어보거나 빠져들 수 있도록 책이 여기저기 널려있지 않으면 어떻게 아이들이 책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겠는가? 우리 사회에는 많은 특권을 누리고는 있지만 읽지 못하거나 읽으려고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 그 이유를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 아이들에게는 유복한 어린 시절에 가짐직한 TV와 온갖 상업적인 장난감들은 있지만, 책이 없어서 읽기를 즐기는 법을 전혀 배우지 못했다.

집에 책이 없으면, 아이들이 읽기를 빨리, 쉽게 배울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 책이 없다면 아이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글자를 어디서 보겠는가? 그들이 들어야 하는 언어는 언제 들겠는가? 또 그들이 어떻게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필요한 만큼 늘릴 수 있겠는가? 읽을 것이 없으면, 소리 내어 읽어 주기 시간은 있을 수가 없다. 책과 이야기는 집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그것이 첫 번째 필수 조건이다.

아이들이 좋은 책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책을 여러 번 읽을 수 있고, 이렇게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내가 아는 애들레이드에 사는 어떤 남자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닥터 수스의 책이 다 헤질 때 까지 읽기도 했다. 아이의 부모님은 칠 년 동안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그 책을 바꾸어 주었다.

그 특정한 책을 소유하고 몇 번이고 읽을 수 있었던 것이 그 아이를 독서가로 만들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책을 다 살수 없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는 것은 당연히 필수이다. 꼬마 밀리는 내가 알고지내는 콜로라도에 한 도서관 사서의 손녀딸인데, 말할 필요도 없이, 그녀는 도서관을 무척 좋아한다. 밀리가 이제 막 한 살이 되어 말을 하기 시작할 무렵 어느 토요일 아침 자동차 안에서 밀리 아빠가 "우리 지금 도서관에 가는 거야, 밀리." 라고 말했다.

"책!" 이라고 아이가 바로 말하며 팔짝팔짝 뛰었다. "책! 책! 책!"

어린나이에 도서관을 책과 또 책을 행복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밀리의 이런 탁월한 능력으로 인하여 그녀는 다른 사람보다 인생을 한 발 앞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는 밀리같이 책으로 가득한 집에서 자란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학교에서 공부를 더 잘 한다는 것을 안다. 집에 책이 많을수록 아이는 자신이 선호하는 책과 좋아하는 책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어떤 책을 선택할까? 그럼 그런 책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자나 깨나 책만 생각하는 내 남편은 "사모님이 쓰신 책들은 어디서 살 수 있

나요?"라고 질문을 하는 직장 동료들 때문에 매번 당혹스러워 한다.

"서점에서요", 라고 남편은 대답한다. "옛날 책방에도 있고요,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려보세요."

남편은 도대체 그 사람들이 책을 어디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궁금해 한다. 서점이나 도서관이 너무 위협적이어서 사람들이 가기 겁내 하는 것일까? 당연히 그러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나 역시도 내가 정원을 가꾸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까지는 묘목 종묘장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인정해야겠다. 정원을 잘 가꾸는 친구가 나의 무지함에 놀라 직접 가르쳐 주기까지 철물점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묘목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몰랐다. 아마도 책을 많이 찾아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책을 구하는 일은 이처럼 어려울 것이다.

어려워야 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짐 트렐리즈 (Jim Trelease)의 『책 읽어주기 핸드북(*The Read-Aloud Handbook*)』 또는 발레리 루이스(Valerie V. Lewis)와 월터 메이스(Walter M. Mayes)의 『발레리와 월터의 아이를 위한 최고의 책: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저자의 의견이 들어간 안내서』 (*Valerie & Walter's Best Books for Children: A lively, Opinionated Guided*)에 실린 적합한 연령대별로 정리된 훌륭한 도서 목록부터 시작 할 수 있다. 이 목록으로 무장을 하고나면 서점이나 도서관도 그리 위압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않을 것이다. 우린 간단히, "이 책을 좀 찾아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된다. 만약 그 책이 없다면 주문해 달라고 부탁하면 되는 것이다.

책에 대해 열심히 조언과 제안을 해주는 활발한 서점상이나 열정적인 사서를 찾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이들은 모든 아이들이 다른 시기에 다른 관심사를 가지며 모두의 각자의 수준에 맞게 책을 읽는 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책—새 책과 오래된 책—을 안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 알게 될 도서관 사서나 서점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좋은 생각이며 시간이 많이 절약된다. 그들의 지혜를 이용하고 의지하면 그들은 아이들을 위해 적당한 책을 따로 놓을 수 있고, 혹시 책이 없다면 주문을 부탁할 수도 있다. 클로에가 십대였을 때 나는 딸아이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 지에 대해 조언을 해주던 서점상에게 많이 의지했었다. 나는 그 당시 그녀또래의 아이들이 읽

는 소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누구나 서점상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뉴욕주의 올바니에 위치한 유명한 어린이 전용 서점인 호지포지북스 (Hodge Podge Books) 의 사장 프랑크 핫지는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위해 책을 골라준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적하지 않는 책을 골라주는 것에 대해 자주 안타까워한다. 그는 부모와 다른 어른들이 자신의 조언을 좀 더 귀담아 듣기를 바란다. 뭐니 뭐니 해도 그는 40년 이상 책을 팔아온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발간된 서점의 한 회보에 아래와 같이 적었다

휴가시즌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 올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를 즐기지만 몇몇의 손님들에게 실망을 느낍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손자를 위해 책을 사는 모든 손님들은 이 하버드에 입학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손님들이 두세 살 의 아이들을 위해 고르는 책은 하버드 졸업생도 당황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아이들이 정말로 좋아 할 수 있는 책을 보여 드리지만, 어린 손자손녀를 위한 그분들의 마음은 이미 고전에 꽂혀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책을 선물해 주는데도 글 읽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이가 어떤 책을 좋아할지를 결정해주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 아이들의 책 선택은 현재 그들이 최대 관심사, 성장의 단계, 마음의 상태, 하루 중 시간, 피곤한 정도, 책 읽어주는 사람의 열의(혹은, 열의 부족)등과 관련이 있다.

렇다면, 어쨌든 어떤 것이 좋은 책 일까? 어떻게 결정할까?

아기나 유아를 위한 책을 찾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자*, *코트*, *신발*, *우산* 같이 페이지 마다 낫익은 품목들을 삽화로 그리고 이름을 붙인 간단한 논픽션 책을 좋아 한다는 것이다. 공룡, 화산, 열과 빛, 뱀, 고대 이집트, 날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책들은 이러한 것에 아주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에게는 아주 좋다. 어린 시절 자극된 호기심은 평생 타오를 수 있는 열정에 불을

붙일 수 있다.

클로에는 이십대 후반이었을 때 삼년 넘게 파리에서 저널리스트로 일을 했었다. 솔직히, 딸 아이 하나만 있는 부모로서 그 아이와 11000마일이나 떨어져서 산다는 것이 그다지 이상적이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탓 할 수 있을까? 딸이 세 살 때 우리는 『프랑스』 (*France*)라는 아주 간단한 논픽션 책을 읽어 주었다. 딸은 그 책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다음엔 똑같은 시리즈에 있는 『태양』 (*Sun*)이라는 다른 책을 읽어 주었다. 그것 역시 딸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우리는 똑같은 책을 프랑스어로 번역한 *Le Soleil* 『태양』을 구입해서 읽어 주었다. 『마들렌』 (*Madeline*)이라는 파리를 배경으로 한 책도 있었고, 『라신느의 동물』에도 역시 파리가 등장한다. 어린 시절 파리에 대한 딸의 흥미가 평생의 열정이 된 것이다. 만약 아기가 자라서 옆집에 살기를 바란다면—그럴 일은 없겠지만—남아메리카의 열대우림 대한 책은 읽어 주지 말기를!

☆

유아들은 팻 허친스(Pat Hutchins)의 흥미진진한 32단어 책 『로지의 산책』 (*Rosie's Walk*)처럼 아주 간단하고 삽화가 명확하게 그려진 그림책을 매우 좋아한다. 또한 플립북(입체식 책)과 시간 가는 지도 모르고 들여다 볼 수 있는 세밀하게 그린 삽화가 든 책을 좋아한다.

☆

생동감 있는 가사, 쉬운 노래 그리고 손가락 유희가 함께 있는 동요도 물론, 이 또래의 아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다. 우리가 책을 읽어 주면서 우리의 목소리와 아기들의 동작이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무릎에서 아이들을 뛰게 하거나, 부드럽게 흔들어 주거나, 손뼉을 치는 것과 같이 가능한 많이 몸을 움직여주면 아이들은 동요와 노래를 더 즐겁게 그리고 더 빠르게 배울 있다.

아이들이 동화와 노래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익히기 원한다면 새로운 책을 찾을 때, 전에 읽었던 책과 리듬은 달라도 구성이 비슷한 책들을 구하는 것이 좋

다. 새롭고 독창적인 방법의 독특한 면이 들어가 있는 강한 반복 패턴이나 명확한 운율과 언어로 쓰인 책이다. 우리는 아이들의 단어 리스트에 올릴 수 있는 단어나 글귀들은 대부분 엉뚱하거나 재미있는 말들에서 찾는다. 닥터 수스의 『홉온팝』(Hop on Pop)이 이런 책의 훌륭한 표본이다. 이 책에 사용된 이상한 리듬은 중독성이 있다.

한번은 우리 회사 편집장, 그리고 그 당시 세 살이던 그녀의 아들을 차에 태우고 운전을 한 적이 있다. 아이는 피곤해 했고, 우린 목적지까지 더 가야 하는 상황이여서 아이의 기분을 즐겁게 해주려고 노래를 불러 주었다. 하지만, 얼마 후 이면은 『홉온팝』에 나오는 말을 똑바로 앞을 바라보며 말했다.

"잘 가, 썩, 넌 노래를 너무 길게 해" ("Good-by, Thing, you sing too long")

어떤 문장도 그 순간에 이보다 더 재치 있을 수는 없었다. 이것은 훌륭한 선택 이였고, 이문이 문장을 기억하고 하고 싶은 말을 사용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홉온팝』의 운율과 리듬이 잊어버리기에는 너무 지배적이고 거칠었기 때문이다.

☆

닥터 수스의 책은 절대 잊을 수 없지만, 다른 많은 그림책 들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책은 근본적으로 지나치게 귀여워 보이려는 생각으로 가득하거나 전달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마지막 장을 걷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근데 그게 어쨌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책"은 아이들을 위한 멋진 책은 아니다. 이 책은 아이들이 책과 읽기에 흥미를 잃게 할 것이고, 우린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는다. 멋진 책들은 우리인간에게 중요하다. 책이 어른이나 아이에게 어떠한 감동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훌륭한 책이 아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이리저리 훑기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마음을 깊이 감동시켜—웃음이나 눈물, 공포나 즐거움, 혐오감이나 실망, 매혹이나 두려움을 주면 그것은 좋은 책이다. 만약 어떤 책이 아이를 웃고, 울고, 소리지기로, 무서움에 떨고 혹은 몸을 좌우로 흔들거나 움직이게 한다면, 그 책은 아이의 마음에 자리 잡고 머물게

될 것이다.

아직도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기억해 보면, 그런 책들 대부분은 우리를 깊이 감동하게 했던 근본적인 무엇인가가 있었다. 이런 근본적인 주제중 하나가 "고민거리" (troubles)이다.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것, 겁나는 것, 슬픈 것, 다른 사람 마음에 들게 연기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어벙해 지는 것, 잘나가는 것, 질투하는 것, 안전하길 바라는 것, 유명해 지고 싶은 것 등과 같이 우리에게 실제로 중요한 것들에서 일어나는 문제 "고민거리"이다

☆

매력적이지 않은 책 보다는,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름다운 글로 쓰여 진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담아낸 책이 아이들에게 좋다. 하지만 아이가 가지고 있고 아끼는 책이라면 *아이들에게 좋은 책*이다.

내가 아이였던 50년대 가장 좋아했던 책들 중 하나가 리클골든북(Little Golden Book)시리즈 중 하나였던 거트루드 크램프턴(Gertrude Crampton)의 『예인선 스커피』 (*Scuffy the Tugboat*)다. 이 책이 가장 훌륭한 문학 작품은 아니었지만, 책 속에 고민할 내용이 있었고, 현재 까지도 계속 출판되고 있다. 아직도 책 표지에 그려진 스커피를 보면 마음이 조금 설렌다. 내 치과의사는 자기 아들이 『토니의 조랑말』 (*A Pony for Tony*)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을 기억한다. 아들에게 책을 읽고 또 읽어 주었는데, 한 단어, 한 페이지도 빼놓고 읽을 수 없었다. 아이는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그 누군가가 기꺼이 책을 소리 내어 읽어 주기를 원했다. 분명히 책은 읽어도 더 건질게 없지만 그게 무슨 문제나 되나? 아이는 그 책을 무척 좋아했고, 자기를 등장인물 토니라 고 생각했던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

여러 가지 헤아릴 수 없는 정서적인 이유들로, 아이들이 등장인물을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같은 책을 자주 읽는다. 우리는 읽고 쓰기 발달에 있어서 반복적인 읽기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똑같은 책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플러스 요인이란 걸 안다. 아이들이 등장인물들을 좋

아하고 그들과 공감하거나, 등장인물들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이러한 부탁을 한다.

한 엄마가 자신의 어린 딸이 『코알라 루』 주인공을 굉장히 좋아해서 책을 수 차례 읽었다고 말했다. 어느 날은 어떤 페이지로 넘길 때까지 학수고대했다. 코알라 루는 고무나무(유칼리나무)를 올라 이제 곧 숲속의 올림픽에서 승리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 페이지에 재앙이 다가오는 것을 아이는 알고 있었다. 코알라 루가 결국 이기지 못했다

"잠깐, 잠깐!" 아이가 말했다. "아직 페이지 넘기지 마."

"왜?" 엄마가 물었다.

"우리가 기다리면, 이번엔 이길지도 몰라!"

나도 조카딸인 타미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타미는 그녀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디크 러프시(Dick Roughsey)의 책 『거대한 악마 덩고』 (*The Giant Devil Dingo*) 를 "읽고" 있었다. 그때 타미는 세 살 이었다. 책에는 커다랗고 사악한 덩고(호주 들개)가 산기슭에서 다가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다. 타미는 앉아서, 다음 페이지로 책을 넘기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었다.

"왜 그러니?" 내가 물었다.

"덩고가 다른 데로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너무 무서워."

이런 반응은 즐겁다. 이들 책에 나왔던 캐릭터가 그들만의 생명력을 갖고, 두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가 자리 잡은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

우리가 책을 빌릴지 살지 결정할 때, 내용을 걸러내고 그 책의 좋은점과 나쁜점에 대한 본질을 찾는 방법은—짜잔!—소리 내어 책을 읽는 것이다. 따로 시간을 내어 책들을 쌓아놓고 소리 내어 읽으면, 그 책이 좋은 책인지 아닌지 구분 하는 방법을 금방 배울 수 있다. 지루한 책들은 금방 알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부드럽게 책을 읽을 수 없거나, 문장이 부드럽지 않거나, 리듬을 명확하게 알기위해 읽었던 부분을 다시 읽어야 한다면, 그 책을 좋은 책이 아니다—단어가 제대로 선택 되지 않았을 뿐더러 제자리에 안 놓였다. 우리는 좋은 이야기가 들어 있고

언어를 잘 다루는 책을 골라야 한다.

어떤 책을 사야 하는지 고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정말 좋은 책들은 우리가 집으로 가져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아직도 "어떤 책을 골라야 하는 걸까?" 라며 궁금해 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다른 부모들과 가끔 만나서 서로에게 책을 읽어주어 실패안하는 아동도서를 공유하는 독서클럽을 만드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어른들은 최고의 아동도서를 볼 때 금방 매료 된다.

☆

나는 지금까지 이 책에서 동화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책이기도 하다. 아인슈타인도 어떻게 하면 자기 아들을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지 에 대해 한 엄마에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동화를 읽어 주세요." 그는 말했다.

그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생각한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동화를 읽어 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인슈타인이 답했다 "아들에게 더 많은 동화를 읽어 주세요."

동화를 읽으려면 세심한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문제를 해결 하는데 더 적극적이고, 예측과 의미의 터널을 굴러가고, 감정의 언덕에서 구르고 일어나 다시 달리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종종 동화를 두껍고 삽화도 전집으로 만든다. 이렇게 그림이 조금밖에 없는 것이 동화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데,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이 더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야 때문이다. 아이들이 마법에 걸린 듯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만의 그림을 만들어 내기 위해 활발하게 뇌를 움직여야 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말하고 싶어 하는 상상력을 개발 시키게 된다.

(나는 책을 읽어 주기 보다는 이야기를 더 자주 해주는 편이다. 책은 없다. 삽화도 없다.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 중, 끝없는 TV시청으로 상상력이 파괴된 아이들에게, 종종 머릿속에서 장면, 캐릭터 그리고 일어난 일들을 창조하는 것은 어렵다. 내가 해주던 이야기 절반 쯤 지나서 아주 고요하고 절망적인 순간이 있었

는데, 뒤에 앉아있던 아이가 책 없이 이야기를 해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라고 소리 쳤다. 아이 잘 못은 아니지만, 이런 아이는 어릴 때 뇌가 녹슨 것이고 그녀의 지적 잠재력을 절대로 일깨우지 못할 것이다.)

동화들은—다른 최고의 그림책과 소설처럼—아이들에게 삶의 규칙을 가르쳐 준다. 동화는 그 속에 등장하는 사랑과 슬픔, 용기와 끈기, 용기 있게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것, 수단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약자들을 돌보는 것에 대한 위대한 예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발전시킨다. 문학이 주는 가장 훌륭한 이 설교는 아이들의 기억 속에 우리같이 들리고 그 안에서 바르게 산 삶의 길잡이로 자리 잡는다. (전문가들은 어린 범죄자중 많은 아이들이 이야기 속에—특히 동화—들어 있는 원인과 결과의 요인을 접해 본 적이 없으며, 사실상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결과를 상상 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것을 바로 잡기위해서, 몇몇 재활 프로그램에는 이러한 어린 범죄자들에게 소리 내어 책 읽어 주는 것이 포함된다.)

『옛 이야기의 매력』(*The Uses of Enchantment*)에서 브루노 베텔하임(Bruno Bettelheim)은 동화가 인간의 사회적인 발달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자주 읽어야 하는데, 각색되어서 선웃음을 주고, 순화되고 사탕처럼 달콤한 이야기가 아닌, 끔찍한 면도 있는 원래의 작품을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이들은 이런 무서운 동화들을 듣는 동안 조용해지고, 이야기에 빠져서 기분이 나빠지고, 오싹해지고 깜짝 놀라서 심지어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야기를 읽는 동안 우리가 그들과 함께여서 안전함을 느낀다면—물론 이것이 가장 필수적이—이야기를 무서워하기 보다는 그 모든 극적인 상황을 다시 체험 하고 싶어 한다. 무서운 이야기가 매력적인 것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결국 마지막에는 착한 사람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나쁜 사람은 망하는 그때 행복의 구명부표가 아이를 구한다.

까다로운 부모님이나 교육자들은 문학의 이러한 과장된 수준의 감성적 표현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동 심리학자들은 이에 반대한다. 책의 목적은 우리와 다른 어려운 현실을 경험하게 하고, 적절한 감정을 느끼게 하고, 다른 이들과 공감하게 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흥미를

읽지 않게 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아이들이 읽는 모든 것의 내용을 순화시킨다면, 나중에 실제로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현실이 이들에게 얼마나 더 큰 충격과 혼란을 줄까?





텔레비전: 좋은 것, 나쁜 것, 추한 것

책을 읽는 것이 근본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니다. 텔레비전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아이들에게—그리고 어른에게—중요한 것은 즐거움, 경험, 편히 쉬, 기쁨, 두뇌 사용, 상식의 성장, 그리고 여기서 각각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게 내버려 둔다고 우리 스스로 자책한다. 아이들이 책을 더 사랑하기 바라고, 평생 책을 읽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면 당연히 아이의 방에서 텔레비전을 치워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텔레비전을 아예 없애 버리는 것은 어리석고, 불필요하며 바람직하지 못하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많다.

아이들은 좋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얻는다. 수백 개의 알지 못하는 세상과 다른 경험들이 그들 앞에 펼쳐 질 것이고, 또한 아이들의 생각의 폭을 넓히고 책을 배울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통찰력도 제공한다. 텔레비전의 풍부한 가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만약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텔레비전을 본다면, 아이들을 멍청한 소비자가 아니라 똑똑하고, 호기심이 많은 존재로서 대우 해주는 가장 차분하면서도 느린 종류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만 보게 하는 것이 좋다. 저속하고, 빠르고, 격렬한 종류의 아침 프로그램들은, 오후에 아이의 집중력에 해가된다. 이것은 아이들의 뇌를 둔하게 하고 학교에 대해 부합되지 않는 기대치를 낳게 한다. 그 기대란, 빠르게 말하는 것, 조명장치의 변화, 소리 지르는 성우, 주제의 빠른 변화들인데 정상적인 교실에선 찾아 볼 수 없는 것들이다.)



텔레비전에 대한 걱정으로 손톱을 물어뜯을 만큼 초조해 하는 대신, 읽기를 텔레비전만큼 매력적이게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더 집중하는 게 나을 것이다.

내가 알고 지내 던 한 아이는 텔레비전에 중독이 되어 있어서 책을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책을 읽지 않았다. 그녀의 엄마는 딸아이가 반에서 다른 학생보다 뒤처지는 것에 걱정이 되어 나에게 연락했다. 내가 가장 처음 발견한 것은 아이가 잠자리에서는 책을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물론 밤에 잠에서 깨면 무서울까봐 침대 옆에는 스탠드가 있었다. 책들을 책장에 있었다.—그녀의 엄마도 여기까진 안다. 하지만 아이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격려도, 시간도, 조용한 장소도 없었다. 그녀의 집에 있는 텔레비전은 항상 켜 있었고, 겨울에는 가장 따뜻한 방에 텔레비전이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책을 읽을 장소가 없었다. 집에 유일하게 있는 소파는 텔레비전이 있는 따뜻하고, 불이 밝게 켜있고, 편안하고 시끄러운 방에 있었기 때문에 몸을 웅크리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소파도 없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마찬가지로 집에서 가장 시원한 방에는—편안한 소파가 있는 방—텔레비전이 있었다. 아이의 읽기 수준에 대한 엄마의 근심은 절실했다. 그녀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 했지만, 아이의 모든 문제는 읽기의 본질적 요소들 즉, 격려, 시간, 책, 잡지, 조명, 조용함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함과 여름에는 시원함, 매일 밤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안정감을 아이가 갖게 되자 모두 해결 되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텔레비전의 가장 멋진 점은,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좋은 텔레비전 시청자라던가, 나쁜 텔레비전 시청자라는 것은 없다. 어느 누구도 텔레비전 시청자로서의 우리 능력에 대해 말 할 수 없다—누구도 우리보다 낮거나 부족하지 않다. 어느 부모도 학교 정문에 서서 다른 부모에게 "우리 아이가 가장 높은 텔레비전 시청 반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에서 모든 아이들은 누가 책을 가장 잘 읽는 지 누가 가장 못 읽는지를 안다.

현재 우리의 읽기과정은 가장 느린 아이들이 3학년이 되어서도 가장 책을 읽지

못하는 아이라는 것을 교실 전체가 알게끔 개발되었다. 이 아이들의 수치심은 교실 가득히 배어 있고, 이들을 공공연한 실패작으로 전락시킴으로 그들의 삶을 바꿔놓았다. 이 아이들이 텔레비전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게 놀라운 일일까?

읽는 것을 싫어 한다는 아델레이드의 한 여자아이의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책 읽는 것이 왜 싫은 지 물어 봤더니,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다리가 너무 피곤해요." 아이더러 자주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차가운 환경에서 소리 내어 책을 읽게 했던 것이 뻘했다. 선생님 책상에서 불편한 마음으로, 한 단어 건너마다 지적당할 것을 무서워하며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텔레비전을 얼마나 보던, 누가 일어나서 볼까?

불쌍한 이 아이는 책을 두려움, 부끄러움 그리고 지루함과 연관 시키는 것을 배운 것이다. 텔레비전이 아이들을 두려움, 부끄러움 그리고 지루함으로 가득하게 한 적이 있을까? 그녀가 텔레비전을 더 좋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물론 알쏭달쏭한 언어와, 재미없는 줄거리, 평범한 삽화가 들어 있는 학교 읽기 자료를 공부하라고 했어도 아이는 물론, 읽기보다 텔레비전 보는 것을 더 좋아. 어떤 것에 대한 즐거움의 가치와 다른 것에 대한 지루함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

클로에가 일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는 그 아이가 학교 읽기 자료를 통해 책 읽는 것을 배워나가기로 기대하고 있었다. 딸아이는 이미 그림책을 유창하게 잘 읽고 있었기 때문에 어이없고 불필요하지만 매일 밤 할당 된 페이지만큼 우리에게 책을 소리 내어 읽어 주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최악의 문제는 딸아이의 소리 내어 읽기 방법이었다. 보통 하듯이 생동감 있는 표현을 해가며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처음으로 페이지위에 있는 글자를 해독하는 아이처럼 형식적인 방식으로 읽었던 것이다.

"텨●과●꿏●과●로●버는●공원●에●놀이●갔습●니다."

"세상에! 왜 책을 그렇게 읽어?" 내가 물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이렇게 읽어야만 하니깐, 그것도 모르고!"

내가 너무 많이 웃어서 클로에는 울음을 터뜨렸다. 말콤은 그 뒤에도 클로에가 밤마다 하는 숙제를 들어주어야 했다. 나는 그 스트레스를 참을 수 없었다. 이러한 방법이 우리 딸이 책을 멀리하게 만들 거라는 생각에 참을 수 없었다. 어떤 학교에서도 "오늘 밤 이만큼의 텔레비전을 봐야한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텔레비전이 보고 싶으니깐 보는 것이다. 텔레비전은 절대로 이러한 종류의 긴장감을 만들지 않는데, 이것도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매력 있고, 감동적이고 긴 여운이 남는 뛰어난 작가의 멋진 책들을 계속 읽어 준다면 그들은 당연히 책도 좋아 할 것이다.



☆

문제해결

사랑하는 아기들에게 평생 책 읽는 것만 듣고 집에 있을 수는 없다. 아이들은 다라서 학교에 가야한다. 학교와 학교가 읽고 쓰기를 가르치는 방법에 따라 그곳은 멋진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의 희망을 짓밟는 곳이 될 수도 있다.

아이가 학교에서 읽는 것을 배우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아이를 탓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불공평한 처사이다. 아이들이 읽으려고 하는 책이 교육 보조 자료처럼 삽화가 끔찍하거나, 글이 좋지 않거나,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전부 지루한 내용의 책일 수도 있다. 학교가 제공하는 읽기 자료가 그 예이다. 뒤쳐지는 아이들에게 이런 책을 건네는 순간 아이의 몸, 두뇌, 선생님, 상황 그리고 숨 쉬는 공기까지도 아이를 긴장 하게 한다. 더 이상 재미라는 것은 없다. 그것을 위한 시간 은 없다. 아이가 굳어버리고 흥미를 잃은 그곳에 배움이라는 것도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책을 읽어 주는 어른과 책의 관계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책을 읽어 주는 어른은 책이 너무 지루하고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 워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루함은 책을 읽으려고 애쓰는 아이에게 조바심과 짜증으로 나타 날 수 있다.

어른과 아이의 무너진 관계 도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좀 더 확실 하게 말한다면, 어른—아마도 교사.—과 아이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한다면, 서로 몹시 싫어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책 읽기는 일어 날 수 없다.

☆

몇 년 동안 책 읽는 것을 들어 왔고 그것을 좋아 하였더라도, 책 읽는 것을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를 혼란시키는 아이들 그룹이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아이들의 대부분은 둘 째 이거나 그 뒤의 아이들일 경우가 많다. 이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잠자기 전 부모님과 함께 따뜻한 책 읽어 주는 시간을 즐긴다. 그들의 잠재의식 가운데, 읽는 것을 배우면 자신들에게 오는 모든 관심과 사랑이 사라 질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 책을 소리 내어 읽어 주는 것이 주는 좋은 것들이 엄청 나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들이 원하는 한 오래도록—아이들이 글을 읽을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책을 읽어 줄 것이라는 것을 이 아이들은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아이들이 스스로 글을 읽을 수 있더라도 책 읽어 주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아이들은 읽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에는 배우게 된다. 아이들의 읽고 쓰기의 꽃이 필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 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좋아했던 소리 내어 읽기는 언제나 아이들의 읽고 쓰기 발달에 가장 큰 공신일 것이다.

☆

읽기의 어려움이 모두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아이들이 읽을 때 실수를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문제이다. 우리가 그것들을 고쳐 주어야 할까? 대체적으로, 계속해서 책을 들어왔던 아이들은 글이 뜻이 통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상하게 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오랜 시간 단어가 뜻을 만드는 것을 들어왔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 아이들이 급하게 읽다가 house를 home이라고 읽을 수는 있지만 그대로 두어야 하는데, 그것이 정확성에 있어서의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정말 어이없는 실수를 하거나 아예 말도 안 되게 읽는다면 그 책은 아이가 읽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이다. 그럴 경우 요령 있게 천천히 읽어야 하며, 그 책 읽는 것을 더 자주 들어야 한다.

☆

가끔씩 아이들이 자신들이 읽는 단어가 무엇인지 모를 때 도움을 청하는 눈빛으로 바라 볼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너무 걱정 하지 말고 아이들이 책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읽기의 모든 비밀이 숨겨진 곳이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도 아니고 우리 얼굴도 아닌, 바로 책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아이들은 단어를 보는 것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아이들이 단어를 보고도 그 단어를 읽을 수 없다면 계속 기다리지 말고 그 단어가 무엇인지 말해 주는 귀야한다. 하지만 우리가 단어를 읽어 줄 때 아이들이 그 단어를 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이들 스스로 어떤 책을 읽기 전 우리가 소리 내어 많이 읽어 주면, 도움을 청하는 횟수가 줄어든다. 대신, 아이들은 자신들의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 책의 글자, 언어에 대한 지식, 그들이 상식을 동원해 어떤 어려운 단어도 알아 낼 수 있게 된다.

☆

아이들이 책을 아주 침착하게 그리고 거의 정확하게 소리 내 읽을 때, 혹시 잘못 해서 실수라도 하면 우리는 마치 그것만을 잡아내는 사람처럼 지적하고 싶어 한다. 이것은 어린 독서가 특히, 어렵게 책을 읽는 아이들에게는 크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해서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 아이들이 책을 읽는 동안 "잘했어", "멋진걸!", "훌륭해", "너무 잘 읽었어!" 같이 용기를 주는 말을 해 주어야 한다.

(그렇긴 하지만 지나친 칭찬이라는 문제를 회피하지 말자. 작은 성공에 너무 많은 칭찬을 해 주는 것은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진실 되게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능력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은 후에 아이들을 화나게 하고 실망하게 할 수 있다. 아이들이 늘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다가 나중에 그것이 항상 진실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이들은 우리가 그들을 속였다고 생각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아이들이 읽거나 쓰기를 할 때 우리의 지친 마음속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은 긍정적인 태도와 재미를 느끼는 마음이다.)

☆

만약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을 계속해서 잘못 읽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심하게 야단 쳐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단어를 적당한 때에 읽게 하려고 할 것이다. 아이들이 잘못 된 단어를 계속 읽을 수는 없지 않은가!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부드럽게 대처하자. 우리가 책과 읽기를 두고 초조해 하거나 심술궂게 군다면, 그동안 경험했던 사랑과, 즐거움, 행복함을 모두 잃게 될 것이고, 그것은 아주 절망적인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단순히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책을 듣는 것이 필요 한 것일지도 모른다. 혹은, 글자-와-단어에-집중하는-게임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고 "아무거나 괜찮으니깐, 네가 책에 있는 단어 하나를 고르면, 내가 그 단어가 어떤 글자로 시작하는지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엔 내가 단어를 고르고, 네가 나한테 그 단어가 어떤 글자로 시작하는지 말하는 거야. 하지만 여기 주의 사항이 있어. 똑같은 글자를 두 번 사용 할 수 없으니깐, 우리가 사용했던 글자들의 목록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만약 누구든지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사용하면, 그 사람이 지는 거야." 라고 말한다. 이 게임은 타당한 이유를 갖고 아이가 알파벳의 모든 글자를 하나씩 쓰게끔 하는 것이다.

게임을 하는 동안, 누가 단어를 뽑든 상관없이, 부모는 뽑힌 단어 하나하나 큰 소리로 읽어 준다. 그리고 아이가 그 단어를 구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아이가 글자를 쓰는 시도를 할 때 마다 칭찬해 준다. 그리고 부모는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써서 게임에 져 주어야 한다. 사용했던 단어의 목록을 작성하는 아이를 도와주어야 한다. 아이는 이 게임이 재미있기 때문에 매우 흥미를 느끼게 되고 그동안 잘 못 읽었던 단어들을 *바른* 단어로 바꾸어서 머릿속에 저장할 수 있게 된다.

아이가 게임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면 무시하면 말아라. 아이가 게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부모는 그것을 강요해선 안 된다. 그냥 계속 소리

내어 책을 읽어 주는 것이 좋다.

☆

내가 이 장을 시작 할 때 말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독서가가 되지 못할 때 아이 탓하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다. 이런 운 없는 아이들을 "독서 장애" 혹은 "학습 장애"라고 부르는 것은 쉽다. 이런 아이들은 "책-선정 장애" 나 "관계 장애" 혹은, 어떤 상황에서는 "가르치는 사람 장애" 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들의 잘못도 아니지만, "장애" 라고 불리는 이 아이들은 읽는 것을 배우는데 다른 아이들 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어떤 아이들은 절대 배우지 못하기도 한다. 당황한 그들의 부모는 아이들의 이러한 읽기 문제를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난독증" 으로 변장시킨다. 나는 어떤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정말 난독증이 있다는 것을 부인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이것이 하나의 핑계로 남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 하는 것이다.

여덟 살이 되어서도 글을 읽지 못할 때만 초조해 하면 된다. 여덟 살에서 아홉 살로 넘어 갈 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할 테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아이에게 어떤 부담감도 주어서 안 된다. 배우는 아이들에게 부담감과 실패자라는 생각은 전혀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한다. 우리처럼 그 아이들도 읽는 것이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재미있고, 웃기고, 스릴 있고, 유용하고, 흥미롭고, 놀랍고, 본질적이고, 매력적인 것이 되게 하는 것이다.

☆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던 집에서 소리 내어 읽어 주기를 계속 한다면, 대부분의 읽기 문제는 해결 될 수 있으며, 이것은 언제나 아이들의 행복과 읽고 쓰기 능력 그리고 그들의 미래의 생명줄이 될 것이다.



Phokissing on Fonix

내 이름은 쉬운 파닉스의 한 예이다. M-e-m F-o-x. 하지만 *붓트(bough)*, *코프(cough)*, *쓰루(through)*, *터프(tough)*, 와 같은 발음은 정말 악몽이다. 뒤에가 똑같이 끝나지만 다른 발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파닉스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쯤엔, 오해를 없애기 위해 우리는 읽는 것을 가르치는 여러 교육 방법의 용어를 구분 할 수 있어야 한다(연구결과가 이것이 방법이 아니라 단지 선생님 마다 다르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해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파닉스는 페이지에 있는 활자를 소리로 옮기는 것이다. 예를 들면 *cat*이라는 단어를 보고 그것을 *cat*이라고 읽는 것이나, *ㅋ-ㅇ-ㅌ(kuh-a-tuh)*의 소리로 쫓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어떤 언어는 다른 언어보다 더 읽기 쉬운 것이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 어와 인도네시아어는 프랑스어나 영어 보다 "읽기" 쉽다. 영어의 50퍼센트만이 발음적으로 간단한데, 그 말은 영어의 50퍼센트만 쉽게 소리를 낼 수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you*나 *beautiful*은 파닉스로는 소리를 낼 수 없다. 그렇다면 *beautiful* 의 철자는 왜 *비-유-티풀(b-you-tiful)*이 아닐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말이 된다. 문제는 영어의 철자법 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파닉스를 "음성학"과 혼동하는데, 이것은 언어 학습에 있어서 전혀 다른 가지로서 읽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음성학은 *라이트(light-빛)*를 뜻하는 호주의 강한 사투리 *로이트(loyt)*같은 언어의 여러 가지 소리를 이상한 문자기호로 해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읽기를 가르치는 것과 관련해 가끔 "단어 단위 접근법(whole word)"이라는 용어를 들을 때가 있다. 40년전 이 방법이 유행이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보고 말하기" 라고 불렀다. 아이들은 도표나 카드 위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단어를 하나씩 보고 선생님을 따라 소리를 외쳤다.

이 용어의 지뢰밭에서 "단어 단위 접근법"과 더 최근에 나온 "총체적 언어 접근법(whole language)" 이 종종 혼동된다. 80년대 초 총체적 언어 접근법은 몇 가지 이유로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소리 내어 이야기를 읽어 주어 "전체적"인 이야기에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읽기 학습이 시작되었다. 선생님들은 이야기를 여러 번 읽어 주었고 아이들은 이야기를 좋아하게 되었다. 이야기는 아이들의 마음과 감정을 사로잡았고 그들은 읽는 것을 열정적으로 배우고 싶어 했다. 선생님들은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이야기 안의 문장에 더 집중을 하였고, 그다음에는 문장의 단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단어의 부분들 즉 파닉스에 집중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의미가 있던 즉, 좋아하던 책과 연관 지어 생각하면 파닉스, 단어, 문장의 순서가 말이 되는 듯 했다. 총체적 언어는 아이들에게 읽는 것을 가르치는 동시에 읽고 쓰기를 배운다는 점에서 "전체"였다. 읽고 쓰기 능력, 즉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사고하기는 동시에 학습되었다.

수년간 "총체적 언어"라는 말은 선생님과 대중들에 의해 잘못 이해되어 왔는데, 이제 "균형 잡힌 문자해득(balanced literacy)"라고 더 자주 불린다. 이 방법은 캐나다,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의 가장 성공적인 교실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세 나라가 세계에서 핀란드 다음으로 읽기와 쓰기 능력이 가장 높다는 뜻이다.

☆

내 이웃인 윈더-걸 조세핀(Josephine)은 세 살 때 이미 무엇이든 읽을 수 있었지만, 파닉스를 통해서 읽는 것을 배운 것은 아니다.

하루는 조세핀이 그녀의 엄마와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자기가 얼마나 『코알라루』를 좋아하는지 말해 주었다. 그녀는 나에게 그 책을 전부 읽어 주며 틀리는

부분은 스스로 고쳐가며 정확히 읽었다. 며칠 후, 그녀가 다시 찾아 왔을 때, 그녀는 한 번도 본적이 없는, 어른들의 꿈 해몽 책을 나에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읽어 주었다.

조세핀의 아빠는 회계사이고 엄마는 인적 자원 관련 일을 한다. 둘 중 누구도 교육자는 아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났는지 자신들도 모른다고 말했다. 내가 아이에게 소리 내어 책을 읽어 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둘 다 "당연하죠. 언제나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읽어 주었는걸요." 라고 말했다.

조세핀은 똑같은 이야기들은 반복해서 수백 번도 넘게 들었다. 그녀의 엄마가 조지(조세핀의 애칭)는 단어 단위를 사용해 스스로 글 읽는 법을 터득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새로운 단어를 파닉스를 통해 배우지 않았고 혹, 누군가 이러한 방법을 강요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 했다. 누군가 조지에게 *hot*이라는 단어는 *h-o-t* (*huh-o-tuh*) 소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해 준다면, 그녀는 그것을 핫(*hot*) 이 아닌 허 오테(*her otter*)라고 듣는다. 조지는 단어를 모르면 물어보고, 다음에 그 단어가 나올 때 기억해 낸다. 그녀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에 논리를 적용하여 읽고 있는 문장에 어떤 단어 들이 있을 지 추론한다.

☆

이것이 바로 네 살 반의 클로에가 학교를 시작한지 두 주 만에 읽는 것을 배운 방법이기도 하다. 그녀는 좋아 하는 책을 여러 번 듣고, 글자를 보고, 그리고 함께 조합한 것이다. 그리고선, 마치 자신이 주인공인 냥 스스로 책을 읽게 해 달라고 했는데, 테이프에 자신이 읽는 것을 녹음해 나중에 듣고 싶어했다! 클로에가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는 옆에서 말해 주어 책의 진도가 나갈 수 있게 해주었고, 아이는 알 수 없는 용기로 앞으로 나갔다.

"엄마, 어려운 단어는 말해 줄 거죠? 그죠?" 클로에는 이런 소동을 부릴 때마다 겁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며 나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그녀가 머뭇거리던 특별한 두 단어인 *코지*(*cozy*)와 *인베스티게이션*(*investigation*)을 기억한다. 나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말해 주었다. 몇 페이지를 지나서, 똑 같은 단어가 다시 나왔을 때, 딸아이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것들을

읽었다.

☆

클로에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글자와 언어 그리고 책과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그녀가 네 살 때 읽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것이 더 놀랄 일이었을 것이다. 그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더 이상 나를 놀라게 하지 않는다.

세 살의 조지도 나를 놀라게 하지 않는다. 그녀는 새로운 단어를 만났을 때 본문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발달 시켰다. 소리 내어 읽어 주기를 통해 많은 문학과 구어(口語)를 규칙적으로 들은 조지는 무엇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타고난 감각이 있었다. 본인이 읽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에 그 단어가 무엇일 지에 대한 상식을 적용한 다음 글을 보고 그녀의 직감이 맞았는지를 확인한다. 지금 당신이 이 문장을 읽으면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독서자들이 하는 방법이다.

만약 아이들이 학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읽는 것을 배웠다면, 그것은 그들이 똑같은 이야기 안에 있는 똑같은 말을 듣는 동안 똑같은 글을 보았기 때문인데, 이 모든 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단지 글자뿐 아니라 언어도 익숙해진다. 읽는 것을 배우는 것은 페이지에 있는 글자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 언어를 배우는 것이다.

☆

읽는 것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가정해보자. 대부분의 어른들은 운전을 할 수 있지만, 그 중 소수만이 자동차를 분해해서, 길바닥에 늘어놓은 후 다시 원래대로 조립 하여 자동차가 목적지로 잘 달려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파닉스만 사용해서 읽는 것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은, 마치 아이들에게 읽는 것을 모두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라는 것과 같다. 이것은 매우 어렵고 헛갈릴 뿐 아니라 불필요한 일이다.

☆

만약 조지가 파닉스를 통해 읽는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면, 발음이 꼭 필요한 것일까? 때때로가 그 답이다. 하지만 발음을 잘 한다는 것이 꼭 아이(혹은 어른)가 읽을 수 있거나 읽는 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뜻은 페이지에 있지 소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소리를 낸다는 것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는다.

☆

단어의 제대로 된 소리를 내도, 읽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 할 수도 있다. 나는 내 그림 책 『할아버지가 주신 신발』 (*Shoes from Grandpa*)에 나오는 인도네시아어 문장을 뜻은 하나도 모른 채 완벽하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는데, 누구라도 할 수 있다.

"테리마 카시 바냐, 카켱!" 카타 제시 ("Terima kasih banyak, kakek!" kata Jessie.)—"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 제시가 말했다." 내가 인도네시아어를 알았더라면,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고 의미를 파악 할 수 있어서, 진짜로 읽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큰 문제는 많은 정치인들, 미디어 논평자들, 값비싼 읽기 프로그램을 계획 하는 사람들, 읽기를 위한 응급조치적인 해결책 그리고 몇몇의 선생님들과 대학 교수들이 소리를 내는 것이 책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는 것이다. 그게 사실 이라면, 나는 다시 이렇게 질문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소리 내지 않았을 때 책을 더 잘 읽을 수 있는 걸까?" 그게 가능 한 이유는, 뜻은 페이지에 있지 소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

문 닫아 주세요(Close the door) 와 정말, 아슬아슬했어(Wow, that was close)에 나오는 c-l-o-s-e처럼 영어에는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 심하게 헷갈리는 언어이다. close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문맥을 살피거나, 문장에서 사용된 단어를 보고 뜻과 발음을 잡아야 한다. 이것과 비슷한 수십 개의 예가 영어를 어지럽히는데, 이것이 영어를 배우는 외국인뿐 아니라, 읽는 것을 배우는 어린 아이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

파닉스는 영어의 서로 다른 악센트도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 호주에서 나는 오써 *ortha* (author 작가) 지만, 미국에서는 알-써 *arthurr* 이다. 어떤 소리가 정확한 것일까? 아(*au*) 소리가 오(*or*)와 같을까? 아니면 아(*ar*)와 같을까? *au*소리는 오써(*author*)와 라프(*laugh*)같은 단어에서 많은 문제를 만드는 소리이다. 어떤 것이 맞는 소리 일까? 우리가 단어에 들어간 *au*를 보기 전까지는 그것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전에 한번 미국의 남부에서 책 사인회를 하던 도중 엄청난 실수를 한 적이 있다. 나는 조금은 이상한 이름이라고 생각 했지만, 상대방이 말한 것을 따라, Terror에게 라고 사인을 주었다. 책 주인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아니요,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니깐, 테러(Terror)라구요."

"제가 그렇게 쓴 것 맞는데요." 나는 말했다.

"아니요, 이렇게요." 라고 말하며 다른 종이에 "Tara"라고 적어 주었는데, 나는 그것을 타-라(Tah-ra)라고 발음 한 것이다. 뜻은 페이지 위에 있는 것이지,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녀에게 새 책을 사 주어야 했다.

더 최근에 있었던 책 사인회에서 다른 미국 중서부 지방에 있는 미네소타에 사는 또 다른 Tara에게 사인을 해 준 적이 있다. 나는 미네소타에서는 Tara라는 이름을 내가 발음 한 것처럼 Tah-ra라고 말한다는 것을 발견 하고 깜짝 놀랐다. 나는 다시 한 번 발음이 하나의 고정된 독립체가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발음은 미국의 한 주(州)에서 다른 주로, 영어를 사용 하는 한 나

라에서 다른 나라로 움직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투리와 악센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발음 프로그램이 영어를 사용하는 곳에 사는 말하고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

만약 많은 사람들이 주장 하는 것처럼, 책의 본문을 이해 할 수 있는 능력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발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음 두 문단을 쉽고 빠르게 이해 할 수 없는 이유는 왜 일까?

According to rescheearch at an Enligsh uninertisy,
it deosn't mtttaer in what oredr the ltteers in a word
are, the olny iprmoetnt tihng is that the frist and lsat
ltteers are in the rghit pclae: the rset can be a toatl mses
but you can still raed it wouthit a porbelm. This is bcuseae
we don't raed ervey lteter but the wprd as a wlohe.
So, hey, what does this say abuot the improtnace of
phnoics? Probalby that phonics ins't very imoptrnat at all.
How apcotapycic is *that*, in the cuerrnt licetary wars!

5)

According to research at an English university,
it doesn't matter in what order the letter in a word
are. the only important thing in that the first an last
letters are in the right place: the rest can be a total mess
but you can still read it without a problem. This is because
we don't read every letter but the word as a whole.

5) 독자의 편의를 위해 본문의 예를 바른 표기로 옮긴 후, 번역하였다. (역자 주)

So, hey, what does this say about the importance of phonics? Probably that phonics isn't very important at all. How apocalyptic is that, in the current literacy wars!

한 영국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단어의 글자순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되도
우린 아무런 문제없이 읽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단어의
글자 하나하나를 읽지 않고, 단어의 전체를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파닉스의 중요함에 대해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파닉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 같은 읽고 쓰기의 전쟁에서 이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소식인가!

☆

파닉스가 유용하긴 하지만, 근본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위의 예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더 많은 예가 있다. 어떻게 파닉스 대신 그림 기호로 표기된 "상형문자"를 쓰는 몇 십억의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사람들이 책 읽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일까?

나는 이러한 질문을 에들레이드의 사립학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친한 친구인 위르겐 크라흐트(Jürgen Kracht)에게 한 적이 있다. 중국에서는 아이들에게 그 단어가 무엇인지 말해 주어야 하고, 아이들은 그것을 인식하는 것과 외우는 것을 배운다고 말했다.

☆

조세핀과 같이 어떠한 학습도 없이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읽을 줄 아는 아이들은 알고 보면 읽는 것을 배울 때 단어를 절대로 파닉스 식으로 소리 내지 않는다

다. 다시 말하면, 읽는 것을 빨리 배운 아이들은 세살이여도 파닉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아이들은 읽는 것을 배운 후에만 파닉스를 사용하고, 어렵고 여러 개의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들의 뜻을, 아이들이 보통 사용하는 활자, 문법, 문맥, 혹은 바로 전에 읽었던 내용이나 상식과 같은 논리적 방법들로는 이해 할 수 없을 때만 파닉스를 이용한다.

물론, 네다섯 살 이 되어서 우리가 쓰기를 배우기 시작 하면 파닉스가 필요한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쓴 글씨를 언어의 소리에 맞춰 뜻을 알아내기 어려울 때 사용한다. 바로 이러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파닉스를 배우고 그 다음에 철자를 배우는 것이다.

효과적인 수업 속에서, 아이들은 "큰 책"(아이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글씨를 볼 수 있다.)을 듣는 동시에 쓰는 것과 스스로 읽는 것을 배운다. 읽는 것과 쓰는 것의 학습이 함께 병행될 때, 아이의 읽고 쓰기 능력은 놀랍게 발전한다.

학교에 막 들어간 일학년 아이들이 나에게 보낸 편지들이다. 우리는 첫 번째 편지에서는 미국 남부 지방의 악센트를, 두 번째 편지에서는 캐나다 악센트를 들을 수 있는데, 아이들의 아주 현명하게 파닉스를 사용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 I hop you are downen fan.(I hope you are doing fine.)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 Dare mem fox I love your books and you are good raider and you are a nis girl. (Dear Mem Fox I love your books and you are a good writer and you are a nice girl.)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책을 좋아하고, 선생님은 좋은 작가이고 좋은 여자입니다.

- I lict yur books. (I liked your books.)

선생님의 책이 재미있었습니다.

☆

어른인 우리도 익숙하지 않은 여러 음절의 단어를 만나면 파닉스를 사용하는데,

아니면, 철자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로, 나는 Wollongong의 철자를 하지 못한다. 처음 이 단어를 타이프 할 때는 너무 많은 o를 넣거나 l을 넣어서 *Wollongongong*같이 된다. 제대로 쓸려면, 먼저 소리를 따라 나누고, 크게 소리 내서 말해야 한다.

☆

잘 읽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단어를 말해주기 보다는 단어의 소리를 내도록 강요한다면, 아이들은 천천히 읽고, 본인이 해독하는 글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억지로 혹은 교정을 위해서 우여곡절 끝에 책 한권을 파닉스식으로 읽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곳에는 즐거움도 없고, 가슴 벅참, 열정, 감정 같은 것도 전혀 없다. 궁극적으로 어떠한 보상도 없다.

"만약 읽기가 그러한 것이라면, 누가 그것이 필요하겠는가?" 라고 그들 스스로 말하는 것 같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선생님들은 아직 읽지도 못하는 아이들이나, 한번도 "읽고 쓰기의 자동차"를 타보지 않은 아이들과 같이 파닉스가 가장 필요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죽을 만큼 지루하게 자동차를 다시 조립하라고 하는 것처럼 파닉스를 심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아이들의 삶을 활기 있게 해줄 좋은 책, 글, 그림, 페이지 넘기기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알게 될 때, 또 책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줄 열정과 유쾌함과 행복을 가진 멋진 선생님을 만날 때, 비로소 아이들은 읽는 것을 배우고 싶어 할 것이다. 파닉스만 있는 접근 방법은 이러한 목표를 절대로, 꿈에서라도, 이룰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 학교 입학 전 오년 동안의 행복한 소리 내어 읽기 시간을 항상 부족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평생의 읽고 쓰기 능력으로 부활시키는 아이들일까? 아니면 예민해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파닉스의 십자가에 희생당하는 아이들일까? 이 질문의 답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남자 아이들과 책 읽기

"남자 아이입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의 아들들도 앞으로 여자아이들이 그러하듯이 책 듣는 것을 좋아하고, 책과 사랑에 빠질 것 이라는 기쁨의 기대를 해야 한다.

남자아이들이 어릴 때 책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남자아이들과 책의 비밀이다. 우리는 아기들을 위한 책에 나오는 운율, 리듬, 그리고 반복법으로 남자 아이들을 생후 몇 달 안에 사로잡아야 한다. 남자아이들(물론 여자 아이들도)이 요람에 있을 때, 자주 즐겁고 떠들썩하고 편안하고 달콤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어 주었다면, 아이들이 기어서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탐험하기 전에 그들은 책을 행복과 연관시킨다.



직장 동료인 로레인(Lorraine)에게는 세 살 터울의 두 아들이 있다. 그녀가 아기에게 에게 젓을 먹일 때, 큰 아들 네이든(Nathan)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책을 읽어 주었다. 네이든은 아기가 다른 쪽 젓을 빨면 자기도 위치를 바꿨다. 그 결과, 로완(Rowan)은 생후 오일부터 매일 에릭 칼(Eric Carle), 모리스 센닥(Morice Sendak) 그리고 존 버닝햄(John Burnungham)이 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로완은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했고 다섯 살이 되었을 때 책 읽는 것을 배웠다. 아이가 침대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로레인이 램프를 사줬을 때, 아이는 카드에 그것이 그가 받아본 최고의 선물이라고 썼다. 스물여덟 살의 로완은 아직도 책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말 그래도 아기였을 때 책에서 벗어 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남자 아이들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듯한 시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 12~18개월의 아기들은 여기저기에 정신이 팔린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주변에 손가락을 넣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전기 콘센트가 있거나, 같이 놀 친구가 있다면, 아이는 당연히 책을 들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하루 중 책 읽어 주기 시간이 가능한 때가 있는데, 하루 종일 뛰어 다니던 아이들이 지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다. 아이의 눈이 점점 감기고, 숨이 느려지면—준비완료! 아이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우리의 존재감과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이를 감쌀 때 그가 좋아하는 이야기는 마치 자장가처럼 그를 행복한 꿈의 세계로 인도한다.

내가 아는 매튜라는 아이는 소리 내어 책 읽어 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아이가 어린이용 침대에서 새침대로 바꿀 때, 아이의 옆에 누워서 책을 읽어 주기 위해, 아이의 부모는 일부러 큰 침대를 사 주었다. 책을 읽어 주는 시간은 부모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아이에게는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었다. 놀랄 것도 없이, 아이는 별도의 학습 없이 네 살 때 읽는 것을 배웠다. 매튜는 매일 밤마다 책을 읽어 주는 것을 듣는 것이 좋아서, 그것이 계속되길 바랐다. 아홉 살이 된 매튜에게 부모님은 아직도 매일 밤 그의 양옆에 누워 돌아가며 다른 책을 읽어 준다.

☆

수동적인 아이에게 소리 내어 책 읽어 주기 시간이 항상 조용하게만 진행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읽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아이가 즐겁게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적당한 순간이 오면 "맞아, 그것이 꿈 이라고 읽는 거야! 너도 하고 싶으면 꿈! 이라고 말해봐"처럼 아이와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 대화 하는 것이다. 그리고 꿈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마다 책을 치는 것이다. "맞아, 그것은 캥거루라고 읽는 거야. 똑똑하네!"

만약 우리가 매튜에게 책을 읽어 주는 것이라면, 이름에 들어간 M을 가리키거

나, 아이가 흥미 있어 하는 글자를 가리킬 수도 있는데, 항상 놀면서, 웃으면서 좋은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내가 소리 내어 읽어 주는 것을 들은 후 자신의 딸에게 방법을 달리해서 책을 읽어 주었다고 말 한 어떤 아빠가 있었다.

"선생님,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예전엔 제가 책을 정말 따분하게 읽어 줘서 저도 소리 내어 책 읽어 주는 것을 싫어하고 제 딸도 별로 좋아 하지는 않았어요."

☆

이런 행복함은 손(Sean)의 집도 있었다. 그의 엄마 엔지(Angie)가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당신의 책은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자리 하고 있어요,
아기의 멋진 기억과 유년 시절의 추억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세 살 때 2학년 학교 학습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생후 5개월 이 지났을 때부터
계속해서 매일 책을 읽어 주었고, 이젠 자기가 여동생이
태어나서 이틀이 지난 후부터 아기에게 자신이 책을 읽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조언을 들었고, 리딩 매직은
가장 가치 있는 책 중 하나입니다.

나는 엔지에게 연락을 했고, 엔지는 편지의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 했지만, 이 이야기는 몇 번을 들어도 나의 가슴을 뛰게 한다. 그녀는 손이 생후 5개월이 되었을 때 책을 읽어 주었고 『잠잘 시간』 이 내가 쓴 책 중 그녀가 산 첫 번째 책 이라고 했다.

그녀는 손이 거의 두 살이 되었을 쯤 『리딩 매직』 을 읽은 것 같다고 했다. 그녀는 그 책을 읽자마자 바로 변화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내 책을 읽

기 전부터 이미 스스로 변화했다고 생각한다.) 엔지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간단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서 모든 친구 말해주었다.

손의 읽기 실력은 빠른 속도로 발달 했다. 아이가 세 살 하고 칠 개월이 되었을 때 그는 일곱 살 이 넘는 아이의 읽기 능력과, 14살이 넘는 아이의 언어 능력을 보여주었다. 엔지는 단지 내가 권장한 것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손은 "천재 어린이"라는 국영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는데, 너무나 당연했다. 그의 IQ는 147이고 다섯 살의 나이에 이미 멘사(Mensa)의 일원으로 인정받았다. 엔지는 "아이가 모든 것을 잘하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말했다. 손은 이제 하루에 책을 열권까지 읽는다.

☆

이 시점에서 배우는 것은 즐거움이지, 결코 경주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집에서 읽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 그들은 학교에 들어가서 얼마 있지 않아 읽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좋은 선생님의 도움으로 그들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남자, 여자 아이들이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읽기를 배우고, 손, 매튜와 로완처럼 빨리 그리고 행복하고 쉽게 배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소리 내어 책을 읽어 줄 때,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이것이 다시 우리로 유대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옥스퍼드 대학의 최근 연구는 사랑이 두뇌개발에 필수적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엄마가 아기에게 기분이 좋지 않다거나, 다른 문제들로 기분이 상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아기의 두뇌는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 두려운 사실은, 생후 한 살 이내에 아이의 두뇌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후에도 만들어 지기 어렵고, 아이는 사회적, 신체적 그리고 교육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생애 첫 해가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기회의 창이며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만일, 엄마와 아빠에게 아들과(그리고 딸과)의 유대관계가 중요한 것이라면, 소리 내어 책을 읽어 주는 것이 아주 유용한 전략이다. 책을 읽어 줄 때 아이와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래를 불러 주거나, 아이와 대화를 하거나, 손뼉으로 리듬을 치는 게임이나 다른 놀이를 하거나, 안아주거나, 귓속말로 아이에게 속삭이거나,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의 작은 목 뒤에 키스 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소리 내어 읽어 주기 시간은 부모와 아이가 서로 사랑에 빠지는 시간이다. 아이에게 일상적으로 책을 읽어 주는 부모는, 아이에 대해 잘 알고 아이들을 더 애지중지 할 수밖에 없는데, 책을 읽어 주는 시간에 아이들이 말하는 소소한 것들이 너무 재미있고 사랑스럽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매일 십 분씩 책을 읽어 줄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나를 어이없게 만든다. 우리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이 시간은 재미있고, 유쾌하고, 아주 멋지다!

책을 통한 유대관계는 두뇌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기에게 책을 읽어 줄 때는 어쩔 수 없이 아기를 안고 한다. 감각은 학습으로 가는 신경경로를 만드는데 필요한 오감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특히 생애 첫 사 개월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아들에게(그리고 딸에게) 책을 읽어 주는 것은, 아이들이 일반적인 가치를 배우는데 도움이 되고, 아이들이 지금은 착한 어린이로, 커서는 좋은 시민이 되게 도와 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말하기 능력을 향상 시키고, 두뇌를 넓혀 주며,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학교와 인생에 성공하게 도와준다. 또한 아이들에게 매우 높은 자존감을 심어준다. 우리가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는지 알게 된다.

☆

하지만 책 읽어 주기를 엄마 혼자 한다면 어떨까? 우리 모두는 남자 아이들과 그들의 교육, 너무 많은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 그리고 남자 아이들을 위한 남성 롤 모델(role model)의 부족에서 생기는 염려를 인식한다. 만약 엄마만 책을 읽어 준다면, 남자아이들은 이것을 마치 여자만 하는 활동처럼 보일 것이다. 이러한 자세는 여자선생님과 남자선생님의 수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학교에 들어가면 더 강해 질 것이다. 만약 책을 읽는 것이 크게 성이 구분된 활동이라고 인식되면, 우리 사회는 큰 문제에 빠지게 된다. (남자아이들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생각해 보라!)

남자아이들이 교육적 가능성을 다 발휘하길 바란다면, 아들에게 아빠가 책을 읽어 주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 아이들의 태어났을 때부터 있어야 하며, 책을 읽어주며, 아이들이 태어난 그 시간부터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 주고, 그 후로 오 년동안 할 수 있는 한 자주 (적어도 잠잘 때만이라도) 책을 읽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빠다. 이것은 부모가 같이 살던, 이혼을 했던, 혹은 부모님을 이 주에 한 번씩만 보던 상관없이 가능하다.

☆

우리에게, 아버지들은 아들과 뒤뜰에서 공을 차며 유대관계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신념이 있다. 이 가정(假定)이 아버지와 딸들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것 외에도,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모든 아버지와 아들이 뒤뜰에서 공을 차는 것은 아니다. 어떤 아버지들은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아들이 싫어하기도 한다.

둘째, 뒤뜰에서 공을 칠 때는 말을 거의 하지 않거나, 아예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이고, 건강에 좋으며 재미있기는 하지만, 부모와 아이의 의사소통의 개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을 차는 것은 희망, 두려움, 문제 그리고 승리처럼 중요한 것들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공을 차는 것은 아이의 마음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창문을 낼 수 없다. 하지만 소리 내어 책을 읽어 주는 것을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

여기 프랭크라는 한 아빠의 슬픈 이야기가 있다. 그는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의 웨이터이며 이것은 그의 실명이 아니다. 우리와 몇 차례 만난 후, 그는 자신에게 세 명의 어린 아이들이 있다고 말했다. 어린아이들? 나는 몰랐다! 『리딩 매직』, 『잠잘 시간』, 『초록양은 어디 있을까?』 (Where is the Green Sheep?)가 들어 있는 나의 "초보자를 위한 멤 팩스 pack"을 선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나니? 맙소사!

"프랭크!"나는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말했다. "어떻게 내가 당신 아이들을 위해 책을 하나도 사인해주지 않았을 수 있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는 웃으며 아이들에게 이미 400권의 책이 있으니 괜찮다고 말하며, 그도 책들을 소리 내어 읽어 준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제 책 중 어떤 것을 갖고 있나요?" 내가 물었다. "아이들이 갖고 있지 않은 책을 드릴게요."

"아내에게 물어 보죠," 그가 말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는 사람은 아내거든요."

프랭크는 아이들에게 소리 내어 책을 읽어 주지 않는 것이다. 왜 엄마들만이 독점권을 갖고 아이들과 특별한 유대감을 나눠야만 하는 걸까?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자신들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필사적으로 알고 싶어 한다. 프랭크는 자신이 아이들과 시간을 좀 더 보내면서 소리 내어 책을 읽어 주고, 얘기하고, 웃고, 유대감을 쌓고 아이들의 발전하는 모습에 함께 기뻐하는 것을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 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

나는 엄마가 미혼모 일 때를 빼고는, 엄마가 혼자 올 경우 『리딩 매직』에 사인을 해주지 않는다. 아빠가 어딘가에 있는 것이 보이면 나는 그에게도 책에 사인을 해주겠다고 우긴다. 아빠들은 그들의 아내나 혹은 파트너에 비해 아이들을 자

주 보거나 아이들과 교감하지 못하는데, 그런 아빠들에게 아들이나 딸과의 유대감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 내어 책 읽어 주기에 있어서 아빠의 역할은 엄마와 똑같은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다.

☆

동료인 맥도날드 박사(Dr.McDonald)는 책을 읽지 않는 여덟 살의 아들 때문에 초조해 하는 한 엄마에게, *엄마가 읽기 보다는 아이의 아빠가 책을 읽어 주라고 제안한 적이 있다.* 아이의 엄마는, 아빠가 아들과 운동은 함께 하지만, 매일 늦게 돌아와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 줄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맥도날드 박사는 계속 그렇게 할 것을 제안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 아니면 주말에라도 아빠가 책을 읽어 주어 어떻게라도 남자 롤 모델이 책을 즐기는 것을 보는 것이 아이가 책을 읽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한 달쯤 뒤에 아이의 엄마가 맥도날드 박사의 제안을 따른 것이 가족의 분위기를 바꾸어놓았다고 말했다. 아이의 아빠는 아이와 함께 이 시간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고 아들에게 책을 읽어 주려고 집에 일찍 들어왔다. 어느 날 저녁, 뜬금없이, 아이는 부모에게 신문에 난 미식축구 주요제목을 읽어 주었다. 나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2005년 책 사인회 때 사람들이 끝이 보이지 않게 줄을 서 있어서, 뒷사람을 기다리지 않게 하려고 사인 사람들과 잡담을 오래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 여성이 말했다. "『리딩 매직』이 내 삶을 바꿨어요." 내 심장은 마구 뛰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있을까? 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따로 시간을 마련했다.

그녀는 아들이 아홉 살 이었는데 책을 읽지 못했다고 말했다. 책을 읽지 못하는 것은 아이에게는 큰 슬픔이, 부모에게는 부끄러움이 되었다. 아이는 특수반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었다. 『리딩 매직』의 제안들이 그녀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 아버지를 이상처럼 생각하는 아들에게 아빠가 책을 읽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남편이 아들에게 책을 읽어 주도록 설득하는 데만 사 개월이 걸렸지만, 그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기 시작하면서 그는 마음의 열정을 다해 읽어 주었다. 아들의 읽기가 늘기 시작했는데, 열 살

반이 되었을 때는 책을 읽지 않을 때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요,"라고 말하며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가장 놀랍고 기대하지 못했던 것은, 남편과 아들이 애정이 깊은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절대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 대목에서 나도 울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내 웹사이트에 올린 수(Sue)의 글이 더 가슴 아픈 이유이다

『리딩 매직』은 우리 가정에 뜻밖의 일을 가져왔습니다.
매일 (적어도 하루에 두 번) 저는 아이들과 앉아서 몇 권의 책을
함께 읽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소리 내어 책을
읽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 것인지 잊어버렸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이것을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는 즐거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지 저의 아들(세살입니다)이 두 번째 책 읽어 주기 시간이
 끝나고 저에게 폴 재닝스(Paul Jennings)의 용 라스칼
(Rascal the Dragon)을 읽어 주었어요. 소리를 그대로 내진
않지만 그것을 굉장히 좋아 해요. 자기 말로 이야기를 다시 해
주는 것도 즐거워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읽기를 이렇게 즐겁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빠만 이 즐거움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어요!

☆

2004년 마크 레이담(Mark Latham 호주 노동당 당수-역자 주)은 아이들에게
소리 내어 책을 읽어 주는 것이 주는 혜택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지만, 그 스
스로도 자신의 4개월 된 아들 올리버(Oliver)에게 소리 내어 책을 읽어 주는 것
이 처음에는 바보같이 느껴졌다고 시인했다.

나는 책을 읽어주는 것을 나중에 시작해도 될 것 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아이가 서너 살 될 때까지 미루어도 되는 것이
라고 생각하는 부모님께, 처음 몇 달 동안은 그것이 우스워
보이는 것도, 아이들을 안고 그들이 책에 익숙해지게 하는 것도
바보 같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다.
물론, 아이들이 책을 잡고 먹거나, 씹거나, 찢으려고 할 때도
있다. 하지만 끈기 있게 기다리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

최근 호주 내셔널 뱅크(National Australia Bank)이 후원한 행사에 참석해, 소리
내어 책 읽어 주기에 대해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행사 전에 있었던 각테일
파티에서 삼십대 후반쯤의 두 은행 지점장이 점잖게 옷을 차려입고 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그들이 어린 남자아이들을 둔 아버지라는 것을 확신 할 수 있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소리 내어 책을 읽어 주고 있죠?" 내가 말했다. "아님,
나 화낼 지도 몰라요!"

"그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말했다. "도널슨 일기의 헤
리 메클레리 (Hairy Maclary from Donaldson's Dairy)를 읽어 줍니다." "헤라클
레스 모르스(Hercules Morse)는 도널슨의 일기에 나오는 헤리 메클레리와 처럼
말같이 커다래요"라고 린리 도드(Lynley Dodd)의 멋진 책에 나오는 문장을 두
번째 남자가 인용하여 말했다. 그러자 첫 번째 남자가 "보텀리 포츠(Bottomley
Potts)는 온몸이 점박이예요, 헤라클레스 모르스는 말과 도널슨의 일기에 나오는
헤리 메클레리 만큼 커다래요."라고 말했다. 믿을 수 없지만, 검은 정장에 제대로
된 넥타이 까지 한 신사 둘이 서서 책 한권을 즉흥으로 읊었다! 이것은 웃긴 광
경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들의 운이 좋은 아들들에게 이
멋진 책을 반복해서 읽어 주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다.

☆

은행 지점장, 정치가, 사업가, 군인, 그리고 일이 너무 바빠서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아이들과 오래 떨어져 있어야 하는 모든 엄마 아빠들은, 직장에 갈 때 좋아하는 책 몇 권을 들고 가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만약 너무 늦어서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집에 도착하지 못하면 전화기로 이야기를 읽어 줄 수 있고 아이는 집에서 따라 할 수 있다. 집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부모들은, 자신들이 직접 소리 내어 책 있는 것을 비디오테이프에 녹화 시키는 것도 좋아 할 텐데, 아이들은 그것을 매일 밤 볼 수 있게 되고, 감각을 잃지 않게 된다.

이제 모두들 내가 책을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사마귀에서부터 지구 온난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하지만 내 말만을 믿지 말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아이를 찾아 이것을 스스로 발견해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무 권의 책 목록

이 목록에서 빠진 책들에 대해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이 책들 외에도 수백 권이 넘는 멋진 책들이 있다. 여기에 있는 책들은 부모들이 스스로 용감하게 책을 고르기 전에 그들을 도와주기 위한 가이드에 불과하다.

『나는 산책하고 있어요』 (*I went walking*), 수 마친(Sue Machin)그림/줄리 비바스(Julie ViVas)

『각각 복숭아 배 자두』 (*Each Peach Pear Plum*), 글/그림 자넷과 앨런 앨버그(Janet and Allan Ahlberg)

『갈색곰아, 갈색곰아, 무엇을 보고 있니?』 (*Brown Bear, Brown Bear, What do you see?*), 글/빌 마틴(Bill Martin), 그림/에릭 칼(Eric Carle)

『초록색 계란과 햄』 (*Green Eggs and Ham*), 닥터 수스(Dr. Seuss)

『당신이 내 엄마예요?』 (*Are You My Mother?*), 필립 이스트먼(P.D. Eastman)

『괴물들이 사는 나라』 (*Where the Wild Things Are*), 모리스 센닥(Maurice Sendak)

『스팟이 어디에 숨었나요?』 (*Where's Spot?*), 글/에릭 힐(Eric Hill, 그림/패트릭 벤슨(Patrick Benson)

『도날슨 일기의 헤리 메클레리』 (*Hairy Maclary from Donaldson's Diary*), 린리 도드 (Lynley Dodd)

『용 라스칼』 (*Rascal the Dragon*), 글/폴 재닝스(Paul Jennings), 그림/밥 리아(Bob Lea)

『매들라인』 (*Madeline*), 루드비히 베멜번즈(Ludwig Bemelmans)

『웬벳 스튜』 (*Wombat Stew*), 글/마시아 본(Marcia K. Vaughan), 그림/파멜라 로프트(Pamela Lofts)

『누가 보트를 가라앉게 했어?』 (*Who Sank the Boat*), 파멜라 알렌(Pamela Allen)

『닥터 수스의 ABC』 (*Dr. Seuss's ABC*), 닥터 수스(Dr. Seuss)
『동물원에 쓴 편지』 (*Dear Zoo*), 로드 캠벨(Rod Campbell)
『곰사냥을 떠나자』 (*We're Going on a Bear Hunt*), 글/마이클 로젠(Michael Rosen), 그림/헬렌 옥슨버리(Helen Oxenbury)
『로지의 산책』 (*Rosie's Walk*), 팻 허친스(Pat Hutchins)
『코끼리와 버릇없는 아기』 (*The Elephant and the Bad Baby*), 글/엘프리다 비 폰트(Elfrida Vipont), 그림/레이몬드 브릭스(Raymond Briggs)
『난 지구 반대편 나라로 가버릴 테야』 (*Alexander and the Terrible, Horrible, No Good, Very Bad Day*), 글/주디스 바이올스트(Judih Viorst), 그림/레이 크루즈(Ray Cruz)

☆

감사의 글

나에게 이 책을 쓰도록 강요했던, 내 첫 작품인 『주머니위의 깜짝 마술』의 멋진 발행인 수 윌리엄스(Sue Williams)와 제인 코버턴(Jane Covernton) 덕분에 이 책을 시작할 수 있었기에 나는 그들에게 많은 빛을 졌다. 많은 에너지로 공을 들고 뛰고, 튀기고, 넘겨주며 옆에서 지켜보는 내가 다 어지러울 정도로 모든 것을 도맡아 해준 소중한 내 에이전트 제니 달링(Janny Darling)에게도 무한하고 끝없는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 한번 내지 않고, 너무 가차 없는 편집으로 나를 숨 가쁘게 만들기도 하고 너무 탁월해서 나를 날게 해 준 존경하는 편집장 알린 존스톤(Allyn Johnston)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